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세상에 거름될 수 있는
주장 내세워야 지식인
16·17면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 〈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3월 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935호 2013년 4월 10일 수요일

정부 예산, 불교보다 개신교가 많았다

화엄광장 · 불교미래사회硏, 정부 종교 예산 분석

템플스테이와 문화재 보수유지비 등으로 불교계가 정부 예산 지원에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일부 개신교 측 이 주장이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엄광장(회장 성직)과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휴)는 4월 3일 정부 종교지원예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기사 4면

그간 일부 개신교 측은 불교계가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2010년에는 템플스테이 예산을 놓고 대구 개신교계가 이를 비방하는 동영상을 제작 배포해 물의를 빚은 바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조사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주요 3대 종교의 정부 예산 추이를 분석해 이 같은 시비를 종식시켰다는데 의미가 크다.

실제 이번 연구조사는 중앙정부 부처 15부 2처 18청 중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비영리민간부문에 대한 예산 지원을 시행한 부처의 일반, 특별회계, 기금 내역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그렇다면 개신교의 주장대로 가장 많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종교는 불교일까?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은 종교는 개신교에 가까웠다. 화엄광장과 불교미래사회연구소에 따르면 개신교는 2010년

3년간 종교계 예산 추이 조사

불교, 문화부 · 문화재청 편중

개신교, 지원 규모 가장 높고

교과부 · 복지부 · 여성부 독식

불교도 다양한 사업 전개 필요

1183억 원, 2011년 1362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줄기는 했으나 1148억 원이 지원됐다.

반면 불교는 2010년과 2011년 800~900억 원대의 정부 예산이 지원됐던 것이 2012년 1270억 원으로 상승됐다. 지난해 예산만 놓고 볼 때 불교와 개신교는 120억 원의 예산 차이를 보이나 3년 간의 추이를 산정하면 개신교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다.

각 부처별 종교지원 예산도 차이가 있었다. 불교의 경우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편중돼 있었으며, 그 비율은 불교계 전체 지원 예산의 65%에 달했다.

개신교의 경우 사학과 복지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만큼 교육과학기술부(2012년 727억 원)와 보건복지부(2012년 272억 원)에서 가장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었다.

또한 종교 예산을 지원한 8부 1처의 정부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서에서 개신교가 사업 예산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개신교 지원 예산이 전체 종교 예산 중 57%에 달하며 여성가족부는 65%, 외교통상부는 77%, 교육과학기술부는 70%의 종교예산이 개신교에게 지원됐다. 사실상 불교계의 대사회적 사업 영역의 인프라가 개신교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연구조사에 대해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개신교의 국고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사업에 편중돼 있다. 불교와 같이 완결 예산이 아니라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다. 전년 대비 국고 예산이 줄지 않는다는 가정을 적용하면 지난해 개신교 예산이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고 지원이 불교계에 편향돼 있다는 주장이 허구이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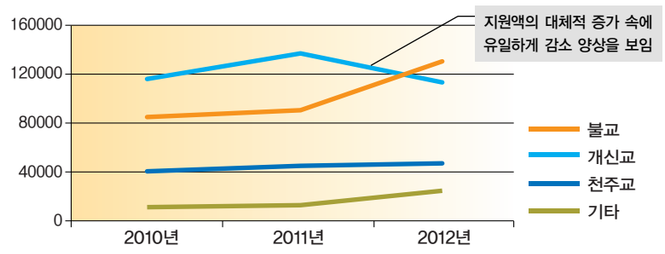
이어 "지난 3년 간 정부의 종교예산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종교는 개신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개신교에 대한 예산 편중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차원적인 조사가 아닌 다각적 차원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종교별 예산지원 규모 (단위 : 백만원)

종 교	2010년	2011년	2012년
불 교	82,660	93,085	127,048
개신교	118,322	136,231	114,858
천주교	39,717	42,701	44,204
기 타	10,172	12,648	22,371

정부 종교지원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만해선양회는 4월 3일 동국대에 만해마을을 기증했다. 사진은 기증식 후 가진 기념촬영 모습

만해마을 동국대에 기증

만해선양회, 3일 기증식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오현)는 4월 3일 인제 만해마을 시설 일체를 동국대에 기증했다.

'만해마을 무상증여 계약 체결식'에서 오현 스님은 "만해마을은 만해 스님의 민족정신을 기리고 스님의 문학정신를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며 "만해마을의 동국대 기증은 스님의 정신을 보다 널리 펴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기증 이유를 밝혔다.

기증식에 참여한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만해 스님의 민족자주정신과 불교개혁정신, 그리고 문학정신을 계승하겠다"며 "만해마을이 국민들의 교육도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만해마을의 기증은 500여 명의 학생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수련시설과 서예 · 시집박물관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동국대의 교육 인프라와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또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매년 만해마을과 인제군 일대에서 개최하고 있는 만해 축전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사설 31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연등회 알리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프랑스, 베트남, 스웨덴, 리투아니아, 몽골 등 20개 국가에서 온 70여 젊은이들이 손을 흔들며 활기찬 표정을 짓고 있다. 이들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와 연등회 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가 모집한 '2013 연등회 국제 자원봉사자'들로 4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3 연등회 국제자원봉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6주간 한국불교역사와 연등회 문화에 대해 배우고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후 5월 11~12일 불교한마당 및 연등축제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관련 기사 6면

글=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935호 INDEX

종합 2·3
대법원, 전통사찰 등기예규 제정
조계종 출가활성화 특위 구성
사회통합을 위한 발전방안
대불련, 법인화 필요하다

시방세계 5
금산사 노동자 템플스테이

수덕사, 국제선수행대회 연다 11

새연재 미얀마 불교이야기 13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새학기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

교육원장 스님 등 교육원 교역직 스님 캠페인 동참
본지 연재 필진들도 원고료 보시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비롯해 교육부장 법인 스님, 불학연구소장 혜명 스님과 교육원 교역직 스님들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금일봉을 희사했습니다. 또한 본지 연재 필진들도 원고료를 십시일반 보시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성원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현응 스님
교육원장


법인 스님
교육부장


혜명 스님
불학연구소장


가섭 스님
교육국장


진광 스님
연수국장


석중 스님
연구소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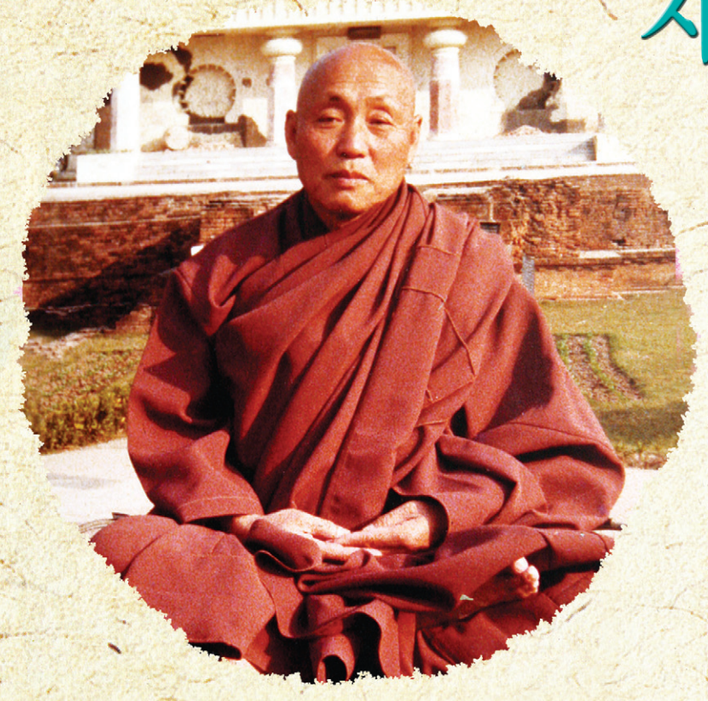
■ **캠페인에 동참한 본지 필진**
한북 스님, 강우방 교수, 홍광표 교수, 김호성 교수, 고영섭 교수, 유정길 대표, 박동춘 소장, 오종욱 위원, 최주현 화가

■ 문 의 : 02)2011-1903 (조계종 포교원)
02)2004-8258 (현대불교)

■ 동참계좌 : 국민 006-01-0785-361 ㈜현대불교신문사

어린이 불서를 법공양 받고 싶은 독자와 사찰에서는 문의 전화나 이메일(motp79@hyunbul.com)로 신청해 주십시오.

자운대율사 탄신100주년 기념세미나



자운대율사님께서는 한국불교의 율맥을 이어받아 근세 한국불교 율풍을 크게 진작하신 종단의 큰 스승이십니다.

대율사께서는 종단의 전계대화상이 되어 흐트러진 계단을 정비하시고, 구족계단, 식차마나니계단, 사미계단, 보살계단을 정립하여 수많은 사부대중을 불문으로 인도하여 수계를 베푸셨습니다.

이번에 대율사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종단의 고승 대덕스님들과 사부대중께서는 관심을 가지시어 참석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일 시 _ 2013년 **4월 12일** (음 3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 소 _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총무원청사) 국제회의장

내 용
- 종단 대표 축사 : 총무원장스님, 원로의장스님
- 기조발표 : "문수보살과 자운대율사"(인환 큰스님 원로의원)
- 1 발 제 : "율풍진작을 통한 한국불교중흥의 행적"(법혜스님 전 동국대교수)
- 점심공양 : 11시 30분 ~ 12시 30분(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식당)
- 2 발 제 : "대승보살계홍포와 무생계첩의 재흥"(허흥식교수 한국학연구원교수)
- 3 발 제 : "유교법회정신의 계승과 봉암사결사·해인총림도량에서의 역할" (법진스님 전 해인사승가대학 학장)
- 4 발 제 : "선정율일치의 수행문을 열다"(태원스님 전 중앙승가대 총장)
- 5 발 제 : "참법수행과 예참의례의 유통"(미등스님 전 조계종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 6 발 제 : "삼밀을 엄정히 수행한 문수행자"(혜능스님 전 해인총림 율원장)
- 총 정 리

자운대율사 탄신 100주념 기념사업회 대표 세민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강력한 헌신은
의업을 정화시키나니
그대의 정수리 위에 스승을 떠올려라.

만약 당신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돈과 재산에 사로잡혀 있다면, 다음생엔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아귀계에 태어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헤어지는 아픔으로 임종 시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헌신은 지속적인 평정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스승의 존명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식은 완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스승을 당신 정수리 위에 계시다고 관상하십시오.

비록 짧은 순간일지언정 망상을 멈출수 있습니다. 헌신은 스승의 자비라는 낚싯바늘로 윤회계의 수렁 밖으로 잡아당기는 고리입니다.

깨달음은 이미 마음 속에 내재돼 있습니다만, 그 베일을 벗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강한 헌신을 일으키고, 스승의 깨달음의 불성을 당신의 일상적인 마음과 융합시킨다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애로운 스승을 명상하는 것은 다른 어떤 수행보다 심오한 영적 수행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종단 승인 없이 사찰 토지 처분 안된다

대법원 3월 27일 전통사찰 등기예규 제정

처분시 종단 정관 등 제출
전통사찰은 법무검증 받아야
불교 종단 등기 주체로 인정
"삼보정재 관리 강화 효과"

사찰 재산 처분시 반드시 종단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종단 소속 사찰 재산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대법원은 조계종의 청원에 따라 3월 27일 부동산 등기예규 내에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를 제정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이번 등기예규에서는 종단 소속 사찰이 토지를 처분할 때 종단 정관과 종단 대표자의 재직증명, 직인인감증명 등을 제출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종단 재직증명 및 직인인감증명은 반드시 종단 총무부을 통해 발급되기 때문에 주지 스님 등의 독단 의한 사찰 재산의 임의처분이 불가능해지는 법적 장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등기변경은 일반 사회법에 따라 회의록과 회의록 상 대표자 포함 3인의 인감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찰정관 등만 있으면 가능했다.

이번 등기예규는 그동안 밀양 표충사 토지매각 등 삼보정재 유실 문제를 겪은 조계종의 관리 강화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전통사찰의 경우 재산 처분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전통사찰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와 변호사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고 등기관의 서류검토도 의무화됐다.

또한 새로 도입된 등기예규에서는 개인사찰이라도 종단 소속 사찰이면 등기변경시 사찰 정관과 대표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종단 소속 사찰이 아닌 개인사찰은 기존 등기 처리와 동일하며 전통사찰이 아닌 사찰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황충기 조계종 재무팀장은 "그동안 불교종단은 임의단체로 포함돼 종단정관 등 서류를 등기에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등기예규는 불교 각 종단을 등기 주체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황 팀장은 "등기예규는 허위서류 작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로 표충사 토지 불법매각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방지되는 등 삼보정재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이번 등기예규에 맞춰 사찰 표준정관 의무사용 및 실무지침을 배포하고 등기용 재직증명, 인감증명 발급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출가 활성화 입법은 시대 과제"

출가활성화 특위
4월 3일 첫 회의
6월 前 공청회 개최


출가활성화특별위원회는 4월 3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입법화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조계종 중앙종회 193차 임시회에서 구성된 출가활성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일관)가 4월 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특위에서는 일관 스님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종회의원 장적 오심 청원 적천 도정 종민 제정 상덕 스님과 교육부장 법인, 포교부장 송묵 스님 등 11명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활동기한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이다.

첫 회의에는 종회의장 향적 스님이 참석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향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급격한 출가자 감소 현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지난 종회에 '청소년, 단기, 특수 출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했으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특위를 구성했다"며 "특수출가는 몇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 먼저 청소년과 단기출가 부분을 검토해 6월 종회에서 입법화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가 활성화에 대한 의원 스님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장적 스님은 "출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중고등학생부 때부터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심 스님은 "최근 이웃 종교에서도 신학대에 종교인 양성을 위한 등록금과 장학금을 따로 마련하는 등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며 "출가자 감소는 종단적으로 큰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제정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정 스님은 "출가자 감소는 급격한 주거, 생활환경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획일적 한문 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출가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는 내부적으로 많이 나왔다. 이제는 출가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의 정비와 이를 관리할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가활성화특위는 일선 종립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2차 회의에 능인중학교 교장 아용스님, 박영동 영석고 교법사, 고진호 동국대 입학처장 등을 초청해 연찬회를 진행키로 결의했다.

또한, 특위는 청년, 단기 출가에 대한 입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6월 전에 개최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불기2557년 불자대상 접수
조계종, 19일까지 모집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오는 4월 19일까지 불기2557년(2013년) 불자대상 후보자 접수를 진행한다.

불자대상은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한 불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불법홍포와 한국불교 위상 제고에 공로가 큰 불자, 또는 불자의 자긍심 고취와 종단 발전 및 홍보에 공로가 크거나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불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은 물론 외국인과 고인(故人) 및 단체도 추천 가능하다.

대상 후보자 추천자격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각 교구본사 주지 스님 및 사찰 주지 스님, 조계종 등록 포교단체 및 신도단체 등에 있다. 추천 서류와 공적사항 입증 서류를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제출하면 된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5월17일 오전 10시 조계사 봉축법요식장에서 진행된다. (02)2011-1706

신중일 기자

우리 사찰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계종 미디어위, 지침서 발간



사찰 홍보와 보도자료 작성, 오보 대응 방법을 매뉴얼화 한 지침서가 나왔다.

조계종 미디어위원회는 언론 홍보 방법을 담은 〈미디어 불교홍보, 이렇게 하자〉를 발간했다.

중앙종무기관과 사찰 언론 홍보 지침서로 활용될 이 책에는 △언론 활용법 △불교 홍보 방법 △보도자료 작성법 △사후 관리 방법 △오보 대처법 등이 수록돼 있다.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미디어의 활용과 불교의 현대적 홍보를 위해 본말사 주지 연수교육, 강좌 개설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불교적 입장에서 미디어 홍보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지침서의 발간으로 미디어 홍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홍보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향후 조계종은 이번 지침서를 종무행정학교 등의 종무원 교육 교재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 미디어위원회의 명단도 공개됐다. 미디어위원회는 총무원의 언론홍보 및 정책 자문을 위해 지난 2006년 설립된 기구로, 현재 이동식 권복기 김석종 김성모 김성호 박승규 서기철 서쌍교 서화동 오기현 유권하 윤영찬 이동애 이선민 등 21명이 미디어위원에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특별 강설 및
'한국의 큰스님 글씨 – 월정사月精寺의 한암漢岩과 탄허呑虛'
특별전시회 개최

초대합니다.
2013년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는 탄허스님(1913년 ~ 1983년)은 한국불교의 고승이자 선지식으로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이정표를 제시한 이 시대의 정신적 지도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인 김홍규옹의 아들로 태어나 1983년에 열반에 든 탄허스님의 생애는 그대로 20세기 한국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에 탄허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다음과 같이 도올 김용옥선생의 특별 강연과 특별 전시회를 준비하였으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탄허 대종사 탄신 백주년 기념 특별 강설
- □ 주 제 : 탄허 스님의 화엄 세계 (20세기 한국 불교의 정맥正脈과 그 고뇌)
- □ 강 설 : 도올 김용옥 (우리 시대의 철학자)
- □ 일 시 : **2013년 4월 15일(월) 오후 2시 ~ 3시 30분**
-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2) 한국의 큰스님 글씨 –월정사月精寺의 한암漢岩과 탄허呑虛– 특별전시회
- □ 개 막 식 : **2013년 4월 15일(월) 오후 4시**
-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2층 서예실
- □ 전시기간 : **2013. 4. 16.(화) ~ 6. 15.(일)**

불기 2557(2013)년 4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회주 연암 현해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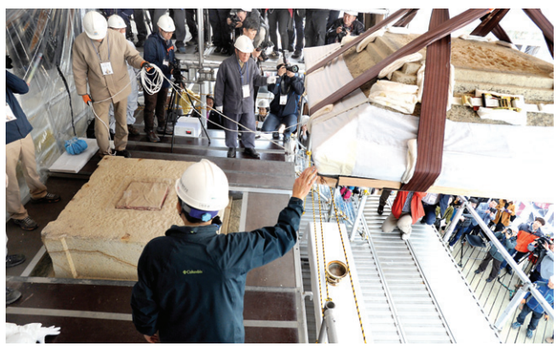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안내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와 한암문도회는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학술·출판사업, 홍보사업, 연대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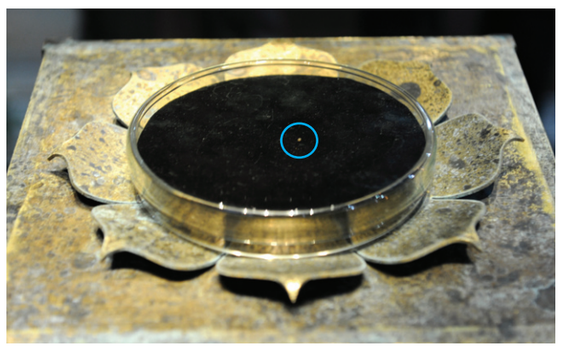
– 다 음 –

사 업 명	일 정	장 소
■ 학술 / 출판사업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제2차 학술심포지엄 개최 "탄허대종사의 인재양성과 교육이념의 시대정신"	4. 26.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국제회의장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출판 및 책자 발간		
– 탄허대종사 증언집 '방산굴의 무영수' 발간	2. 24.	
– 탄허대종사 법어집 '방산굴법어' 증보판 발간	2. 24.	
– '되돌아본 100년, 탄허' 단행본 발간	2. 24.	
– '탄허대종사 생애와 가르침' 단행본 발간	4. 15.	
– 탄허대종사 유묵집 발간	4. 15.	
– '탄허대종사의 인재와 교육' 단행본 발간	8. 31.	
■ 홍보사업		
• '탄허대종사의 사상과 생애' 다큐멘타리 제작 및 방송	5월 중순	불교TV, KBS
• 탄허대종사 100주년 방송 홍보 및 육성법문 방영	1월 – 12월	불교TV
■ 연대사업		
• 틱낫한스님의 '치유·행복·상생' 명상수행학교 운영	5. 3. – 5. 7.	월정사
■ 교육사업		
• 화엄강좌 개설 및 운영	10. 12. – 10. 20.	월정사
• 도올 김용옥 선생 초청 특별 강연	4. 15.	국립중앙박물관
• 무비스님 초청 특별 강연	4. 26.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문화사업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 "한국의 큰스님 글씨–월정사月精寺의 한암漢岩과 탄허呑虛– 특별전시회"	4. 15. – 6. 16. 7. 10. – 8. 25. 9. 9. – 10. 3. 10. 10. – 11. 24. 12. 10. – 2014. 2. 16.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월정사성보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추모다례재	2. 24.	월정사
• 탄허대종사 열반 30주기 추모다례재	6. 2.	월정사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선서함양 전국휘호대회 및 입선작 전시회	6. 2.	월정사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합창제	10. 12.	월정사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세계평화와 나눔의 치유음악회	10. 19.	월정사

석가탑 2층 사리모신 곳, 47년만에 '햇빛'


4월 2일 석가탑 2층 옥개석을 해체하는 모습.


2층 옥개석 사리공의 복제 사리 장엄구.


사리 장엄구에서는 사리1과〈표시〉가 나왔다.


탑신 2층 옥개석〈표시〉에서 사리 장엄구 일체가 수습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4월 2일 47년만에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국보 제21호) 2층 옥개석을 해체하고 탑신의 사리공에서 사리 1과와 사리장엄구를 수습했다. 이번 사리장엄구 일괄의 수습은 전면해체 수리 과정 일환으로 사리는 불국사 무설전으로 이운됐다. 불국사는 2014년 3월 말까지 진신사리친견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9면

"사회통합 앞서 종교 스스로 성찰해야"

불교사회硏 2주년 세미나서 종교인 '한목소리'

"사회통합은 시민 스스로의 자발적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종교계가 나서 자발적 동참을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 스스로의 성찰이 선행돼야 합니다."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4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종교, 사회통합을 이야기하다' 세미나에서 종교계의 사회통합 기여에 앞서 종교 스스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불교사회연구소가 개소 2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의 '한국사회 갈등의 양상과 대안-사회통합의 방향모색',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교의 역할' 발제에 이어 흥선 스님, 장동훈 신부(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 총무), 이훈삼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장) 등 종교계의 활발한 의견제시가 이어졌다.

이날 흥선 스님은 "한국사회에서 양극화로 인한 갈등의 핵심은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 못한데서 유발된 부분이 많다"며 "공정경쟁, 정의 수립 등 원칙 확보에 종교를 넘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흥선 스님은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 스스로 변해야 한다"며 "현재 한국사회에는 충돌을 중재하거나 이해 당사자 간 소통을 매개하는 균형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할 때로 종교인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동훈 신부와 이훈삼 목사도 양극화 심화로 커지고 있는 사회갈등의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종교의 역할을 꼽고 종교계의 변화를 촉구했다.


흥선 스님


이훈삼 목사


장동훈 신부

장동훈 신부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려면 그 무엇보다 종교 내부의 성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신부는 이어 타종교의 진리추구를 인정한 제2회 바티칸 공회를 예로 들며 "이러한 가톨릭교회의 고민은 다문화, 다종교적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생겨났다. 종교간 대화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신부는 "현재 정치권이 복지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비판하지만, 종교 스스로도 복지를 빙자해 교세확장 등에 나서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순수한 자기희생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훈삼 목사는 "종교가 사회에 관여하는 방식은 직접적이기 보다 간접적이어야 한다"며 "직접적인 개입은 종교가 정치집단으로 환원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종교의 권력화와 세속화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 목사는 "시민단체를 지원하며 종교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아은 가운데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사회에 알려야 한다"며 "종교 스스로 권위를 확보할 때 이런 가치를 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경제학의 입장에서 "세금 감소를 골자로 하는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은 "정부와 시민사회, 종교계 등 사회약자를 돌보는데는 구분이 없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노덕현 기자

"대불련, 법인화 등 변화 필요하다"

대불련 문제 해결 공청회서 변화 방향 모색

"대불련은 사실 존폐의 기로에 있다고 보인다. 법인화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중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 스님)

"대학생 포교를 위해서는 스님, 일반신도, 학부모, 교수불자, 대학생 중 누구를 포교 주체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며, 계층별 신도조직을 연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조계종 포교국장 노휴 스님)

"요새는 신입생보다는 고학년들이 불교동아리를 찾아오고 있다. 스님과 종단 관계자분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대학생들이 왜 불교동아리를 찾는지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현정 이화여대 11학번)

대학생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박지연, 이하 대불련)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의 대불련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 이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대불련은 4월 5일 전법회관 3층에서 총무원, 포교원, 전법단 및 실무 종무원과 대불련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초청해 '대학생 청년 포교의 길찾기, 미래 50년의 대불련 진단'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주경 스님이 '종단에서 바라보는 대학생 포교 그리고 대불련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노휴 스님이 '조계종 포교원의 전법의 기치와 대학생 포교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주경 스님은 대불련에 대해 "50년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공간·시설 등 안정적 활동기반이 부족하며 종단 지원금과 후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경 스님은 "대불련을 찾는 학생들은 종교적 요구와 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대불련은 활동을 담보하는 조직기반과 종교적 통합을 위한 불교적 가치의 재정립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파라미타를 비롯해 중앙신도회, 청년회 등 많은 신도조직들이 법인화로 사회 변화에 대응해가고 있다. 대불련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법인화를 통한 안정적 조직기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휴 스님은 "연령에 따른 계층신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련(어린이)에서 파라미타(청소년)로, 대학생(군장병)에서 청년(대불청) 등 계층의 연계적 활동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휴 스님은 "대학가주변의 지역·현지사찰을 통해 대학생 포교를, 각 사찰의 주지 스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님이 나서서 포교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홍지연 대불련 지도위원장, 김정현 대불련 간사, 김한일 전 대불련 서울지부장 등이 대불련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한편 대불련은 4월 12일 오후 7시 전법회관에서 현직 지도법사와 지도교수 및 동문들을 초청해 '자신의 활동경험,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불련을 바라보는 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나은 기자

봉은사 42년 불사 족쇄 풀렸다

서울시, 3월 28일 도시공원법 조례 제정

전통사찰임에도 도시공원으로 묶여 종교시설을 신축할 수 없었던 강남 봉은사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됐다.

서울시는 3월 28일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해 '역사공원 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우 공원 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1971년 유신정권 시절 일방적인 도시공원 지정 이후 봉은사는 전통사찰로는 문화재보호법, 도시공원으로는 도시공원법에 의해 건물 증개축이 엄격히 제한됐다.

봉은사가 TFT팀을 구성하고 중장기 중창불사계획을 마련해 설득에 나서 2012년에는 국토해양부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을 이끌어냈다. 시행규칙에서는 역사공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역사관련 시설에 한해 시설을 설치하도록 허가했다. 마지막 관문인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불사가 가능하게 됐다.

4월 4일 열린 42대원 대다라니 기도정진 특별법회에서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법률안 개정안이 통과된데 이어 최근 서울시 조례 개정까지 이어졌다. 다라니 기도를 통해 신도들이 하나된 마음을 모은 결과다"며 경과보고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봉은사가 제시한 중창불사 조감도

진화 스님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의 규제에서 건물 설치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향후 사업이 진행되는 작은 초석을 놓은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봉은사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화 스님은 이어 "불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불사계획을 재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가람불사에 나설 예정"으로 "봉은사가 시민들의 휴식처로, 외국인에게 한국불교를 알리는 도량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3,6일간의 깨달음 금강단식
손에 잡히는 참선
왜 참선인가!
몸과마음. 이대로 두고 달라지는 것이 깨달음이다.
몸과마음. 바꾸지 않고 달라지는 것이 깨달음이다.
완전무결한 본래자신으로 돌아감이 깨달음이다
금강단식 면역성 피부미용아토피 금연금주즉각해결 고혈압 당뇨 성인병 정신 우울증 예방치유 다이어트1일최고3kg 1개월25kg
참선 수련회 6일 4월19금~24 5월 3금~ 8 선회 3일 4월19금~21 5월 3금~ 5
깨달음이란? 머리가 둔하면 둔한대로 머리가 흐리면 흐린대로 깨달아지는 것이다.
단식
단기출가 : 30일, 50일, 100일
행복제작소 제주원명선원중앙선방 활인선원 ☎1644-5266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비봉산
자세한 내용은 www.hwalin.net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옛말 그대로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그 "조왕탱화"
사업장의 조왕신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을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가 더해가는 전통탱화입니다.

조왕탱화 상세안내

1 정의 :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2 유래 :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3 명호 :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4 구성 :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5 한국의 대표적인 조왕탱화 : 양산 통도사 비로암, 충남 계룡산 갑사, 대구 팔공산 선본사, 부산 삼광사, 경남 밀양 표충사
6 필수 :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7 내용 :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초안 (먹물 밑그림)


상호 (전통조왕상호)


문양 (고대문양)

■ 기법 : (1) 출초 – (2) 배접 – (3) 아교포수 – (4) 도채 – (5) 바림 – (6) 문양 – (7) 금니 및 황선 쫓침 – (8) 금박붙이기 – (9) 상호 – (10) 틀 싣기 – (11) 발미(전통기법 그대로!)
■ 금어 : 원장 – 전국 공모전 불교미술분과 심사위원
화원 – 문화재 기술자, 기능자, 전수자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규격 : 가로 61cm × 세로 91.5cm
■ 문의전화 : ☎ 051)332-0045 / 010-9216-0988

성 유 불 화 원 금어 조성철 합장

일 주 문



제1회 통도 연등축제 어울림마당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4월 26~28일 하북면 일대에서 제1회 통도 연등축제 어울림마당을 진행한다.



제8회 강화 게이트볼 대회

강화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은 4월 12일 오전 8시 강화군 길상면 공설운동장에서 제 8회 강화게이트볼 대회를 연다. (032)937-0125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개관식

고운청소년재단 이사장 호성 스님은 4월 11일 오전 10시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



제19회 부처님그림 그리기 대회

박찬수 여주 목아박물관 관장은 4월 25일 목아박물관에서 조계종 봉축위와 함께 제19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지구촌에 피운 우담바라' 전

박대원 KOICA이사장은 4월 9일 성남 지구촌체험관에서 '지구촌에 피운 우담바라' 전을 개최했다.



직장직능전법단 CEO강연회

류병선 승보공양추진위원장(영도벨벳 대표이사)은 4월 11일 직장직능전법단 CEO초청 특별강연회에 강사로 나선다.



부산 대불청 47주년 기념법회

박경수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부장은 4월 14일 오전 10시 해남 대흥사에서 전남·전북지부와 함께 창립 4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법륜 스님 초청 강연회

노희경 정토회 길벗 회장은 4월 8일 여의도사학연금회관에서 법륜 스님 초청 강연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몇가지 질문'을 개최했다.

김태우 前통일연구원 원장, 동국대 석좌교수로



동국대는 김태우 前통일연구원 원장〈62·사진〉을 행정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했다. 김태우 前원장은 미국 뉴욕주립대(SUNY Buffalo)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대외협력실장, 국방현안연구위원장 등을 거쳐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안보통일연구단체연합회 공동대표,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종단 미래 제시할 연구소 되겠다"

종책모임 화엄광장 3일 출범
회장 성직 스님



계파 아닌 종단 발전 모임
사찰경영 등 8개 분과 연구
신진학자·전문가 참여 유도

"화엄광장은 계파를 넘어 종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펼칠 수 있는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 3일 창립한 종책연구모임 화엄광장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성직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종책연구모임으로서의 면모를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 화엄광장은 주요 사업 방향으로 △종단 발전을 위한 종책 개발 및 연구 △종단 운영 및 사회적 트렌드 전략 분석 △사찰 경영 활성화·특성화 방안 연구 및 분석 △사회적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사회와 종교성 연구 및 전략 분석 △불교 관련 각종 사회 의제 연구 및 분석 △국제구호 활동 및 국내 사회활동 전개 등을 추진한다.

성직 스님은 "화엄광장은 사찰경영, 교구발전, 복지, 문화 등 8개 연구분과를 설치하고 다양한 현안을 연구할 것이다. 분과는 추이를 보고 확대할 수 있다"며 "각 분야별로 신진학자와 전문가를 초빙해 격월간 포럼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화엄광장 창립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자문위원인 교구본사주지 17명을 비롯해 지난해 해체를 선언한 종책 모임 화엄·법화회 소속 중앙종회 의원들이 전부 회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종책모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 하지만 성직 스님은 순수한 연구모임임을 재차 강조했다.

스님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줄을 서는 '계파'는 잘못된 것"이라고 전제하며 "의정활동을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뜻 있는 종회의원 스님들이 모여 종책을 논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진 교수나 재가불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본사주지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서 다각적으로 종헌종법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화엄광장을 창립하게 됐다"며 "창립선언문에 밝혔듯이 계파정치를 청산하고 특정계파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종책대안을 제시해 종도들에게 존경받는 화엄광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창립총회에서 화엄광장은 고문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추대했으며, 회장에는 성직 스님을, 종책연구위원장에는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도법 스님 美 해방신학자들과 대화

오는 17~20일 '국제 불교-기독교 컨퍼런스'서 발표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이자 생명평화운동가인 도법 스님〈사진〉이 미국 해방신학자들과의 대화에 나선다.

도법 스님은 오는 4월 17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뉴욕 유니언 신학대학원 주최의 '국제 불교·기독교 컨퍼런스- 깨달음과 해방 ; 참여불교인과 해방신학자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도미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진제 스님과 종교간 대화를 나누어 온 세계적인 종교학자인 폴 니터(Paul F. Knitter)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해 열리며, 도법 스님 외에 법륜 스님, 지정 스님, 정현경 교수 등도 참석한다. 통역에는 뉴햄프셔대 교수 혜민 스님이 맡는다.

스님은 18일 저녁 '나의 불교수행, 화엄세계관과 생명평화운동 - 지금 당장 붓다로 살자, 붓다로 행동하자'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20일까지 진행되는 컨퍼런스 일정 전체의 토론과 의식에 참여한다.

도법 스님은 기조강연과 토론을 통해 "21세기 절체절명의 화두는 '지구촌 생명평화 공동체'이며 종교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비로소 종교가 종교다워진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지구촌 생명평화 공동체'의 사상적 바탕으로 한 〈화엄경〉의 본래부처론과 동체대비론도 신학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법 스님은 25일까지 미국 뉴저지 소재 프린스턴 대학교의 주요 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에 참석하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결사추진본부는 "대안적 불교수행공동체, 종교 실천 커뮤니티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정상영 회장, 동국대에 100억 기부

"종립 동국대 건학이념 펼치는데 써달라"



정상영 KCC명예회장〈사진〉이 동국대 제2건학기금으로 사재 100억원을 쾌척했다.

정상영 회장의 이번 기부는 개인이 낸 기부금으로는 동국대 사상 최대 규모다. 정 회장은 오랜기간 동안 꾸준히 모교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이어온 것으로 유명하다.

정 회장은 1996년 발전기금 5억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1999년 법과대 발전을 위해 3000만원을 기부했으며, 2011년 김희옥 총장이 취임하면서 제2건학운동을 펼치자 20억원을 선뜻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정 회장은 "동문 후배이며 법조계에서 신망이 높았던 김희옥 총장이 취임 3개월만에 2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제2건학기금을 모금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모교가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인다"고 밝히며 많은 동문들이 모교에 대한 기부에 동참해달라는 덕담과 격려를 남긴 바 있다.

정상영 회장은 모교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1년 12월,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학교발전을 위한 거액의 기부뿐만 아니라 후배들을 향한 작은 격려에도 관심을 쏟아왔다. 2011년 12월에는 국가고시 합격생 및 준비생들을 한데 모아 격려와 함께 격려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어 2012년 3월과 12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국가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진출하는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2억원을 기부하며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朴정부 여성 인사 잇달아 예방

조윤선 장관·변영섭 청장, 자승 스님과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4월 4일 예방한 조윤선 장관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자승 스님이 4일 변영섭 문화재청장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여성 인사인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잇달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4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자승 스님은 "이번 맞벌이 부부들에게 '국가가 엄마가 돼주겠다'는 정책 기조를 잘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 부처에서 실천하고자 한다. 종단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달라"고 밝혔다.

같은 날 4일 예방한 변영섭 청장은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폐사지 관리가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이다. 미륵사지와 황룡사지 등에 대해 가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불자로서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김유나 씨, 한국현대미술대전 대상

해남 대흥사 '영산회괘불화' 현대적 해석으로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유나 씨〈사진〉가 제34회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민화·불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유나 씨는 한국현대문화미술협회가 개최하는 제34회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에서 작품 '영산회괘불화'로 민화·불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영산회괘불화'는 18세기 호남지역에서 활동하던 대표적 화승인 색민(色旻) 스님이 으뜸화원을 맡아 조성한 해남 대흥사 영산회괘불화(보물 제1552호)를 모본으로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동국대 불교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유나 씨는 현재 한국불교미술협회와 동국불교미술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상식은 5월 10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삼단법인 대승불교조계종

종 정 예 하 은 파

원로원장 대호 원로부원장 만송. 경월

중앙종회의장 만송 부의장 명현 사무처장 현담

중앙종회의원 만송. 혜암. 화산. 경월. 정암. 법승. 선우. 근파. 명현. 대전. 법광. 한파. 종원. 선산. 정혜. 법공. 법인. 유초. 무애. 연지. 도일. 성각. 인각. 혜원. 만법. 현담.

총무원장 혜암 부 원 장 근파

총무부장 도일 재무부장 묵암 교무부장 성각 규정부장 인각
사회부장 혜원 포교부장 법광 재무국장 득초 규정국장 진공

부산교구종무원장 유초 경남동부교구종무원장 명 현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만 법 중부교구종무원장 정 암

◇ 입종을 환영합니다.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 제184721-0000861호로 등록되어 있는 종단입니다. 유사 종단에 유의하십시오.

◇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비치, 홈페이지 출력가능) 요청시 우편 발송
· 주민등록등본 1부 · 타 종단 승려증 사본 1부 · 사진 1장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사찰 전경사진(내,외부)

◇ 문의 및 접수처 : (사)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2동 423-16번지 301호 전화 051)527-7733, 5431 / 팩스 051)527-5432

부산교구종무원 051)468-6790 휴대폰 010-4133-0333 경남동부종무원 055)291-7263 휴대폰 011-845-2446
경남서부종무원 055)884-1017 휴대폰 010-9099-5859 중부교구종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1-594-2595

해원정사 추모원(납골당) 안내

천하의 명당

예로부터 집터를 잘 골라야 집안이 번성하고, 조상의 묘터를 잘 골라야 후손까지 번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해원정사 추모관은 일자문성 삼봉산을 마주한 자궁혈에 위치하여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춘 명당 중의 명당으로, 자손들은 수명장수하고, 하는 일에는 최고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리적 편의

해원정사 추모관은 광주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유족들이 언제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또한 일조량 좋고 쾌적하며 산세의 푸근함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후대의 번영을 기원함으로써, 가신 분과 보내시는 분 모두가 함께 안락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도량의 복덕

매일 도량에 울려퍼지는 목탁과 염불소리는 돌아가신 영가의 천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유가족에게도 큰 복덕이 되어 돌아오며, 후손들의 삶을 편안하게 합니다.



해 원 정 사 추 모 원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385번지
전화 (062)234-4576, 222-7979 / 인터넷 주소 : www.해원정사.kr



3월 29일 금산사에서 열린 '내비둬 콘서트'에서 신나는 노래에 맞춰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 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해고 노동자들. 함께 노래하고 즐기는 동안 이들의 마음은 봄눈 녹듯 풀려가고 있었다.



새벽예불과 108배 시간에는 그동안의 고생으로 눈물을 쏟아낸 참가자들이 많았다.



지도법사 일감 스님과 김병수 싱어송라이터의 웃음과 잔잔한 감동을 주는 진행이 돋보였다.

"절망과 증오 내려놓고 새 희망을 보았습니다"

조계종 노동위, 노동자 초청 템플스테이 금산사 '내비둬 콘서트' 현장

3월 29~30일, 해고 노동자 40여 명 아픔 나눠
사찰 예불 · 심원암 명상길 걷기 등 진행
행복한 세상 발원, 상담치유 접목 의견 제시도

"오랜 투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너무 피폐해졌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쳐 힘들고 괴로워 잠시나마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좀 쉬고 싶습니다."

"새 봄이 왔지만 우리들 마음은 아직도 춥기만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가 주최하고 금산사(주지 원행)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이 공동주관하는 노동자 초청 템플스테이 '내비둬 콘서트'가 3월 29~30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금산사에서 개최됐다.

템플스테이에는 SJM 지회,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공무원노조, 전북도청 청소노동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전주아산지회노조, 홈리스 활동가 등 해고 노동자와 늘 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며 시대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앞두고 "연기법에 의하면 이들의 아픔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결국 우리 개개인의 아픔으로 까지 번진다"며 "사회 소외계층을 돌보는 불교계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산사에 도착한 노동자들을 맞이한 금산사 수련원장 일감 스님은 "첫째 날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둘째 날은 나를 내려놓는 시간으로 진행할 계획"며 "사찰에서 조용히 스스로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바란다"며 이들을 반겼다.

금산사의 수선화와 벚꽃은 새봄을 맞아 꽃망울을 터트려 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했다.

사업장 마다 차이는 있지만 오랜 시간동안 노동쟁의 현장에서 복직을 위해 투쟁해온 이들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분노와 증오심으로 굳어있었다. 이들은 꽃들이 펼쳐진 금산사를 돌아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특히 미륵전 앞에서 문화유산 해설사가 "미륵부처님은 평등세상을 꿈꾸는 미래의 부처님"이라며 "미륵불을 주불로 하는 도량이 바로 금산사"라고 설명하자 무표정하던 얼굴에 희망의 미소를 띄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모두 불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각자 자신의 발원을 담아 범종을 울린 후 대적광전의 저녁 예불에 참석한 이들은 불심으로 하나가 됐다. 처음에는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해 하던 이들은 이내 칠정례를 따라하며 절집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화림선원에서 열린 금산사의 대표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인 '내비둬 콘서트'는 일감 스님의 진행으로 서울의 한 병원의료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 라이터 김병수 씨의 노래와 경험담이 진행됐다.

19년의 직장생활 중 18년 동안 노조 활동을 했다는 김병수 씨는 시종일관 희망을 노래하며 일감 스님과 함께 애잔한 음악으로 굳어버린 마음을 녹이고 때로는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으로 이들의 마음을 열어나갔다. 특히 부부가 함께 참가한 한 노동자는 9년 동안 복직투쟁을 벌이는 동안 집안 살림살이를 도맡아준 부인에게 감사를 표하며 코믹한 노래를 불러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최근 노사 간의 원만한 해결을 앞두고 있다는 한 참가자는 아직 노사 간의 벽이 남아 있는것 같아 안타깝다며 함께 투쟁해온 동료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만 앞선다고 심경을 밝혔다.

함께 노래하고 웃고 손뼉을 치며 즐기는 동안 이들의 굳어진 마음은 어느덧 봄 눈 녹듯 풀려가고 있었다.

마음을 열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낸 참가자들은 오전 3시 도량석 소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새벽예불에 참석해 참선을 하며 자기를 바라보고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 절을 할 때마다 108개의 염주알을 실에 꿰며 흐트러진 자기 자신을 정리도 했다. 넓은 도량을 비질하며 증오와 분노로 가득찬 마음의 찌꺼기도 함께 쓸어냈다.

SJM지회 이승호 법규부장은 "사찰에서 어제 오늘 시간을 보내면서 동지들과 힘들었던 일을 공유하고, 웃으면서 마음의 분노가 사라졌다. 동료의 배신이 제일 힘들었고 울분이 가득했는데 나를 내려놓고 보니 그들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108배를 마친 전북평등지부 노조 김 모 씨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포기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안에서 숨소리, 심장소리가 들려 집중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복직이 되기를 염원하며 절을 했는데 나중에는 모두 그냥 다 내려놓으니 편안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108배를 하는 도중 쉼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치는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심원암과 연리지까지 새벽 숲길을 걸으며 명상에 잠긴 참가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졌다.

1박 2일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각자 작성한 '행복한 세상을 향한 발원문'을 낭독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며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갔다.

그동안 증오와 분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한 참가자는 "전문적인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짐 정리를 하고 있던 다른 참가자는 "또다시 차별과 무시의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1박 2일의 짧은 시간동안 누군가로부터 존중되어 지고 배려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노사간의 문제는 억압, 차별이 아닌 상생과 화합의 차원에서 접근할 때 해결의 실마리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감 스님은 "해고와 실직이라는 상처를 받고 현실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그 아픔을 바라보는 통찰의 과정 속에서 서로 위로하는 계기가 되고 그 아픔을 비워내는 과정을 통해 희망과 행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오는 6월과 9월, 11월 4차례 노동자 초청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4월 말에는 노동자 심리치유센터의 문을 연다.

전주 금산사=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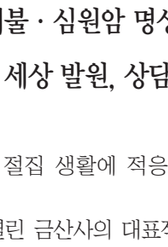
2013년 친환경 초의차 선금 할인 행사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초의차

최고의 품질, 순수한 무공해 친환경 초의차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유기농 초의차는 지난 7년간 방치해서 웃자란 차나무를 밑둥까지 베어내어 갱신을 한 차나무에서 생산한 차입니다.
방치한 동안 자연 유기농 상태가 되어 그대로 관리하여 최상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량만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시기도 조금 늦지만 9년만에 생산하는 무공해차라서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친환경 초의차와 함께 차향 그득히 몸도 마음도 힐링이 되시길 바랍니다.
9년만에 생산하는 첫차라서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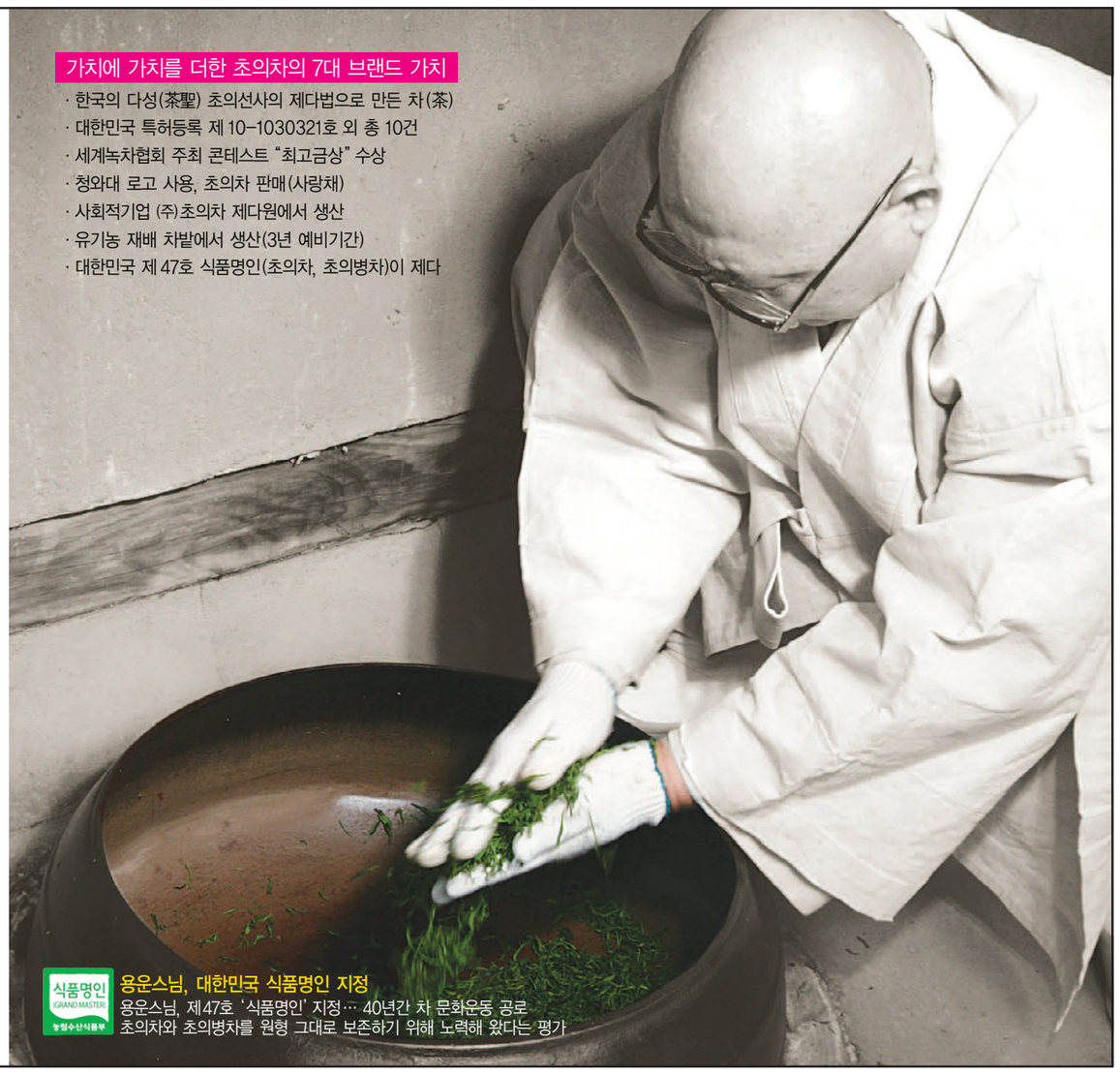
	판매가	할인가	수량(선착순)	선금주문기간	배송기간
첫물차	150,000원	60,000원	300통한정	4월10일 까지	5월10일까지
두물차	100,000원	40,000원	500통한정	4월20일 까지	5월20일까지
세물차	50,000원	20,000원	800통한정	4월30일 까지	5월30일까지



- 주문방식 : 온라인 www.choyeetea.co.kr / ☎ 061)285-0301~2 주문도 가능
  ※10만원 미만 택배비 3,000원 있습니다.
- 계좌번호 : 농협 301-0100-9481-71 / 국민 796201-01-453893 (예금주) 주식회사 초의차



사회적기업 (주)초의차 전남 무안군 삼향읍 초의길 30



국내·외 자원봉사 한국불교 알리기 나서

대불청, 연등회 국제 자원봉사 교육…외국인 30여명 동참


'2013 연등회 국제자원봉사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삼귀의 예를 올리고 있다.

6주간 팀별로 불교문화익혀
25일 청년위한 콘서트개최
"한국불교 이미지 쇄신 기대"

한국을 포함해 미국, 독일, 프랑스, 베트남 등 20개 국가에서 온 60여 젊은이들이 한국불교와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인 연등회를 알리기 위해 한마음이 되는 자리가 열렸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는 4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3 연등회 국제자원봉사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한국불교와 연등회 국제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진명 스님, 자우 스님(비로자나 국제선원) 전준호 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80여 명이 참석했다.

진명 스님은 격려사에서 "연등회는 불교인들만의 축제를 넘어 시민과 어우러져 만드는 한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했으며, 외국인들의 연등회 참여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축제로 인정받고 있다"며 "스스로 참여하는 축제인 연등회를 통해 맑고 밝은 에너지를 느끼고 그 에너지를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준호 회장은 "여러분은 단순히 축제 참가자가 아닌 축제를 준비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손님을 맞이하게 됐다"며 "세계인들이 서로 우의를 다지고 불교를 배우는 좋은 경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등회 내·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연등축제 동영상을 시청하고 서포터즈 진행 일정을소개 받은 뒤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으로 이동해 '만남, 불교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첫날이라 분위기는 서먹했지만 참가자들은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전 세계인들과 교류를 한다는 것에 기대감을 표했다

스웨덴에서 온 페르(27·남)씨는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 연등회를 접하기 까지 저에게 맞는 봉사활동을 찾지 못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방문객을 기쁘게 하는 일 외에도 한국 불교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너무 기대된다. 왜냐하면 스웨덴에서는 아직 불교는 베일에 싸인 신비한 종교라 불교의 핵심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캐나다 출신의 에이미(33·여) 씨는 "한국불교에 관심이 많다. 특히 다른 불교국가보다 비구니 스님의 지위가 높고 많은 기회를 주는 점에 매력을 느낀다"며 "명상과 사찰에서의 생활도 알고 싶어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불청은 '2013 연등회 국제 자원봉사단'을 3월 27일까지 모집하고 내국인 54명과 외국인 49명 지원자 가운데 면접을 통해 각 38명을 선발했다.

지원자들의 지원 동기는 다양하다.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고, 한국불교 및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목적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생활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지원자도 있었다.

이렇게 모집된 76명의 자원봉사자들은 6주간 3그룹으로 나뉘어 △4월 10일 한국불교·연등회 △4월 17일 불교의식과 문화이해 △4월 25일 쓰담쓰담 통통콘서트 △5월 4일 템플스테이 △5월 9일 특강미션 등을 주제로 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5월 11~12일 불교한마당 및 연등축제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이후 6월 1일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봉사활동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우 스님과 하영태 대불청 연수원장, 박상희 봉축준비위원회 팀장이 강사로 나서 한국불교 역사 및 불교문화와 연등회 장엄 등에 대해 강의한다.

한편 대불청은 4월 25일·5월 30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템플스테이문화사업단과 손을 잡고 20대 청년을 위한 '쓰담쓰담 통통 콘서트'를 개최한다. 4월 25일 첫 번째 콘서는 연등회 국제자원봉자들을 위한 공연으로 '이등병의 편지'를 부른 가수 겸 작곡가 김현성씨가 법정 스님의 산문과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를 음악에 담아 들려준다. 5월 30일에는 유명시인들의 시와 문학작품에서 발췌한 '광화문 글판'을 음악으로 선보인다. 특히 이 공연에서는 고은 시인의 명상과 선을 주제로 한 짧은 시와 노래들이 소개된다.

대불청은 "이번 연등회 자원봉사는 젊은 청년들이 주축이 돼 진행됨으로써 점점 침체되고 있는 한국불교 및 전통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며, 한국불교의 활동적이며 경쾌한 이미지로의 전환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내·외국인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열정적이고 재능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해 한국불교 및 연등회의 국제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한국문화 직접 보고 느끼니 원더풀"

파라미타, 한국·홍콩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열어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는 홍콩 학생들(좌). 홍콩 학생들은 1박 2일 동안 파라미타 청소년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문화를 밀접하게 체험했다(우).

"한국 IT기술과 한글의 우수성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3월 28일~4월 1일 홍콩 청소년을 초청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한국학생과 교류하는 '한국·홍콩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을 실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실시된 국제교류활동은 홍콩 HKFYG Lee Shau Kee College 소속 청소년 30명과 교사 3명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청소년들과 함께 한국의 역사문화와 과학기술, 홈스테이 등을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3월 28일 한국에 온 홍콩청소년들은 둘째 날인 29일부터 국립과천과학관, 디지털파빌리온,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명동 등을 탐방했으며, 셋째 날인 30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고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관에서 영상과 슬라이드로 한국문화를 배우고 한복입어보기를 체험했다.

이날 한국문화 알리기는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 산하 단체인 한국의정신과문화알리기회가 맡았다. 홍콩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석굴암, 사리함을 비롯해 한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및 IT산업, 한국의 명절 등을 영상을 통해 배웠다.

이날 행사에서 홍콩 학생들은 세배 체험을 하고 한복을 입고 한식을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황개운(여·16) 양은 "이번 한국 방문이 두 번째다. 한국 아이돌 그룹 '틴탑'을 좋아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한글도 배웠다"며 "이번 체험으로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이 IT강국이라는 것에 놀라게 됐다. 한복도 색깔이 알록달록해 매우 예쁘고 좋았다"고 말했다.

홍콩 교사인 톰 차우(남·27) 씨는 "텔레비전으로만 한국의 문화를 보다 이번에 처음 방문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한국문화는 원더풀(wonderful)했다. 학생들에게도 매우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이어 파라미타는 한국 가정 대면식을 진행했다. 홍콩 학생들은 1박 2일 동안 파라미타 청소년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문화를 밀접하게 체험했다.

홈스테이 체험에 참가한 학부모 정주연(40·면목동) 씨는 "언어 때문에 소통이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홍콩학생에게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심리치유극 '나도 살고 싶었다' 공연

불교상담개발원, 4월 25일 자살예방 세미나

자살을 주제로 한 불교심리치유극과 전통가무악 공연이 선보인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4월 25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살예방세미나와 불교심리치유공연'을 개최한다.

자살예방세미나는 오후 2시 국제회의장에서 '자살예방과 함께하는 불교'를 주제로 열린다. 최훈동 한별정신병원 원장이 '자살과 불교'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박종익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이 '노인자살의 원인과 문제점'을, 이범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가 '노인자살의 불교적 접근'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어 불교심리치유공연은 오후 5시 30분부터 지하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박희석 마음숲심리상담센터 소장의 진행으로 살고 싶었지만 자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치유극으로 표현한 '나도 살고 싶었다'와 자살 영가를 위한 제의식인 '영가에게 편지쓰기'와 '아미타경' 등이 스님들의 집전으로 진행된다. 또한 새로운 탄생의 의미를 담은 전통가무악도 선보인다.

심리치유공연 '나도 살고 싶었다' 관람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장권(3만원)을 구매해야 하며 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02)737-7378

이나은 기자

삼소회, 에티오피아 여성돕기 회향

11일 오후 7시 서울 유스호스텔 '훈훈한 방'서

불교의 비구니, 천주교의 수녀, 원불교의 여성 교무가 참여한 한국 여성 수도자 모임 삼소회가 에티오피아 소녀 여성돕기 감사의 자리를 갖는다.

삼소회는 4월 11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서울 유스호스텔 3층 '훈훈한 방'에서 에티오피아 소녀 여성돕기 마무리 '감사의 밤'을 갖는다고 밝혔다.

삼소회는 지난 2010년부터 '염소 한 마리의 희망'을 주제로 에티오피아 소녀들의 교육과 여성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금활동을 벌여왔다.


여성 성직자들의 모임 삼소회는 4월 11일 '감사의 밤'을 연다.

삼소회는 "UN 재단의 소녀, 여성기금 협력 파트너로 아프리카 여성들의 교육과 조기 결혼 방지, 성매매 금지 등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한 회원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라고 밝혔다. (02)319-1318

이나은 기자

불레협,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모집

4월 16일부터 법회 지도자 아카데미 진행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만)는 만 9세~13세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자기도전포상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안재헌)이 주관하는 행사로 청소년이 자기개발·신체단련·봉사·탐험 활동의 4가지 영역을 일정 기간 동안 참여해 자기 스스로 세운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자기주도성을 키우고 꿈을 찾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다. 참가신청은 4월 18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접수로 받는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개인 도전으로 청소년들에게 자아발견, 성장, 자립, 인내, 스스로에 대한 책임과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고취시키는 균형 잡힌 비경쟁 자발적 활동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불레협은 4월 16일~6월 27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매주 화·목요일 수도권 포교 활성화를 위한 법회 지도자 아카데미를 연다. 불레협은 "법회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교리전달법, 찬불가, 놀이, 프로그램 작성법 등 법회 기획부터 프로그램 지도력까지 이론과 실습에 조화를 두어 재미있고 유익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02)738-7860 이나은 기자

제22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본 재단은 불교문화 부흥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과 예술분야에 공로가 크신 분을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22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공모하오니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시 상 내 용		인원	상 금
학술상	불교와 불교학 발전에 뛰어난 학술연구저서(역주포함)를 출간하신 분 심사대상 : 2012년 7월~2013년 6월까지 최근 1년내 출간된 학술연구저서	2명	각 500만원
예술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 (음악, 미술, 연극, 무용) 2명 각 500만원 예술상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 신 분 (서화 부문 제외) 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 (포교)에 이바지 하신 분 심사대상 : 최근 2년이내의 실적물		

2. 시 상 일
2013년 9월 24일 화요일

3. 후보자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본인신청 또는 추천서(소정양식) 1부
이 력 서(명함판사진 2매) 1부
공적서 및 증빙자료 1부

4. 접수처 및 접수 방법
①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 401호 재단사무국(우 : 137-877)
② 접수 마감 : 2013년 6월 30일
③ 접수 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 E-mail접수 : runner333kr@naver.com

5. 수상자 발표
2013년 8월 중순 / 개별 통지 및 불교계 언론매체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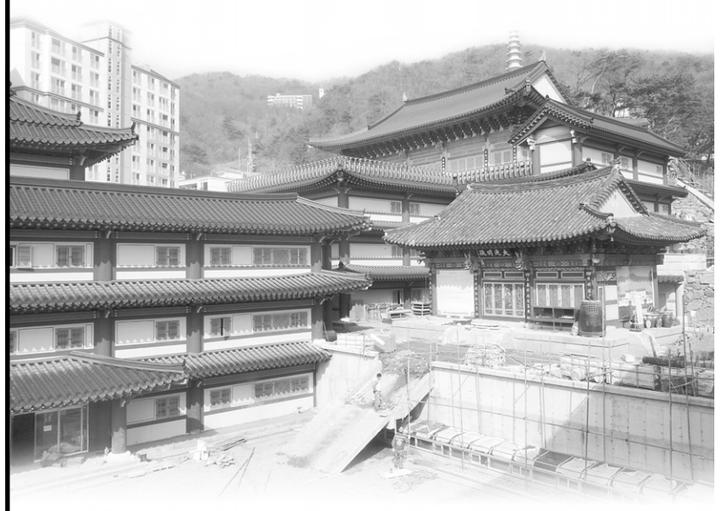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 ☎ 02)586-6521~2, FAX 02)521-994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法人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봉 행

대한불교총화종 총본산 수진사
복지교육문화전승관 및 대웅전 낙성법회

귀의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 호사한 봄날을 맞아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삼보전에 축원드립니다. 대한불교총화종 총본산 수진사에서 대덕큰스님과 내외 귀빈을 모시고 복지문화교육전승관 낙성법회를 봉행합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함께 하시어 법석을 더욱 빛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7년 양력 4월 23일
(음,3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수진사 대웅전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342-1호)

■ 문 의 : 전화 031)591-7710.
☎ 031)591-3364 (종무소) /
팩스 031)591-7121

※ 화환은 정중히 사절하며,
'자비의쌀 나누기' 동참접수 합니다.

※ 만등불사 안내 - 낙성법회 당일까지
도량을 장엄할 만등불사를 접수합니다.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수 진 사 주지 전남정 합장

어르신 집단상담 '마음챙기기' 호응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명상프로그램 진행


서울어르신상담센터는 풍경소리(대표 선묵혜자)와 함께 4월 3~12일 4회에 걸쳐 어르신을 모시고 마음챙김명상을 비롯해 행선과 좌선 및 호흡법을 지도해 어르신이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우울증 환자가 크게 늘면서 여러 복지기관에서는 노인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우울증진단과 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기관 서울어르신상담센터(센터장 청원)가 대인관계와 감정다루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명상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서울어르신상담센터는 풍경소리(대표 선묵혜자)와 함께 4월 3~12일 4회에 걸쳐 어르신을 모시고 마음챙김명상을 비롯해 행선과 좌선 및 호흡법을 지도해 어르신이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첫 모임이 있던 4월 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풍경소리 명상교실에 12명의 어르신들이 모였다.

"긴장감을 풀고 편하게 하세요. 다리가 불편하면 쭉 펴고 앉으셔도 됩니다. 단전까지 코로 길게 호흡하고 천천히 숨을 들이 마시고 내쉽니다. 호흡하면서 늘어났다 줄어드는 배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어르신들은 명상지도사로 나선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총장의 안내에 따라 눈을 지그시 감고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쉰다. 명상을 하다가 궁금한 것이 많은지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명상 중 잡념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리가 아픈데 정말 펴고 해도 되나요?"

이용성 사무총장은 "잡념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대로 된 겁니다. 잘하고 계시네요"라고 답했다.

이날 어르신들은 '명상의 이해'를 주제로 명상과 마음챙김(mindfulness), 명상의 자세, 호흡 연습 등을 배웠다. 첫날이라 많이 배운 것은 없지만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서신원(여 · 66) 씨는 "집에서 가끔 명상을 해봤는데 직접 명상지도사의 안내대로 하니까 호흡법도 제대로 알게 됐고 좋았다"며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찾았는데 내가 원하던 것이다.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철기(남 · 80) 씨는 "마음을 챙긴다는 것이 실제로 해보니까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도 꾸준히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다. 젊은 세대들도 마음챙김명상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음챙기기'는 마음챙김명상을 행선과 좌선의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명상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통찰과 생(生)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우울, 분노 등 부정적 감정 조절과 자아통합감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에서는 매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결과, 집단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인 99%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원 스님은 "명상은 자신에 대한 통찰과 자기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명상집단상담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프로그램의 의의를 밝혔다.

이명희 서울노인복지센터 부관장은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를 통해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 대인 및 또래 등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우울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힐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교사회복지기관으로써 쌓아온 노하우와 접목하여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관장은 "현대사회에서는 유독 다른 세대보다 어르신들이 마음을 둘만한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일상의 활력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용성 사무총장은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명상을 지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연륜이 있어서인지 스스로 감정과 몸 상태에 대해 금방 알아차리시는 것 같다"며 "우리의 마음은 과거 · 미래에 머물러 있고 타인의 판단에 의해 산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어르신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은 4월 5일 '알아차리기'를 주제로 호흡 · 감각알아차리기 연습과 마음으로 마음보기를 수련했으며, 4월 10일에는 '마음과 직면하기'를 주제로 판단하지 않기, 내려놓기, 받아들이기 등을 연습했다. 또한 4월 12일에는 '있는 그대로 보기'를 주제로 '조건 없이 생겨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변한다' 등을 배우게 된다.

이명희 부관장은 현재 '마음챙김명상'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에 대한 문의와 접수가 많아 그 효과성을 좀 더 전문적으로 분석해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2)6911-9554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스님이 나서야 재가불자도 따른다

삼론종, 장기기증희망등록 102명 접수해 전달


일면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왼쪽)과 지민 스님(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오른쪽)이 생명나눔 홍보 제휴협약을 체결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기증 희망자는 8만 778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장기 기증 희망자 18만 4764명의 48% 수준이다.

반면 장기를 이식받으려고 기다리는 환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1만 9243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이식 대기자가 1만 명을 넘어선 이래 2010년 1만 4595명, 2011년 1만 6764명 등으로 늘어나는 등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장기 기증 희망자는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렇듯 장기기증 희망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장기이식 등록기관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 기증 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994년 장기기증희망등록자 모집을 시작한 이래 2012년 한 해 장기기증희망등록자는 3,352명으로 총 인원은 32,81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또한 2012년 1월부터 3월 31일까지 541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는데 비해 2013년 1월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는 611명이 장기기증을 등록해 총 70명이 늘었다"고 말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꾸준히 늘어난 데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사찰, 문화축제, 거리, 대학교, 군부대, 기업체 등지에서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을 한 것도 있지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소속된 종단과 홍보 제유협약을 통해서인 이유도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대한불교 삼론종(총무원장 지민)과 생명나눔 홍보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3월 30일 충북 충주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 · 8대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이 · 취임식'에 이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일면 스님과 지민 스님은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 환자 치료비 지원 · 자살예방 사업 등 생명나눔운동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홍보 제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지민 스님은 사전에 장기기증을 홍보하며 받은 희망등록 신청서와 현장 접수를 포함해 102장을 일면 스님에게 전달했다.

시신 기증 희망등록을 한 지민 스님은 "10여 년전부터 장기기증과 생명나눔에 관심이 있었다. 혼자만 나서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어서 종단차원에서 하게 됐다"며 "스님과 재가불자를 1:1로 만나 장기기증 홍보를 했다. 앞으로 삼론종 소식지를 이용한 홍보와 법회를 통해 교구별로 생명나눔 동참을 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민 스님은 올해 장기기증희망등록을 100명 넘게 추천한 공로로 생명나눔 명예의 전당 1호에 등재된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부터 장기기증희망등록 홍보 활성화를 위해 추천인 제도를 시작했다. 신청시 추천인을 기재해 집계 100명 이상이면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등재해 공로를 알리고 감사패를 수여한다. 감사패는 오는 10월 5일 생명나눔의 날에 수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다양한 직업체험으로 내 꿈 찾아요

조계종 복지재단, 의지나눔 6기 입학식 성료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 '청소년 내 꿈 찾기 의지나눔 6기 입학식'에 참가한 의지나눔 6기 청소년들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꿈을 찾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3월 30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청소년 내 꿈 찾기 의지나눔 6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청소년 내 꿈 찾기 의지나눔은 다양한 직업 및 문화체험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육성과 심성계발에 앞장서 왔다.

이날 입학식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 선정된 의지나눔 6기 청소년들과 프로그램 진행을 돕는 동국대 참사람봉사단 의지나눔 봉사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입학식 1부 행사는 의지나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김보성 실장(재미쌈해피데이연구소)의 웃음치료 및 레크리에이션으로 구성돼, 참가학생과 자원봉사단원이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의지나눔 6기 학생들은 4월부터 한화호텔&리조트에서 활동하는 직업군봉사자들과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환경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직업군과의 만남 및 문화나눔 활동에 함께 참여 할 전문직 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베트남 공무원, 불교 복지시설 방문

레푸옥탄 쾅남성장 "연꽃마을 복지 노하우 배울 것"

베트남 공무원 대표단이 불교계 전문노인요양시설 견학을 위해 방한한다.

국제연꽃마을(회장 각현)은 "베트남 쾅남성 공무원 대표단이 4월 10일 연꽃마을 전문노인요양시설인 파라밀요양원 · 요양병원을 견학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레푸옥탄(57) 쾅남성장을 대표로 쾅남성 부성장 등 23명이 동행해 연꽃마을의 시설현황과 운영을 견학할 예정이다.

레푸옥탄 성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세종학당을 시작으로 현재 쾅남성에 건립중인 한국형 사회복지모델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3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4월 중

◆ 개강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발심은 세상에서 가장 수승한 공덕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

지안 스님 (조계종 고시위원장)

발심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오욕을 버리고 부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안 스님은 발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승한 공덕이라 말한다. 지난 3월 9일 · 16일 동국대 정각원에서는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을 교제로 지안 스님의 법문이 진행됐다. 이 법회에서는 발심의 의미와 수행자의 자세 더 나아가서는 불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지안 스님은 … 1970년 통도사에서 벽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4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 정법사 주지, 조계종 교육원 역경위원장, 조계종 승가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조계종 고시위원장이자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저서와 역서로는 〈왕오천축국전〉〈조계종 표준 금강경 바로 읽기〉〈처음처럼〉〈마음속 부처 찾기〉〈대승기신론강해〉〈금강경 이야기〉〈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 다리는 짧다〉〈연꽃잎 달빛 향해 가슴을 열고〉〈바루 하나로 천가의 밥을 빌며〉 등이 있다.

이번 법회는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으로 공부해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불교의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불교는 중생들이 깨닫도록,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종교입니다. 그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해요.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발심하라는 말은 보리심을 일으키라는 뜻이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내 사랑하는 생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도록 노력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발심을 권장합니다. 발심해야 불교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효 스님 글 역시 발심해서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당신도 깨달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부처의 길을 가라는 뜻이죠. 자 그럼 발심수행장을 읽어볼까요?

부제불제불(夫諸佛諸佛)이 장엄적멸궁(莊嚴寂滅宮)은 어다겁해(於多劫海)에 사욕고행(捨欲苦行)이요 중생중생(衆生衆生)이 윤회화택문(輪廻火宅門)은 어무량세(於無量世)에 탐욕부사(貪慾不捨)니라 무방천당(無防天堂)하되 소왕지자(少往至者)는 삼독번뇌(三毒煩惱)로 위자가재(爲自家財)요 무유악도(無誘惡道)하되 다왕입자(多往入者)는 사사오욕(四蛇五欲)으로 위망심보(爲妄心寶)니라

여기서 깨달음 자체가 부처님을 의미하죠. 적멸궁은 실제의 궁전 보다는 진리의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화택(火宅)은 윤회를 의미하는데요, 화(火)는 곧 번뇌의 불길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불이 꺼져버려야 윤회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열반도 불이 꺼져 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수행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탐진치 비중을 약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함경〉에서는 탐진치 삼독이 사라진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천당에 못가는 것은 삼독 때문입니다. 중생들은 삼독을 자기 자신의 재산으로 삼는 것이죠. 악도에 유혹함이 없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중생들이 오욕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의 전부인양 사니 부처의 길을 못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생을 마치고 나서 악도로만 갑니다. 옛날 스님들은 발심을 권장하면서 사람 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생 업이 좋지 못할 때 인간의 몸을 받지 못하고 축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담 한마디 해볼까요. 숭산 스님이 한 얘기인데요. 숭산 스님이 미국에 있을 때 선센터에 자주 오는 젊은 여자가 있었대요. 스님이 선수련 법회에 나오라고 하니 개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개 데리고 와서 원주실 같은 곳에 두라고 했어요. 그러니 정말 개를 데리고 이 여자가 왔어요. 그런데 수련 이틀째 오빠한테 전화가 왔대요.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개를 돌봐야 되니 오빠가 알아서 하라고 했대요. 개를 너무 좋아하니 그 여인은 죽어 개가 될 거라고 스님이 말했어요. 이 말의 원뜻은 너무 쓸데없는 취미에 빠지면 안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모두가 인간의 허망한 생각일 뿐입니다.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도 망상이죠. 사람이 도를 닦고자 생각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것은 애욕에 매여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청년 중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아 저희 절에 수양을 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스님 되라고 권장하니 사랑을 해보고 싶대요. 죽도록 사랑을 하고 싶다나요? 사실 몸이 아파서 여자친구도 사귀지 못하는 형편이었는데도 사랑에 집착을 하는 거에요.

보리심 일으키면 곧 발심
도 못 닦는 것은 애욕 때문
수행으로 탐진치 소멸시켜야

인수부욕귀산수도(人誰不欲歸山修道)리요마는 이위불진(而爲不進)은 애욕소전(愛欲所纏)이니라 연이부귀 산수수심(然而不歸 山藪修心)이나 수자신력(隨自身力)하야 부사선행(不捨善行)이어다. 자락(自樂)을 능사(能捨)하면 신경여성(信敬如聖)이요 난행(難行)을 능행(能行)하면 존중여불(尊重如佛)이니라

자신의 능력 따라서 선행을 닦아야 합니다. 불교의 삶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시관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내 존재가 내 개인을 위한 존재가 아니죠. 업보에 의해 과보로 태어나는 생이 있는가 하면 과거 원력에 따라 생을 받는 것을 원력생이라고 해요. 일대사 인연을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죠. 어차피 이 세상에 오게 될 큰 인연이 있었던 거죠. 중생들에게 여래의 지견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죠. 자기가 즐겨야 하는 개인적인 즐거움 세속의 욕망 오욕락을 버릴 줄 알면 성인처럼 존경 받습니다.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한다면 부처님과 같이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죠. 이렇게 탐욕에 집착하는 삶을 이야기해주는 설화가 있죠.

한 행인이 벌판을 지나가는데 난데없이 미친 코끼리가 이 사람을 추격하고 있어요. 코끼리를 피하려다 우물 속으로 들어가니 덩쿨 가지가 있으니 여기에 매달렸어요. 아래로는 용이 또아리를 틀고 있고 사문벽에 독사가 네 마리 있어요. 어떻게 해도 속절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또 덩쿨을 보니 흰쥐 검은쥐가 줄기를 갉아 먹고 있네요. 여기에 벌이 집을 짓고 있는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 꿀방울이 입술로 떨어지니 너무 달아요. 꿀맛에 도취되어 자기 처해 있는 상황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코끼리는 무상을, 용은 죽음을, 독사는 우리몸을 뜻하는 지사화풍 사대를, 흰쥐 검은쥐는 밤낮을, 꿀은 오욕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귀영화는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이 다 부질없음을 알고 발심해 수행자가 되는 것이죠. '아뇩다라샴막샴보리심' 은 가장 깨끗해진 상태의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선악도 뛰어넘는 고차원적으로 설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심할 때 그 마음이 가장 순수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정하고 순수해지면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니 순수해지고 청정해집니다.

유지인(有智人)의 소행(所行)은 증미작반(蒸米作飯)이요 무지인(無智人)의 소행(所行)은 증사작반(蒸沙作飯)이니라.공지끽식(共知喫食)하야 이위기장(而慰飢腸)하되 불지학법(不知學法)하야 이개치심(而改癡心)하나니 행지구비(行智具備)는 여거이륜(如車二輪)이요 자리이타(自利利他)는 여조양익(如鳥兩翼)이니라

지혜로운 이는 쌀로 밥을 짓고 어리석은 이는 모래를 삶아 밥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주가 많고 머리가 좋아도 진짜 천재는 도덕적 하자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부패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지능이 높다고 해서 자기 인생 다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 가서 많이 배워 불행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수행은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남한테 보시하는 것을 가장 큰 공덕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있는 걸 다 보시를 해도 발심공덕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무엇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3월 9일 · 16일 동국대 정각원에서는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을 주제로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이 법문했다.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진골 척추교정법 교육 안내문

상담전화 016-560-7868

척추교정 및 인체의 균형(밸런스) 조절교육
외과전문의 및 한의사,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척추교정법!

MBN 천기누설 방송 (2012. 9. 20)에 소장이 직접교육시켰던 외과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출연하여, 척추변형과 오장육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한바 있음. (네이버 "진골척추" 검색 동영상으로 방송을 볼 수 있음) 소장은 2006년부터 한의사 수백여명과 다수의 외과의사들을 상대로 척추교정과 인체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 교육의 전문가임. 진골척추교정법은 카이로프라틱이 아닙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개가 온누리에 충만하시고 사중에 제반 불사가 원만 성취되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소승이 진골척추교정법을 창시하신 임상만 원장님과 인연이 된것은 얼마 안되지만 원장님에 탁월하신 진골척추교정법을 친견하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지 못하였습니다. 암환자, 고질적인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찾아와 척추교정을 받고 편안하고 즐겁게 웃고가는 것이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웠습니다. 손으로 경추, 흉추, 요추, 천추을 보고 만지며 진단하여 교정하는 시간은 3~5분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과장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하여 소승도 허리, 목, 등, 전립선 등이 불편하여 교정을 받았습니다. 편하고 시원하였습니다. 정좌를 해도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감히 제반스님들께 추천합니다. 법체가 불편하신 법우님들과 불자님들께 권하오닌 진골척추 교정법과 인연지어 불사원만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해동사 영도 동인 합장

'재물을 잃는 것은 인생의 일부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듯이 세상만사 인생을 살다가 보면 피치못해 건강이 악화되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못할때가 많은데요, 건강은 인간 최고의 복이요 양식이라고 불릴만큼 중요하기에 어떠한 질병이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소승도 10여년간 항시 등쪽과 오른쪽 허리가 뻐근하고 시큰 거려서 좋다는 운동법은 다해 봤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도반스님이 MBN의 천기누설과 방송을 한번 보라하기에 방송를 보다가 임상만 소장님의 진골척추교정법을 보면서 모든 질병과 만성병은 틀어진 척추와 골반에서 병이 온다는 임소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직접 진골척추교정법 교육을 3회정도 받고 보니 허리와 등짝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몸소 체험한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무수한 질병을 와하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30여년의 노력과 열정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진골척추교정법을 완성시킨 임상만 소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내가족, 진척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들을 완화시킬수 있는 것은 진골척추교정법 밖에 없는는 확신을 하면서 인연이 닿는 모든 분들이 익히고 배워서 고통과 질병없는 아름다운 불국토를 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계룡산에서 도림 합장

백제 사찰, 고대 동아시아 한류 핵심

세계유산 등재 검토 세미나서 고구려 · 신라 · 일본 · 중국과 비교고찰


백제 미륵사는 동진 · 수 · 고구려의 건축기술과 백제의 독창적 미학이 함께 어우러진 당대 건축문화의 백미였다.

백제 사찰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해 세계유산을 등재하기 위한 자리가 열려 눈길을 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은 3월 29일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컨퍼런스룸에서 '백제 사찰과 주변국 사찰과의 비교 연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당시 사찰 건축을 비롯한 불교문화가 주변국과의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뤄졌다.

노기환 미륵사지유물전시관 학예연구사는 첫 발표인 '백제사찰의 특징과 보편적 가치'에서 미륵사지를 예로 들며 "건물과 가람 규모 등이 기하학적인 유기성을 나타내는 미륵사는 동아시아 사찰건축의 완벽성을 보이는 사례"라고 말했다.

노 학예연구사는 이어 "미륵사지 석탑 또한 조형적 특징을 잘 표현한 세계에서 유일한 목탑"이라며 "후대에 한국의 독자적인 석탑 중심 탑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병희 충북대 교수는 '백제사찰과 고구려사찰 비교'에서 "남쪽지방은 일찍부터 동진(東晋)으로부터 불교를 전래받아 1탑 1금당식 가람이 유행했다"며 "6세기 군수리사지와 7세기 미륵사지를 보면 가람배치가 3원식 구성됐는데 이는 수나라 대 사리전래와 불탑 조성을 계기로 새로운 문화적 교류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당시 고구려의 1탑 3금당을 비교해보아도 고구려의 영향 또한 받은 것을 알수 있다"고 말했다.

양정석 수원대 교수는 '백제사찰과 신라사찰의 비교'에서 "5세기 후반 고구려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고 수도를 웅진으로 옮긴 이후 백제와 신라 관계는 긴밀해졌으며 이는 건축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백제건축, 동진·수·고구려 영향받아
독립식 3원 구조 등 독창적 변용 전개
신라 황룡사, 일본 비조사 등 건축전래
불교문화 전파하며 교류협력 활발 진행

양 교수는 "5세기 후반 신라 기와에서 한성 백제기와 모습이 확인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황룡사 건축도 백제 기술이 사용됐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황룡사 창건가람은 3원식 3금당 배치로 이와 유사한 가람배치를 갖는 백제 군수리사 또 미륵사 등을 보아 백제 사찰 건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현숙 원광대 교수는 '백제사찰과 중국사찰의 비교'에서 "백제는 중국으로 불교문화를 수용해 중국과의 유사성이 적지 않지만 단순히 중국문화를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변용해 백제적 특징을 창출했다"고 말했다.

소 교수는 "중국에서 쌍탑, 다탑 가람이 출현함에도 백제에서는 지속적으로 일탑가람이 유지됐다. 중국과 달리 삼원에 각각 탑과 불전을 하나씩 건립한 독립적 구조는 독창적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소 교수는 이어 "백제는 남조 사찰문화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남조사지가 기록만 전할 뿐 전무한 가운데 백제사찰은 역으로 남조의 사찰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조원창 한얼문화유산연구원 조사단장은 '백제사찰과 일본사찰의 비교'를 통해 "588년 일본 비조사에 기술자 집단을 파견한 백제는 적극적으로 외부 문물을 수입해 자체적인 불교문화를 완성했으며 이를 주변국가에 전하면서 대외교섭을 이어갔다"며 "백제 불교사원의 전개는 문화전파를 통한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병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원의 '문화교류상 백제사찰의 위치'와 배병선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장의 '백제사원유적의 보존관리 계획 및 활용'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47년 만에 공개된 석가탑 내부… 사리1과, 장엄구 수습

문화재청, 4월 2일 석가탑 탑신부 해체하며 봉안품 수습

국보 21호인 불국사 석가탑(3층석탑)이 47년 만에 속살을 드러냈다.

석가탑 해체 수리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인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석조문화재보수정비사업단은 4월 2일 현장에서 2층 옥개석(屋蓋石 : 지붕처럼 덮은 돌)을 해체하고 그 아래 몸돌인 탑신(塔身)의 사리를 모시기 위한 공간인 사리공(舍利孔)을 들어냈다.

이 자리에는 변영섭 문화재청장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김상준 경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석가탑의 사리공(가로 · 세로 각각 41㎝, 깊이 19㎝) 노출은 1966년 이후 처음이다.

불국사 삼층석탑은 2012년 9월부터 해체를 시작해 2012년 12월 상륜부(相輪部, 탑 위에 층층이 쌓은 바퀴 모양의 둥근 형태) 해체가 완료된 상태다. 현재 탑신부(塔身部) 해체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날 해체에서는 1966년 해체 수리 완료 때 다시 봉안한 사리장엄구 수습이 진행됐다.

1966년 석탑 해체수리 시에는 사리와 함께 금동제외합(金銅製外盒)과 은제내합(銀製內盒),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물인 '무구

불국사, 내년 3월까지 사리 친견법회
사리장엄구 감식 후 재봉안 여부 결정

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중수문서(重修文書) 등이 발견돼 그 중 28건이 국보 제126호로 지정됐다. 유리제 사리병에는 46과의 사리만 존재했고, 사리가 1과씩 들어있는 은제사리호와 목제사리호가 각각 발견돼 석가탑에서 발견된 사리는 모두 48과다. 은제 사리합에 들어 있던 1과가 이번에 수습됐으며 목제 사리합은 열리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국보로 지정된 사리장엄구 일괄은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에 봉안 중이다.

옥개석이 분리되자 그 아래 탑 몸돌 정중앙에서는 사각형으로 판 사리공이 노출됐고 그 안에서는 사리장엄구가 보자기에 덮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들어낸 사리장엄구는 곧바로 불국사 주지실로 옮겨져 사리를 친견하는 의식이 진행됐다. 사리 친견에는 성타 스님과 변 청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수습된 사리장엄구는 대부분 복제품(複製品)이지만 은제사리호(銀製舍利壺)와 목제사리병(木製舍利甁)은 1966년 수리 당시 재봉안(再奉安)된 유물이다.

수습된 사리는 석탑에 재봉안하기 전까지 불국사 무설전(無說殿)에 보관된다.

불국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무설전에서 '진신사리 친견법회 입재식'을 거행했다. 입재식은 반야심경과 불국사승가대학장 덕민 스님의 축원, 배명선 단장의 경과보고, 헌화,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과 변영섭 문화재청장의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불국사는 2014년 3월 말까지 석가탑 사리친견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사리장엄구는 수습 후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조사를 거쳐 재봉안 여부가 결정된다. 석탑 복원은 2014년 6월 완료된다. 노덕현 기자


조심스럽게 사리공 덮개석을 들어올리는 모습.

학술 · 문화재소식

선리연구원 학술상 우수상에 조준호 박사


조준호 박사


월호 스님


황정일 박사


김광식 박사

'제7회 선리연구원학술상' 우수상에 조준호 박사가 선정됐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4월 1일 제7회 선리연구원학술상 우수상에 조준호 박사(한국외대 남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학술상에 황정일 박사(동국대 강사), 월호 스님, 김광식 박사(동국대 불교학술원)를 각각 선정했다.

우수상의 조준호 박사는 '선과 염불의 관계-염불선의 기원과 전개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 현대 한국불교 주요 수행법 중 하나인 염불선의 기원과 전개를 살피고 위빠사나 등과도 어떤 접점이 있는지 살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7년 처음 시행된 선리연구원 학술상은 선학과 교학 및 불교사를 비롯한 응용불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소장학자를 지원하고, 한국불교와 불교학의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지금까지 21명의 학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매년 2월에 연구계획서를 공모하여 6월초에 시상식과 발표회를 갖는다. 우수상 1명에게 500만원, 학술상 3명에게는 각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禪文化硏究〉에 게재된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술원, 서울대 규장각 소장 불교문헌 조사 나서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현각) ABC(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사업단은 4월 3일 서울대 한국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규장각에 소장된 불교문헌에 대해 체계적 서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동국대 ABC사업단 집성팀에 의해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올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차 조사가 이뤄지며 규장각 소장자료 중 불교문헌과 비불교문헌에 포함된 불교문헌등을 포괄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또, 규장각 홈페이지에 서비스되고 있는 서지사항중 잘못된 사항이나 불교문헌의 유일본(唯一本) 및 선본(善本)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도올 초청 탄허100주년 기념 특별 강연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4월 15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탄허스님의 화엄세계 - 20세기 한국불교의 정맥과 그 고뇌'를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특별강연회에는 도올 김용옥 선생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2층 서예실에서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국의 큰스님 글씨 - 월정사 한암과 탄허' 특별전시회도 열린다.

이밖에 월정사는 5월 3~7일 틱낫한 스님의 '치유 · 행복 · 상생' 명상수행학교를 운영한다. (033)339-6621 노덕현 기자

봉은사 보우학술논문 수상자에 손성필 등 5명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가 주최하는 '보우학술논문' 수상자에 손성필 · 김은영 · 박선영 · 박종수 · 이명호 등 5명이 선정됐다.

조계종 교육원장상에는 손성필 씨의 〈명종대 불교정책과 보우의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봉은사 주지상에는 김은영 씨의 〈허응당 보우의 교육사상 연구〉, 박선영 씨의 〈16세기 불교회화의 부흥에 있어 보우대사의 영향 연구〉, 박종수 씨의 〈조선 전기 종교지형에 대한 보우의 인식〉, 이명호 씨의 〈현대 한국불교의 현실분석과 보우대사의 일정론에 기초한 대안 제시〉가 각각 선정됐다. 최고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해당자를 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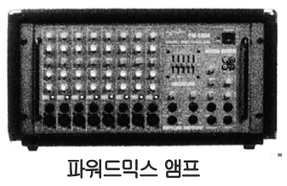
조계종 교육원장상에는 300만 원, 봉은사 주지상에는 200만 원 상금이 주어진다. 선정된 논문은 10월 2일 학술논문 발표회에서 발표된다.

보우학술논문 공모는 한국불교의 중흥조 허응당 보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고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 2월 28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02)3218-4812 노덕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硏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호남 지역 불심 모아 '초파일' 봉축 잔치

호남지역 봉축 일정 확정발표…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불기2557년 호남 지역 봉축일정이 확정됐다.

부처님오신날 전북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 금산사 주지)는 3월 25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보문종, 용화종 등 각 종단 대표와 각 지역 대표사찰, 신행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위원회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세부 행사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이라는 주제로 4월 21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간의 봉축기간동안 전북지역에서 다양한 봉축행사를 봉행할 예정이다.

전북봉축위는 봉축행사가 시작되는 4월 20일, 전주종합경기장 앞에서 전북도지사 등 각급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원탑에 점등하는 것을 시작으로 봉축행사를 진행한다. 이날부터 각 지역 주요도로에는 가로연등이 걸리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선전홍보탑이 세워진다.

5월 1일에는 임실지역으로 이전하는 35사단 세병호에서의 마지막 연등제가 개최된다. 어린이날을 앞둔 5월 4일에는 덕진공원에서 전북어린이 큰 잔치와 전북불교합창제가 열린다. 또 천태종 주관 하에 불교문화 한마당이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

5월 9일에는 덕진공원에서 대학생 채식요리대회와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찰음식 전시회와 체험전이 개최된다. 5월 11일에는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5000여 명이 동참하는 대규모 연등축제가 개최된다. 이밖에 각 지역 군법당과 교도소, 복지시설등에서 자비나눔 봉축프로그램이 진행되며 5월 25일 청소년 모악축제를 마지막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된다.

전북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부처님이 오신 참 뜻을 되새기는 경건하고 여법한 봉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주요도로 가로연등 비치
유동인구 많은 곳 홍보탑
사찰음식, 다문화 체험전 눈길
자비나눔 '모악축제' 로 마무리

전남지역에서는 각 지역별 다양한 다양한 봉축행사와 불교계 잔치가 벌어진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둔 순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범일)는 4월 27~28일 양일간 순천 조례 호수공원에서 '제7회 순천 등축제' 를 개최한다. 또한 4월 20일 순천역 로타리에서 점등탑을 시작으로 봉축행사를 시작해 5월 6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법륜스님 희망세상 만들기', 6월 23일 혜민스님의 '힐링콘서트' 등을 진행한다.

순천 조례 호수공원에서 펼쳐지는 제7회 순천 등축제에는 4월 27일에 유치원, 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어린이 백일장·사생대회가 펼쳐지고, 이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댄스, 노래, 악기 경연대회인 B-POP 축제가 개최된다. 시민들이 산책하는 야간에는 강변에서 불교영화가 상영돼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다.

28일에는 조례 호수공원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행사의 백미인 불교문화예술제가 펼쳐진다. 이날 행사에는 봉축법요식과 함께 점등식, 대동놀이한마당(서울 연등축제 진행팀), 탑돌이, 평화기원 풍등 및 빛풍선 날리기, 불꽃놀이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부대행사로 비빔밥 2013그릇 무차만발공양, 불교문화 경연대회가 행사장에서 열린다.

청자의 고장 강진도 5월 12일 강진아트홀에서 봉축법요식을 갖고 제등행진 등 봉축행사를 개최한다.

강진불교사암연합회장 혜종 스님(용문사 주지)은 "작은 군에서 봉축행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자들의 작은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다"며, "봉축행사가 불교만의 행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봉축 일정표

날 짜	내 용	장 소
4월 20일	전북도 봉축점등식	전주종합경기장
5월 1일	봉축연등제	35사단 세병호
5월 4일	전북어린이 큰잔치, 전북불교합창제	덕진공원
5월 9일	대학생 채식요리대회, 사찰음식전시회	덕진공원
5월 11일	전북 연등축제	전주시청 노송광장
5월 25일	청소년 모악축제	각지역 군법당 및 복지시설
4월 27~28일	제7회 순천등축제	순천 조례 호수공원
4월 20일	순천 봉축점등식	순천역 로타리
5월 6일	법륜스님 희망세상 만들기	순천문화예술회관
5월 12일	강진 봉축법요식	강진 아트홀

광주동구불교협 회장에 만효 스님 취임



단체기를 이양받아 흔들고 있는 신임 회장 만효 스님.

광주동구불교협의회가 창립 9주년을 맞아 제5대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는 3월 30일 광주 남초등학교 강당에서 제5대 회장 만효사 주지 만효 스님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지암 스님(세심정사 주지), 현지 스님(원효사 주지), 호산 스님(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을 비롯한 회원사찰 스님들과 신도 300여명이 동참했다.

취임법회는 법요식에 이어 경과 및 약력보고, 공로·감사패 증정, 이임사, 회기 이양, 취임사, 임원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만효 스님은 취임사에서 "광주지역 중심인 동구불교의 발전과 대중들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대 임원진은 회장 만효 스님과 함께 수석 부회장 연광 스님(증심사), 무등 스님(천룡사), 법성 스님(법연정사), 총무부장 호산 스님(무유사), 재무부장 수연 스님(연화약사사)으로 구성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모래가 흐르는 강' 광주서 인기

불교계 대표적 환경지킴이인 지율 스님의 4대강 다큐멘터리 〈모래가 흐르는 강〉이 3월 28일 전국에서 개봉된 가운데 광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모래가 흐르는 강〉은 '내성천 지킴이' 로 활동 중인 지율 스님이 경북 영주댐 건설에 따른 내성천 변화 과정을 직접 촬영하고 연출한 73분의 영상 기록이다.

광주극장에서 하루 3차례 상영되고 있는 이 영화를 보기 위해 개봉 첫날부터 광주·전남 사찰 스님들을 비롯해 신도와 불자, 시민, 환경단체 회원 등이 몰렸다.

고불총림 백양사 수좌 지선 스님과 주지 진우 스님, 백양사 신도 50여 명도 4월 1일 광주극장을 찾았다.

지선 스님은 관람 후 "70~80년대의 토목산업 위주 가치관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며 "아름다운 국토를 오염시키는 것은 결국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진우 스님도 "영화를 보면서 가슴 한 켠이 아려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인위적으로 자연을 훼손한다면 우리도 훼손된 자연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영화관람에는 지율 스님과 각별한 인연으로 알려진 전 광주 선덕사 주지 행법 스님도 자리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장사, 석전 스님 부도탑 제막

정읍 내장사(주지 지선)는 4월 5일 내장사 부도전에서 '부종수교 화엄종주 석전당 영호대종사 지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조계종 전계사 혜남 스님,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재덕 스님, 재곤 스님, 내소사 주지 진학 스님을 비롯한 석전 스님의 후학 100여명이 동참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부도탑 제막식에서 소감을 말하는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내장사 주지 지선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석전 스님께서 입적하신 내장사에 스님에 대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안타까웠다. 2011년 4월 선운사 운영위원회에서 탑비와 부도를 건립할 것을 결의해 석전 스님의 행적과 자료에 대한 수집을 마치고 부도와 탑비를 건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석전 스님의 입적지인 내장사에 부도 및 탑비가 건립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항상 받들어 열심히 수행정진 하자"고 말했다.

이날 제막된 석전 스님 탑비는 통도사 전계대화상인 혜남 스님이 비문을 지었다.

석전 박한영 스님은 1870년 전북 완주군 초포면 조사리서 출생해 1886년 고성 신계사에서 금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10년 만해 스님 등과 이회광의 매종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임제종을 발기했다. 1919년 이종욱과 함께 인천 만국공원서 개최된 국민대회 불교계 대표로 참석해 한성임시정부 발족에도 참여했다.

1929년 조선불교승려대회서 교정(教正)으로 선임됐으며 1932년 중앙불교전문학교(동국대 전신) 교장으로 선임됐다. 1948년 정읍 내장사서 세수 79세, 법랍 61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륵사,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통체험 진행

나주 미륵사(주지 원일)가 10여 년 동안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4월 6일 미륵사에는 다문화가정 30여 세대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문화체험을 겸한 봄 나들이 행사가 개최됐다.

전남 나주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500여 세대의 결혼 이주여성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언어와 육아, 한국문화습득이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잡은 곳이다.

농어촌 지역은 다문화가정이 전체 가구수에 20~30% 육박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이날 행사에는 광주향교 성균관여성유도회 광주본부에 소속된 전문사범들이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도왔다. 이날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은 한복체험, 전통예절, 행다시연, 떡 만들기 등 체험행사와 문화공연(시조창, 사랑무, 민요)을 함께했다. 특히 한복을 입고 서툰 동작으로 절을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이주여성들의 진지한 모습이 엿보였다.


결혼예복을 입고 전통혼례체험을 한 다문화 가족들의 모습

처음으로 전통결혼식 신부 체험을 한 보킴호잉(21, 캄보디아)는 "한국에 온지 2년이 넘었지만, 가정에서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지는 못했다"며 "절에 오니 개나리 꽃도 너무 아름답고, 전통결혼복장까지 하게 되어 즐거웠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개최한 원일 스님은 "먼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지만 늘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밝은 마음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송광 정심원 전북현대 청소년축구팀과 협약


고 축구부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나누며 건강한 신체와 더불어 마음도 한층 건강하고 성숙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송광정심원과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의 청소년 클럽팀인 전주 영생고와 김제 금산중 축구팀이 3월 24일 자원봉사 협약식을 체결했다.

영생고와 금산중 40명의 축구선수들은 230명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송광정심원 하늘 정원에 나무심기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충성하고 정감있는 정원을 조성했다.

이철근 전북현대 단장은 "선수로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인성과 상생의 나눔활동에 비중을 두고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정심원 우용호 원장은 "금산중과 영생



충담스님 탄신 백주년 소신열반 15주년 기념개원 법회

원불 기초불상

불상은 불교신앙의 상징이며 예배의 대상입니다. 32상 팔십종호의 거룩한 부처님의 존상은 우리 중생들을 저절로 머리를 숙이게 하고 오체투지로서 예경토록 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존상은 깊은 신심으로 기도 정진하고 고도로 숙련된 불모에 의하여 정성껏 조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공장에서 다량으로 찍어내고 외국에서 염가로 수입해오며 심지어 인체에 해로운 납 성분이 포함된 자재로 대량생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뜻한바 있어 본사에서는 한국불교 천칠백년 역사에서 최초로 충담(冲湛)스님께서 불속에서 연꽃을 피우고 (火中生蓮), 육신으로 등공(肉身騰空)하신 호명산 감로사(승가사)도량에서 평생을 현대 미술 조각에 정진하여 오신 비움(空白)의 조각가 노재승(盧載昇 : 성신여대 명예교수 미술대학 학장 역임) 교수님의 크신 신심과 원력에 힘입어, 교수님과 조각가 남상연 님(홍익대 조소과 졸업 춘천 소양강처녀, 유관순 열사 조각)의 지도로 우리의 원불은 내손으로 직접 조성하여 호명산 감로사 도량에 모시는 뜻깊은 불사를(나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달아 무생법인을 증득하리라 눈도허공이요 귀, 코, 입, 뜻 도 허공이요 육근과 육식이 청정하고 안온하리다)

십이광불 아미타불을 칭송염불하며 소신공양(燒身供養)으로 무생법인(無生法認)을 증득하신 **충담대종사 탄신 100주년과 열반 15주년**을 맞이하여 봉행코저 하오니 사부대중 선남선녀께옵서는 동공 발심하여 이 불사가 원만 회향토록 하여 주실껏을 앙망 하옵니다.

불기 2557년 4월 10일

원불(願佛) 내손으로 조성하기 불사 추진위원회
호명산 감로사 승가사 주지 이지성 합장
충담화상문도회 회장 원산 최묵원 합장

증명 : 혜초 대종사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 인곡 대종사 (한국불교태고종 승정) · 인공 대종사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 **개원 법회(특강) 및 조성일시 :**
불기 2557년 4월 18일 음력 3월 9일(목요일) 오전 11시부터
(매월 첫째주 수요일, 셋째주 일요일 오전11시) 삼년간

▣ **장 소 :**
• 호명산 감로사 만화당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산 1-4 감로사
(네비게이션 검색어 감로사)
(7호선 상봉역 : 경춘선전철 청평역에서 하차 감로사 행 차량운행 10시 부터)
• 서울사무소 포교원
–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305(면목동) 승가사

▣ **접수전화 :** 감로사 031)584-0117
승가사 02)2292-3418 / 010-3722-3418

▣ **이 메 일 :** IJK3418@naver.com

▣ **계좌번호 :** 농 협 227038-55-001448 감로사
국민은행 546901-01-031687 승가사
원불은 조성한 분의 이름과 발원을 새기어
호명산 감로사 도량에 영구히 모십니다.

‘길 없는 길’에서 禪의 원류 만나다

수덕사, 4월 16~18일 국제선수행대회 개최


지난해 6월 열린 제1회 국제선수행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가야산길을 걷고 있다.

한국불교의 중흥조 경허 스님의 가르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 법회가 열린다.

덕숭총림 수덕사와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오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수덕사 일원에서 국제선수행대회 ‘길 없는 길’을 개최한다. 이번 법회는 지난해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을 기념해 처음 열린 무차토론법회가 성공적으로 회향한 데 힘입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2차 대회는 만공 스님의 탄생일(음력 3월7일)에 맞춰 입재해 경허, 만공 스님으로 이어지는 선맥의 가치를 되새긴다.

숭산 스님 외국인 제자 등
사부대중 700여 명 참석
선수행 토론 · 음악회도 진행

입재식과 회향식에서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서며, 17일에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초청법사로 법문을 설할 예정이다. 외국인 스님으로는 무상사 국제선원 조실 대봉 스님과 헝가리 원광사 주지 청안 스님이 법석에 오른다.

경허 스님을 선양하기 위한 음악회도 진행된다.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총감독을 맡은 이번 음악회에는 도신 스님과 가수 장사익, 김덕수 사물놀이패, 박애리와 팝핀현준, 래퍼 아웃사이더 등이 무대의 흥을 더 한다.

또한 박범훈 前 수석이 작곡하고 반영규 불교음악 작사가가 작사한 경허 스님 추모곡도 이날 음악회에서 처음 선보여질 예정이다.

경허 스님의 수행 발자취를 따라 걷는 순례도 진행된다. 가야산 백제의 미소길을 출발해 보원사터와 서산마애삼존불, 간월암으로 이어지는 길을 걷는 이번 순례에서는 대봉 스님과 청안 스님의 야단법석도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숭산 스님의 외국인 제자 스님과 일반 재가자 150여 명을 비롯해 총 7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수덕사 총무국장 효성 스님은 “경허 스님에 대해서는 일화와 같은 단편적인 모습만 알려져 왔다. 가르침에 대한 연구성과도 미미한 실정”이라며 “국제선수행대회를 매년 개최해 한국의 선지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나 인터넷(www.sudeoksa.com)으로 신청하면 된다. 스님은 참가비가 무료이고 재가자는 7만원이다. (02)2198-5388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역독거어르신 ‘행복찾기테마여행’

용호복지관 경남산청 봄나들이

부산 용호동 지역 독거어르신 12명이 3월30일 한화호텔&리조트 해운대 티볼리 임직원과 함께 경남 산청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여행은 부산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 한화호텔&리조트 해운대 티볼리(본부장 정용), 부산여성회관(관장 박외숙)의 민 · 관 · 기업의 사회공헌협약에 따른 노후지원프로그램 ‘기분 좋은 이야기’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자신의 고향 산청 지리가 첫 번째 테마 여행지로 선정돼 감회가 남달랐다는 정순심 어르신은 “17살 나이에는 정면의 저 산이 크게만 보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작아진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한화호텔&리조트 해운대 티볼리 관계자는 “행복을 찾는 테마여행을 통해 독거어르신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호복지관 어르신 봄나들이.

박경수 지사장

범어사 4일 불이문 상량식


범어사 불이문 상량식.

선찰대본산 범어사에서는 4월 4일 불이문 상량식이 봉행됐다. 범어사 불이문은 화재로 소실되었던 천왕문을 새로 불사하는 과정에서 위치상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재시공을 진행해 왔다.

새로 복원하는 불이문의 상량문은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이 지었으며, 범어사 강주 용학 스님이 상량문을 봉독했다.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은 “많은 사부대중들의 노력으로 불이문이 다시 그 위용을 갖추게 되어 기쁘다.”며 “아울러 보제루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월20일 완공을 목표로 기와 · 단청불사만을 앞두고 있으며, 천왕문에서 보제루 하부통행로까지 보살계수계산림 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박경수 지사장

이서 중고교 수계 법회


이서 중고 합동 수계법회.

무일 학원이 운영하는 경북 청도의 ’참 좋은 이서 중고등학교‘학생들이 합동 수계법회을 봉행했다. ‘참 좋은 이서 중고등학교’ 불교학생회 보리수 학생회 회원 300여 명은 3월 30일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큰절에서 수계식을 갖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등 5가지 계율을 지키겠다는 수계첩을 지니고 부처님전에 서원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불교대학 회주 우학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교는 우리 민족 문화의 한 부문’이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저마다 부처님의 마음 씨앗을 키워나갈것”을 참석한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보리수 학생회는 수계식을 전후해서 불교예절 불교기초 교리를 배우고 친교시간을 갖는등 사찰에서 알차고 흐뭇한 주말을 보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찰마당에도 전통이 있는데…

절 마당은 본시 비워둔 공간이었다. 법당이 작아서 치르기 어려운 행사나 외부 공간에 적합한 의식은 마당에서 봉행하는 것이 상례였다. 괘불대에 괘불을 걸어놓고 야단법석을 여는 장소가 바로 절 마당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절 마당은 오랜 세월 그 자리에 덮여있던 흙 그대로이거나 흙 위에 마사토를 깔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포장방법이었다. 별로 특별한 기술이나 공법을 동원하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일어나 싸리비로 쓸어놓은 마당을 보면 정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요즘 일부 사찰에서는 장식성이나 기능성을 높이고자 마당에 잔디를 까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잔디를 깔아서 마당을 아름답고 정갈하게 관리하려는 마음이야 높이 살만하지만 잔디를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잔디는 매우 까다로운 식물재료라서 배수가 잘 되지 않거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수분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잡풀들이 침범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좋지 않은 상태를 보이게 된다. 정말 애지중지 관리해야 잔디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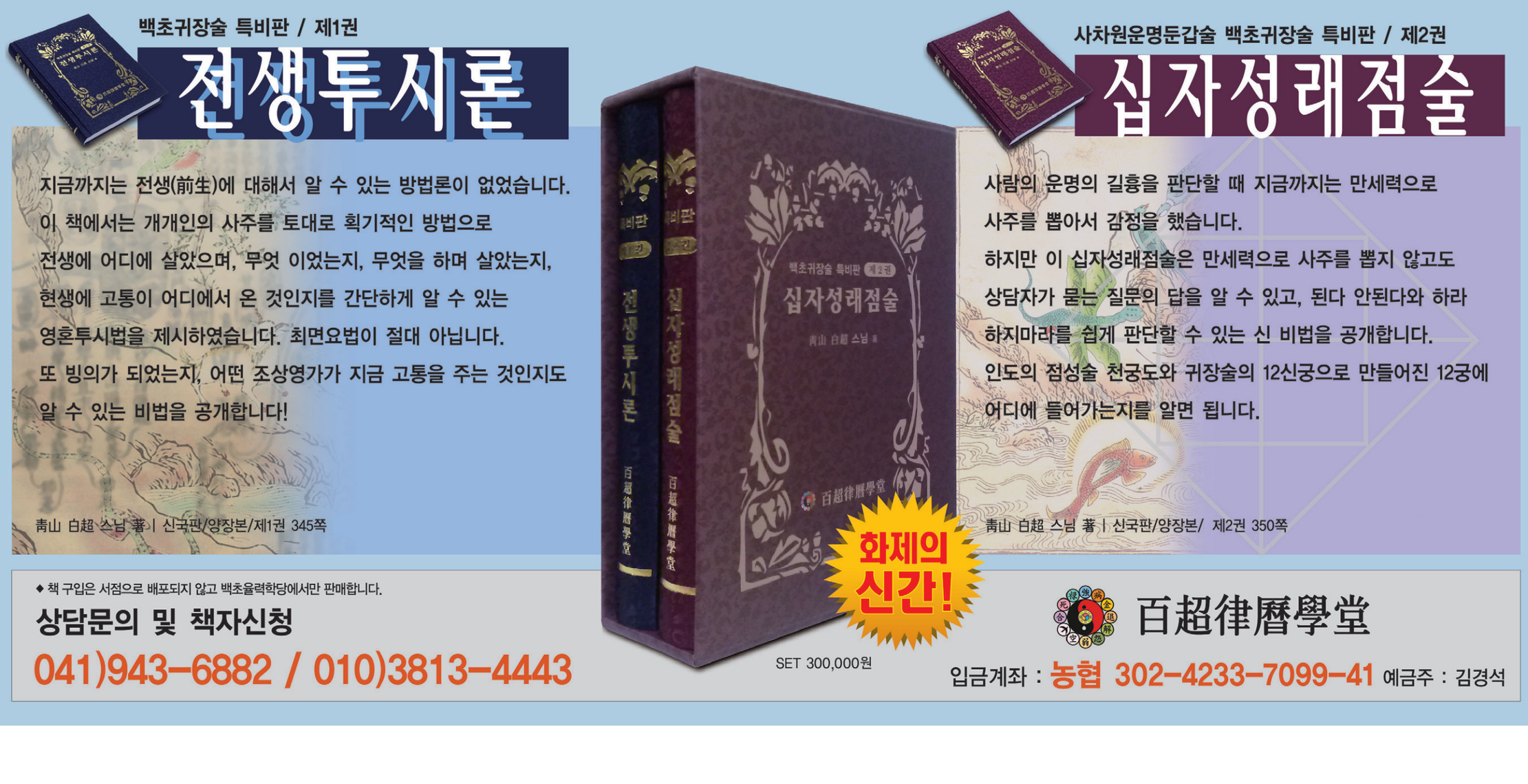
요즘은 잔디를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서 도심의 주택정원이나 도시공원 혹은 골프장이나 축구경기장 같이 잔디가 많이 심어져 있는 곳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준다. 그러나 사찰의 경우에는 잔디의 피목면적이 넓지도 않고 거리도 멀어 전문 잔디관리회사에서 일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고 보니 사찰의 잔디관리는 절에 사는 스님이나 종무원 혹은 불자들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열심히 관리해도 잔디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 난감할 뿐이다.

잔디를 깔아놓은 절에 가보면 잔디 밟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돌이나 벽돌 같은 것을 징검다리처럼 놓아 그것을 밟고 다니도록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맷돌을 재료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잔디관리를 위해서 우리네 사찰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마당경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잔디를 깔고, 잔디에 여러 가지 재료를 도입해서 동선으로 사용하는 것도 사찰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에도 법칙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찰의 경관적 정체성과 형식적 규범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도하는 변화는 이상한 경관만 만들어낼 뿐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절 마당에 깔아놓은 잔디는 관리가 쉽지 않아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충남 ㅆ사찰



동백숲 걷고 나면 8국사 8종사의 법향이…

꽃이 아름다운 사찰 1-강진 백련사(白蓮寺)

"한 송이 붉은 꽃이 눈 오는 밤에 비치니 / 봄소식을 어찌 나뭇가지 보고 알 수 있나 / 꽃다운 맹세 홀로 매화와 맺었으니 / 고고한 그 꽃 보고 적적하다 말을 말라 / 두 가지 동백나무 각자 다른 정 있나니 / 동백 춘백 그 풍도를 누가 능히 평하리오 / 사람들은 모두 봄철 늦게 핀 꽃 좋아하나 / 나는 홀로 눈 속에 핀 동백 너를 좋아하네" - 김성일의 〈학봉일고〉 제2권의 시(詩) 중에서.

꽃은 겨울부터 피었다. '꽃'이라는 것이 대부분 따듯한 봄이 오면 피는 것인데, 그 붉은 꽃은 겨울부터 피었다. 눈 오는 밤 찬바람에 떨었던 꽃들은 봄의 문턱에서 목을 분질러 가지를 떠났다. 흙 위에 떨어져서도 여전히 '꽃'인 그 꽃을 우리는 '동백'이라 부른다. 봄 햇살에 물들기 시작한 남도의 동백숲에 본격적으로 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 동백숲에 깃든 도량 백련사다.

혜장 스님과 다산이 걷던 오솔길

만경루를 지나 도량에 들어서면 탐진강을 비롯한 아홉 물길이 모인 강진만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3천여명의 동백숲(천연기념물 151호)이 있다. 산새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온다. 동박새다. 동백의 꽃가루는 동박새가 옮긴다. 동박새가 동백꽃의 꿀을 좋아한다. 마당을 지나 숲에 이르면 숲은 새소리 반 꽃잎 반으로 요란하고 화려해진다. 숲에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부도 몇 기가 동백나무 사이에 듬성듬성 서있다. 문자하나 남지 않은 부도들이 조사 대신 '무상(無常)'의 진리를 설하고 있다. 동백숲 옆에는 백련사의 야생 차밭이 있다. 차밭을 지나면 작은 오솔길이 하나 시작된다.

"나그네는 요즘 차를 탐식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겸하여 약으로 삼고 있소. 〈중략〉 듣건대 죽은 뒤 고해의 다리 건너는 데 가장 큰 시주는 명산의 고액이 뭉친 차 한 줌 보내주시는 일이라 하오. 목마르게 바라는 이 염원, 부디 물리치지 마시고 베풀어 주소서." 다산이 유배시절 백련사의 혜장 스님(1772-1811)에게 차(茶)를 보내주길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다. 조선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은 1803년(순조 3) 봄 백련사에 갔다가 혜장 스님을 만난다. 다산은 1801년 신유사옥으로 인해 경북 장기로 유배됐다가 황사영 백서사건으로 다시 강진으로 유배된다. 처음에는 강진의 동문 밖 주막집에서 4년간 머물고, 1805년 겨울에 혜장 스님의 주선으로 강진 읍내 고성사 보은산방(寶恩山房)에서, 1806년 가을에는 이학래의 집에 있다가, 1808년 봄에 만덕산 기슭의 초당으로 들어가게 된다. 1818년 해배될 때까지 18년의 귀양살이 가운데 10년을 이 초당에서 보낸다. 백련사에서 약800m의 오솔길이 그 초당으로 가는 길이다. 조선 후기 실학의 정점에 있었던 다산, 그의 위대함은 18년간의 유배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강진의 초당에서 꽃피운다. 그리고 고독한 유배의 시간을 함께 해준 이가 있었으니 혜장 스님이다. 적적한 시간이 오면 다산은 혜장 스님을 만나기 위해 오솔길을 걸었다. 다산과 혜장 스님은 이 길을 통해 백련사와 초당을 오가며 교류했다. 이때 다산은 차와 선(禪)을 알게 된다. 다산초당 입구에는 천일각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강진만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세상밖으로 밀려난 다산은 이곳에서 강진만을 내려다보며 세상을 드나들었다. 강진만에 발자국이 있다면 다산의 것일 것이다.

강진 만덕산 기슭엔 천년 동백숲과 조선의 지식이 걸었던 오솔길, 바라보던 따뜻한 바다, 달라고 떼쓰던 찻잎이 있고, 그 모두를 가진 백련사가 있다. 오솔길을 걷고 강진만을 바라보면서 만덕산 물로 차를 마시고 법당에 들면 8국사와 8종사의 법향이 기다리는 백련사다.

백련사는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만덕산에 있다. 839년(신라 문성왕1) 무염 국사(801~808)가 만덕사로 창건했다. 1211년(고려 희종7년)에 원묘요세 국사(1163~1245)가 옛터에 중창하고 백련결사로 크게 이름 날려 백련사(白蓮社)로 불렸다. 앞서 시작된 송광사 수선사(修禪社)와 쌍벽을 이룬다. 지눌 스님의 수선결사가 정혜쌍수를 수행의 요체로 삼았다면 원묘 국사의 백련결사는 참회하여 죄를 멸하는 참회멸죄(懺悔滅罪)와 정토에 날 것을 바라는 정토구생(淨土求生)에 전념했다. 백련사는 고려 후기 8국사를 배출한 중요한 절이었다. 그러나 고려 말 조선 초에는 남해안에 왜구들의 노략질로 인해 폐사 직전에 이르렀다. 그 후 행호 선사가 효령대군 등의 시주를 받아 1430년부터 불사를 시작하여 1436년에 중수를 마쳤다. 효령대군은 왕위를 세종에게 양보하고 백련사에서 8년 동안 머물렀다. 1621년(광해군 13)부터 1627년(인조 5) 사이에 삼우 스님이 옛 모습을 회복했으며, 효종 때 현오 스님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강진 백련사=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백련결사로 알려진 백련사는 천년 동백숲을 가지고 있다. 겨울부터 피어 봄햇살위에 낙하한 붉은 동백꽃이 도량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다.


만덕산 기슭의 백련사 전경


동백숲에는 문자 하나 남지 않은 부도가 '무상'을 설하고 있다.

주변보기

〈사찰〉

▲**무위사** 강진군 성전면 308

무위사는 신라 진평왕 39년(617)에 원효 스님이 세운 절로 500년 전에 그려진 벽화를 31점이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미술관 같은 절이다. 그 31점의 벽화가 그려진 극락보전 역시 당대의 빼어난 건축미를 지니고 있는 국보(13호) 불전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보물에서 국보(313호)로 승격된 후불 아미타여래삼존벽화와 후불벽화 뒷벽에 그려진 백의관음도(보물 1314호)만이 극락보전에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1956년 극락보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벽화보존각을 세워 그 곳에 봉안했다.

▲**월남사지** 강진군 성전면 월남1길 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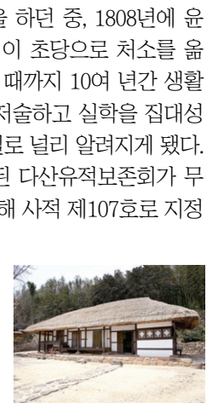
월남사는 월출산 남쪽에 있던 고려시대의 대규모 사찰이다. 고려 진각국사 혜심(1178~1234)이 창건했다. 현재 월남사지에는 백제계 양식의 삼층석탑과 진각국사비가 남아 있다. 주변으로 외곽 담장의 흔적이 보이며 주변 민가에 사찰의 탑재나 건물 기단석으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가볼 만한 곳〉



• **다산초당** /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이 1801년(순조 1) 신유사옥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귀양와 유배생활을 하던 중, 1808년에 윤규로(尹奎魯)의 산정이던 이 초당으로 처소를 옮겨 1818년 귀양에서 풀릴 때까지 10여 년간 생활하면서 〈목민심서〉 등을 저술하고 실학을 집대성함으로써 실학사상의 산실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1958년 지역민으로 구성된 다산유적보존회가 무너진 초당을 복원하여 이 해 사적 제107호로 지정받았다.



• **영랑생가** /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11-1

우리나라의 대표 서정시인이자 항일 민족지사였던 영랑 김윤식 선생(1903~1950)의 생가다.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영랑은 자신의 구두 안창에 독립선언문을 숨겨 넣고 강진에 내려와 독립운동(강진 4.4운동)을 주도하다 6개월 간의 옥고를 치렀다. 영랑은 1934년 〈문학〉지에 불후의 명작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발표했다. 영랑생가는 1986년 전남 지방문화재로 지정됐고, 2007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됐다.

• **강진다원** / 전남 강진군 성전면 백운로 93-25

월남사지 입구에서 월출산 쪽으로 난 샛길을 오르면 월출산 아래로 20만 평의 차밭이 있다. 월출산은 큰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산세가 뛰어나며 예로부터 산 주변의 여러 사찰을 중심으로 차나무가 재배되었다. 일찍이 다산은 월출산에서 나오는 차를 최고의 차로 극찬했다. 월출산 기슭은 해마다 5월 초가 되면 눈이 시리도록 푸른색으로 채색된다. 5월의 강진 다원은 취미로 다도를 즐기는 이들뿐 아니라 일반 나들이객들에게도 관광 명소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윽한 차 향기에 취하며 녹찻잎을 따보는 이색체험을 할 수도 있다.

〈숙박〉

-자연이 좋은 사람들(테마 펜션) 061-433-4445
족구장, 삼림욕장, 수영장 등을 갖춘 테마펜션
-월출산온천관광호텔 061-473-6311
맥반석온천 호텔

〈식당〉

-흥진식당 061-434-3031 한정식
-청자골 종가집 061-433-1100 한정식
-예촌 061-432-9005 소머리국밥



미얀마 불교 이야기

1. 연재를 시작하며

한국불교의 허와 실을 보는 계기되길…

필자가 처음 미얀마 불교를 접하게 된 것은 미얀마가 아니라 인도였다. 1990년도 델리대의 석사과정에서 미얀마로부터 유학 온 두 스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를 통해서이다. 이후 계속해서 여러 미얀마스님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인도 보드가야의 미얀마 절에도 머물러 보고 미얀마 스님들과 여행도 해 보았다.

그러면서 차츰 알게 된 점이 있었다. 다른 나라 스님들에 비해 미얀마 스님들은 자긍심 또는 자부심이 강하다는 점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이러한 자부심이 스스로 지계(持戒) 수준과 경전과 논서에 대한 교학 공부에 대한 긍지에서 비롯됨을 알게 됐다. 같은 상좌부 스님이 모여 사는 인도의 델리대 불교학과나 국제학생 기숙사 그리고 보드가야 성도지에서 만난 미얀마 스님들에게서도 같은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 최근에 미얀마를 찾아 미얀마 현지불교를 체험하면서 미얀마 불교인의 자부심에 더 수긍하게 되었다. 미얀마는 불교국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불교종주국이라는 긍지가 강하다는 이유를 이제는 어느 정도 알 것 같다.



미얀마에서는 700년간 불교가 단절된 인도와 달리 부처님 당시의 불교문화가 그대로 생활 속에 살아있다. 아이들의 출가는 의무화 되다시피 돼있다.

지계와 교학 공부에 스님들 자부심 가져
불교가 삶 깊숙이 문화로 살아 있는 나라
미얀마 최고의 해외수출품은 '위빠사나'

확실히 미얀마는 인도나 다른 나라와 달리 불교가 일반인의 삶 깊숙이 살아 있는 문화로 정착되어 있음을 느낀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의 경우, 불행하게도 13세기 이슬람의 결정적인 불교파괴 이후 약 700년간 이상이나 불교가 단절되었다. 때문에 인도에서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인도불교 문화와 전통이 인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미얀마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는 스리랑카에서도 제대로 느껴 보지 못한 많은 것들이었다. 그래서일까. 미얀마 불교를 찾는 외국인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최근 미얀마 방문 시에 만난 영국출신의 미얀마 전문가인 로버트 테일러 교수는 우스갯소리를 했다.

"미얀마에서 가장 확실한 해외수출품이 있다. 다름 아닌 '위빠사나 수행'이다!"

필자가 미얀마를 처음 찾은 것은 2011년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였다. 총 82일의 여정 중 먼저 7박 8일은 법화정사 성지순례팀을 따라 주요 불교유적지를 답사했으며 이후 약 75일간은 마하시 선원, 빠옥 그리고 쉐오민 등 주요 위빠사나 선원에 머물며 선원 일정을 따랐다.

그리고 다시 1년 뒤인 2012년 12월 인도와 미얀마가 공동 주최한 국제불교세미나에 발표 차 21일을 머물렀다. 이때는 양곤으로부터 6시간 걸리는 미얀마 시골절에서 7박 8일간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마침 인도에서 석사과정을 같이했던 미얀마 스님이 주지로 있는 절과 인연이 닿았다. 그 스님은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미얀마 절에서 오랫동안 포교활동을 하다가 은사스님이 입적하시자 뒤를 잇기 위해 미얀마로 귀국하였다. 필자와는 21년 만에 다시 보게 됐다.



선원에서 탁발한 공양음식을 먹는 미얀마 스님들



인터네셔널 테라바다 상가 유니버시티 교수 오타라 스님과 조준호 교수(사진 왼쪽)

조준호 교수는
동국대 및 인도 델리대 불교학과 석사·박사로 BK(Brain Korea)21 불교사상연구단과 동국대 불교학술원에서 전임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고려대 철학과 연구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다. 불교학연구회 및 한국불교학 이사, 불교평론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우파니샤드 철학과 불교-종교문화적 그리고 사상적 기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실천불교의 이념과 역사〉(공저), 종단본〈부처님의 생애〉(공저), 〈역경학 개론〉(공저) 등이 있다.

'ㅊ기불교 지관 문제' 논문발표 계기
미얀마 선원서 100여일 수행 정진
"양국 불교 비교진단 · 발전 모색을"

필자가 미얀마를 찾은 것은 2011년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였다. 총 82일의 여정 중 먼저 7박 8일은 법화정사 성지순례팀을 따라 주요 불교유적지를 답사했으며 이후 약 75일간은 마하시 선원, 빠옥 그리고 쉐오민 등 주요 위빠사나 선원에 머물며 선원 일정을 따랐다.

그리고 다시 1년 뒤인 2012년 12월 인도와 미얀마가 공동 주최한 국제불교세미나에 발표 차 21일을 머물렀다. 이때는 양곤으로부터 6시간 걸리는 미얀마 시골절에서 7박 8일간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마침 인도에서 석사과정을 같이했던 미얀마 스님이 주지로 있는 절과 인연이 닿았다. 그 스님은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미얀마 절에서 오랫동안 포교활동을 하다가 은사스님이 입적하시자 뒤를 잇기 위해 미얀마로 귀국하였다. 필자와는 21년 만에 다시 보게 됐다.

국내에서 미얀마를 가고자 한 마음이 든 까닭은 앞에서 로버트 테일러 교수가 말했듯이 위빠사나 수행 때문이었다.

1999년 필자가 '초기불교에 있어 지(止)·관(觀)의 문제'라는 논문을 학계에 발표하면서 위빠사나의 중요 행법인 정념(正念 : sati) 개념이 주요 논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념 개념에 대한 논쟁점은 다시 지관(止觀) 차제 문제와 동아시아 전통의 화두선과의 비교적인 문제로 발전하였다.

처음의 쟁론은 주로 미얀마를 내왕했던 연구자들과 시시비비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초기불교의 지관 이해'에 대한 반론과 이론(異論)은 미얀마의 몇몇 선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한국인이 많이 머무는 미얀마 선원을 직접 답사해 보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연구 등의 바쁜 생활에 미얀마를 방문하기란 쉽지 않았다.

고려대에서 진행한 학술진흥재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작심을 하고 미얀마 선원에 입실했다. 선원의 일과표에 따라 충실하게 공부하려 노력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선실(禪室)에서 좌선과 경행을 한 후 아침 공양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과 아침 공양 후 다시 오전 공부 시간 전의 휴식 시간에는 빠짐없이 현장체험의 기록을 남겼다. 이 기록은 다시 점심 공양 전후와 저녁 공부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들기 전 2~30분 가량 재정리를 했다.

처음에는 각 선원의 지도방법과 공부내용 등에 대해서만 기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차츰 그 양이 늘어났다. 한정된 시간 속에 정리하는 손은 마치 자동기술하는 기계처럼 춤을 추었다.

시간이 지나자 선원의 위빠사나 수행에 관한 것뿐 아니라 점차 미얀마 문화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미얀마 선원을 탐방하면서 미얀마 수행자는 물론 수많은 한국 수행자를 만났다. 미얀마 구석구석의 여러 수행처에 많은 한국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 머물고 있는가에 무척 놀랐다.

오래전부터 미얀마를 내왕하면서 공부를 착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한 수행자들 가운데는 처음부터 미얀마 불교를 공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국불교에 실망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미얀마 불교에 심취한 이들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국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문과 실천적인 모든 면에서 깊이 공부하는 숨은 교수들이 많았다. 놀라운 일이었다.

한국을 떠나 밖에서 바라본 한국불교는 전혀 새롭게 다가왔다. 미얀마 불교를 통해 한국불교가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었다. 안에서 잘 안 보이던 것이 다른 나라의 불교와 만나게 될 때 그 동안 전혀 몰랐던 여러 면들이 속속 드러났다. 한국불교와 한국문화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다.

필자는 오랫동안 자만해오던 점이 있음을 느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테라와다 불교권의 스님들과 교류하는 것으로 이미 상좌부불교를 안다고 자부해왔다. 미얀마를 가보지 않아도 미얀마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나름 개인적인 체험으로 '외국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 나라는 가보지 않았다하더라도 교류하는 그 사람을 통해 그 나라를 알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던 것이 막상 미얀마불교 현장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딛으면서 내가 이제껏 생각해왔던 것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음을 차츰 알게 되었다.

많은 점에 있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도 알아갔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미얀마에서 단기 출가를 통해 초기불교와 인도불교를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든다. 옷과 자신의 위치 또는 신분에 따라 세상이 달리 드러난다 한다. 미얀마를 통해 과거의 인도불교 또는 초기불교의 모습을 여행해 보고 싶기도 한다.

앞으로 연재에서는 미얀마에서의 100여 일 동안 머물며 일어났던 일들을, 그리고 느끼고 생각했던 점들을 이야기해 보려한다.

이는 미얀마불교를 통해 한국불교를 보고, 한국불교를 통해 미얀마불교를 보게 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생활불교가 내면화돼 자리잡혀 있는 대표 불교국인 미얀마를 바라보며 반대로 한국불교의 허와 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진단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금강경 10폭 (한정 100작품) 서예
佛자, 달마도, 반야심경 족자
50여년 서예 인생을 회향하면서 인연있는
불자님들께 저렴한 보시금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 금강경 10폭 (병풍 작품용)
크기 40×160 10장 금강경
※고급 케이스 포함,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스님들 불사용으로도 좋습니다.



■ 佛자, 달마도, 반야심경 족자
크기 두종류 : 40×130(小).
40×190(大)
※고급 케이스 포함,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스님들 불사용으로도 좋습니다.

전국 어디든 고급케이스에 넣어 직접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발송하여 드립니다.
書峯書院
대전 중구 오류동 154-4번지 센트리아오피스텔 601호
문의 : 042)534-8248. 010-2426-8975
書峯 박준영 합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신제품 (특허제품)
DWKS-108A
DWKS-108B
DWKS-3000A
DWKS-3000B
DWKS-5000A
연등(등표) 발판사다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고추구 12E 3구
인지구 26E 4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 노랑 · 빨강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여자 대통령 나오고 비구니들이 힘쓸 것”



方山老의 無影樹 〈8〉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진관 스님



진관 스님
진관사 중창, 진관사 주지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등 역임
진관사 회주

늘 새벽 참선…강백이면서 대선사
진관사 주련 · 편액 탄허 스님 선묵
환갑 잔치상 차렸다고 역정
일본 해일 등 예언 실제로 일어나

–탄허 스님은 이곳 진관사에 자주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진관사에 자주 오셨는데, 많이 오신 큰스님은 탄허 스님, 석주 스님, 춘성 스님이에요. 탄허 스님은 여기에 오셔서 화엄경을 교정보신다고 오셨는데, 오시면 한 열흘씩 있다가 가시고 그랬지요. 그럴 때에는 무비 스님, 각성 스님, 명호근, 전창열 같은 사람이 왔다 가고 삼보 스님도 왔다 갔지요.

–탄허 스님은 어느 고승과 친근하셨나요?

월산 스님과 제일 친하고, 관응 스님과 석주 스님하고도 친하게 지내셨어요. 하여튼 큰스님들이 나를 너무 좋아했어요. 나라는 사람을 큰스님들이 다 믿으셔서 진관사에 자주, 많이 오셨어요. 석주 스님과 춘성 스님이 제일 많이 여길 오셨지요. 진관사를 좋아하신 스님은 춘성 스님이셨어요. 한 번은 춘성 스님이 파계사에 계실 때에, 그때는 차도 없던 시절이지요. 택시를 대절해서 화계사 입승 스님하고, 오셔서는 이곳 큰방에 드러누우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날보고, 팥죽을 먹고 싶다고 팥죽을 쑤어 달라고 그러셔요. 그래 내가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라고, 어디 팥죽이 금방 되냐고 하고는 후원에서 바로 팥죽을 쑤어서 드렸지요. 그러니깐 춘성스님이 잘 잡수시고, 좋다고 하시고는 화계사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탄허 스님과 진관 스님은 오대산 스님이었기에 인연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내가 개인적으로 오대산 중이니까 탄허 스님을 잘 모시려고 신경을 썼고, 여러 곳을 모시고 다녔어요. 세검정의 석파정도 가 보았고, 이문동 보문난야에도 갔어요. 내가 스님이 가시는데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용주사, 동국대 대학선원에는 안 가봤어요. 탄허 스님은 이곳 진관사에 자주 오셨지요. 탄허 스님은 오시면 꼭 새벽 두 시에 일어나셔서 참선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탄허 스님을 대강백이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스님은 선사(禪師)예요. 선사라니깐. 난 어떤 스님이 도인(道人)이라고 그래도 도인인지 아닌지 그런 거 몰라요. 자기가 도인이 돼야 도인을 알아보지, 그렇지 않으면 도인을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느 정도 도가 깊어서, 그 사람의 도를 내가 알아봐야, 알아볼 정도가 되어야 아! 저 스님의 도를 알고, 저 스님을 도인으로 알아보지요. 그냥 말만 갖고 도인으로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지요. 어쨌든 탄허 스님은 대선사(大禪師)예요.

–이곳 진관사에 걸려 있는 주련은 대부분 탄허 스님의 글씨가 맞지요?

이 절의 주련과 편액은 탄허 스님이 다 쓰신 것이지요. 내가 탄허 스님에게 “스님 주련 좀 써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님은 “주련 글씨를 뭐에다 쓰려고” 그러셔요. 그래 내가 “스님 글 솜씨 두었다가 뭘 하실랴고 그래요”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써 주신 것이에요. 여기 동정각(動靜閣)의 글씨도 탄허 스님이 쓰신 것이지요.

–진관 스님은 탄허 스님의 유묵을 갖고 계시지요?

스님이 대원암에 계실 적에, 내가 스님께 “글을 써 주시면 글을 걸어 놓으려고 하니 하나 써주세요” 하였어요. 그랬더니 스님은 “진관사가 네 절이냐, 토끼도 세 구멍을 판다고 하니 너도 어디다가 절을 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글을 써 달라고 말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스님이 글씨를 써서, 병풍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더라구요. 신도 중에 권보살이라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으면 나이 구십이 될 터인데, 돌아가고 지금은 없어요. 권무지랭이라고 그랬는데, 이 보살과 내가 탄허 스님이 계신 학하리에 같이 갔는데, 그 보살에게 ‘판치생모’와 어머니 49재 법문에 대한 것을 써준 적이 있어요.

–진관 스님은 탄허 스님과 고락을 같이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기억나는 것은 노장님이 환갑날 서울에서 월정사로 내려갈 때에 내가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스님은 내려가시면서 말도 못하게 막 화를 내시고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이왕 차린 것을 걷어치울 수도 없으니 그냥 내려가셔서 절 세 번을 받고 가시지,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어요. 월정사를 갔더니 큰 방에 탁자 하나에 상을 차려 놓았어요, 많이 차리지도 않았어요. 상좌들이 절을 받으시라 그러는데, 그래도 탄허 스님은 막 험한 말을 하시면서 역정을 내셨어요.

–최근에 일본 해일이 일어나자, 탄허 스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탄허 스님이 일본이 물에 잠긴다는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스님을 보고 강사, 법사라고 하지만 스님은 지금 현재 일을 맞췄다고 볼 수 있어요. 시국의 일을 미리 맞춘 것이지요. 예전에 스님하고 선우휘 씨라고 조선일보에 있던 분하고 대담을 하시고 나서, 그 내용이 어떤 잡지에 났어요. 그래 내가 그 잡지를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이 여기 계셨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그러셔요. 내가 “왜 그러시냐”고 하니깐, 탄허 스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정진을 하는데 소나무가 뚝 꺾이는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때 육여사 동생이 바자회를 하는데 떡이나 보내 달라고 그래서 함지박에 담아 놓았는데, 그 다음날 새벽 다섯 시에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 만들어 놓은 떡을 어떻게 하냐고 하니깐 “그냥 보내 주세요” 해서 떡을 보내 주었던 적이 있어요. 스님이 하신 말씀은 무척 많아요. 일본이 물바다가 된다고 하셨고, 빙하가 녹아서 삼한사온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하시고, 앞으로는 여(女) 장관이 난다, 3일 장관도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스님에게 “무슨 3일 장관이 있어요” 그랬지요. 그러니깐 스님은 “두고 보면 알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주양자라는 보사부장관이 1주일을 하고 그만두었잖아요. 또 여자들이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오뉴월 삼복더위에 남자들은 목을 조르고 다니지만 여자들은 벌거벗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남자들은 넥타이를 매고 다니고, 요즘 여자들이 거의 벗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깐 스님의 말이 꼭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오대산 스님들에게 “진관이 데리고 가서 월정사 주지시키고, 비구들은 방구석에서 밥을 얻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앞으로는 비구니들이 힘을 쓴다고 그러셨어요.

–탄허 스님의 미래 예측은 주역원리, 역학에 의한 것으로 당시에도 큰 파장을 주었지요?

탄허 스님은 우리나라는 평화통일은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북한의 변동을 말하시면서, 애들이 성냥곽 갖고 놀면서 불장난을 하다가 성냥곽 안에 있는 성냥에 불이 번져서 확 타버리듯한 그런 증세는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또 이북에 나이 젊은 사람이 무슨 장(長)이 돼서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천안까지는 조금 위험하고, 천안 아래로는 괜찮다는 말도 하셨어요. 또 삼보 같은 스님이 언젠가는 스님에게 차를 사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니까 “아니 두고 보라구” 그러셔요. 그랬더니 삼보 스님이 월남에를 갔다오더니만 스님에게 새 차도 아닌 헌차를 사 드렸어요. 그때 탄허 스님은 “차가 없는 것보다는 안 났냐”고 나에게 그러시더라구요.

–탄허 스님은 법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스님과 연고 있었던 재가자들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전창열이 한 게 아니냐고 그러지만, 전창열은 그 사태를 잘 무마하려고 하였어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지요. 법난은 여러 명의 군법사들이 투서를 해 갖고 일어난 거예요. 그때 노태우씨가 보안사령관을 할 적인데, 처음에 군인들이 돈이 없으니 일을 벌려 놓고 나서 절을 털었는데, 나온 게 있나요. 그때 낙산사 최원철 스님이 맞아서 죽었어요, 원철 스님의 영결식에 내가 갔었지요. 그리고 그때에 제일 당한 스님은 행원 스님의 상좌인 보문사의 정수 스님이에요.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지요. 혜성 스님도 당하고, 그때는 큰스님들도 다 갔다 왔지요. 월산 스님, 서옹 스님, 월하 스님도 갔다 왔어요. 전창열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지요.



진관사를 찾은 탄허 스님과 대중들.(앞줄 중앙이 탄허 스님, 앞줄 오른쪽 끝이 진관 스님)

–탄허 스님은 당신 스스로 오래 사신다고 하였지만, 71세에 입적하였지요?

운모를 잡수시고 잘못됐어요. 처음에는 여기 계실 때에 스님이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잡아 놓았다고 입원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탄허 스님이 입원은 무슨 입원이냐고 하시면서 안 가셨어요. 그 무렵에 어떤 한의사가 날보고 쓤바귀를 캐서, 그것을 찧으면 하얀 즙이 나오는데 그것을 아픈 부위에 바르면 진통을 없애줄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해 드렸죠. 그 이후에 한양대병원에 계시다가 오대산으로 들어가셔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가셨지요.

–병원에는 가 보셨어요?

내가 한양대병원에 가 보니, 탄허 스님이 월산 스님과 전화를 하시더라구요. 탄허 스님이 월산 스님에게 같이 가시자고 그래요. 그러니깐 월산 스님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 놓으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것을 지켜봤지요.

–오대산 월정사에서 있었던 영결식에는 가셨지요?

그럼요. 탄허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나, 명우스님, 자민 스님 셋이서 같이 갔어요. 그때에 왕십리에 살던 보살이 있었는데, 오대산을 외호한다는 적멸보궁 봉찬회에 다니던 보살이에요. 그 보살이 탄허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수의를 하라고 삼베값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삼베를 꿰매서 수의를 만들어 보살하고 같이 갔지요.

–스님은 수덕사에서도 수행을 하셨는데 오대산 문중과 수덕사 문중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수덕사가 선풍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한암 스님 같은 청정, 계정혜 삼학을 갖춘 분은 없었어요. 어쨌거나 나는 만공스님은 친견 못 했어요. 그러나 수덕사 스님들 중에서 벽초 · 용음 · 지산 스님은 만났지요. 나는 그중에서 벽초 스님을 높이 치지요. 벽초 스님은 농사지으면서 선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 그래 선농일치를 하신 분이에요. 그 스님은 굉장한 분이에요. 나는 그 스님을 존경해요. 보통 스님들은 그리 못해요. 내가 견성암에 있을 적에 논에 나가 모를 심는데, 비구니들이 거머리에 물릴까봐 다리에 갓바를 치고서 논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일꾼들이 모를 평생 심어 봤어도 갓바를 치고 모를 심는 것은 처음 본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 비구니들이 수덕사 밖에 있는 초막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논 관리를 해주었어요. 모도 심어 주고, 밥도 해주면서. 탑골승방 일조 스님의 상좌인 인창이라고 있었는데, 이 스님은 모 심는 것이 싫어서 남방으로 내려가서는 다시는 북방으로 오지를 않더라구요. 하여간에 누가 뭐래도 벽초 스님 같은 분도 없어요.

–왜 큰스님들이 안 나올까요?

지금은 솔직히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이 흔해서 옛날 스님들이 하시던 것이 다 우습지요. 우리 때에는 사과 하나를 여덟 쪽으로 나누어서 먹었고, 아침에는 조죽을 끓여 먹었는데 그것도 얼굴이 훤히 비추는 죽이었어요. 그런 죽에 간장, 김치만이 상에 올라왔지요. 김도 딱 4분의 1로 잘라서 넉 장을 만들어 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나는 새 양말이 들어오면 떨어질까 봐 미리 양말 안에다가 광목을 대고 누볐어요. 밑이 떨어질까 봐 새것을 그렇게 해서 신었지요. 그때에는 화장지가 있었나, 갈잎으로 쓰고 그랬지요. 혜각 스님이라고 단청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휴지를 갖다가 코를 닦고서는 그것을 말렸다가 또 닦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선방 수좌들이 요와 이불을 갖고서 자는 법이 없었어요. 그냥 방석으로 배만 덮고 잤어요.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의 장 석무염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사무총장 석초오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dwbk.net

부 산 제 2 총 무 원
총무원 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 2총무원 혜광사

대원불교조계종 종립교육원 행자모집 중
종 무 소 051)893-3346
학 장(直) 010-3564-6604 현우 법오
부산 진구 당감1동 232-3 현우정사(백양대로 50-1호)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경계가 텅 비면 마음이 없어진다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14〉



범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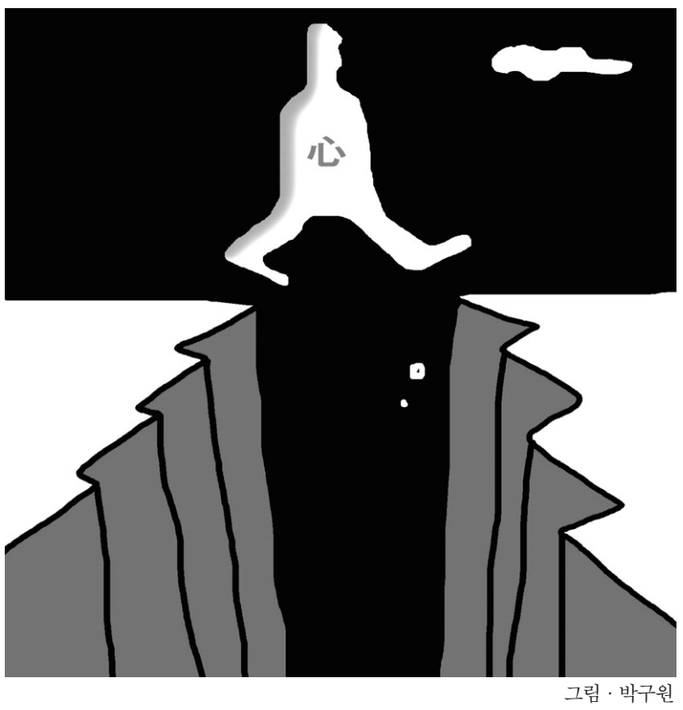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이것은 마치 허공에 수없이 진귀한 보배가 장엄될지라도, 마침내 유지될 수 없는 것과 같다. 불성도 허공과 같아서 비록 무량한 공덕과 지혜로써 장엄된다 하더라도, 끝내 머무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본성에 미혹하여 더더욱 보지 못할 뿐이다.

본래 청정한 부처에게 한 물건도 덧붙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마치 아무리 귀한 보배구슬일지라도 허공에는 머무르게 할 수가 없는 것과 같다. 보배구슬에 한눈팔면, 허공 같은 본성을 못 보고 더 미혹될 뿐이다.

이른바 심지법문(心地法門)이란 만법이 이 마음에 의지하여 건립된다는 말이다.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있고,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정한 성품 위에 경계에 대한 알음알이를 짓지 말라. 소위 정혜(定慧)의 비추는 작용이 역력하다는 '적적성성(寂寂惺惺)'이나 '견문각지(見聞覺知)' 등의 말은 모두 경계 위에서 알음알이를 짓는 것이다. 임시로 중 · 하근기의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몸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견해를 지어서는 안 된다.

심지법문이란 마음이 만법의 근원이라는 뜻에서, 만물이 대지에서 생성되듯 만법이 마음자리에서 생겨남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마음자리는 본래 청정하므로, 새삼 경계에 대한 알음알이를 붙일 필요가 없다.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적적성성'이니 '견문각지'니 하는 쓸데없는 견해나 지으면서 공부에 장애되는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두 경계에 얽매인 것이다. 법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있다는 생각에 떨어진 것이다. 일체 법에 대해서 있다거나 없다는 견해를 짓지만 않으면, 곧 법을 보는 것이다.

진실 된 법이란 모양이 없는 것이어서, 있다거나 없다는 견해에 속하지 않는다. 이 양변의 견해만 여의면, 곧 법이 드러난다.

마음을 잊어버림

9월 1일 황벽선사께서 배휴에게 말씀하셨다.

달마스님께서 중국에 오신 이후로, 오로지 '한 마음[一心]'만을 말씀하셨고 '한 법[一法]'만을 전하셨다. 또한 부처에서 부처로 전하실 뿐 다른 부처를 말씀하지 않으셨다. 법에서 법으로 전하시고 다른 법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법이란 설명될 수 없는 법이며 부처란 취할 수 없는 부처로서, 곧 본원청정심(本源淸淨心)이다. 오직 이 하나만이 사실이고, 나머지는 진실이 아니다.

오직 한 마음, 한 법, 한 부처만이 진실 될 뿐인데, 그것은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이다. 나머지는 참됨이 될 수가 없다. 역대 불조께서 전등해온 법이란 오직 한 마음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있고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다
'있다 · 없다' 양변을 여의면
곧 법이 드러난다

중생은 인연따라
무명을 두텁게 한다
'적적성성' '견문각지'는
하근기 위한 비유 설법

'일어나고 사라짐' 관찰하는
관법이 공부인줄 알고
거기에 머물면
대승에 눈뜨기 어렵다

반야는 지혜라는 뜻으로서, 이 지혜란 곧 무상(無相)의 본심이다. 범부는 도(道)에 나아가지 않고, 단지 육정(六情)만을 함부로 하여 육도(六道)를 떠돈다.

근원을 살펴볼 수 있는 힘을 반야라고 한다. 깨닫지 못한 중생은 안 · 이 · 비 · 설 · 신 · 의(眼耳鼻舌身意)로 흘러나오는 인연따라 견문각지(見聞覺知) 하며 무명을 두텁게 한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 생사를 헤아리면 곧 마구니의 길에 떨어지고, 한 생각 여러 견해를 일으키면 곧바로 외도에 떨어진다. 또한 생(生)이 있음을 보고 멸(滅)하려고 하면 성문도(聲聞道)에 떨어지고, 생이 있음은 보지 않고 오로지 멸만 보려고 하면 연각도(緣覺道)에 떨어진다.

한 생각 출몰하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면, 성문에 떨어지는 것이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라고 하니까, 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무르기 쉽다. 그것은 성문에 떨어지는 것이다. 관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머무르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다. 수식관, 자비관, 부정관과 같은 것들이 모두 참다운 공부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어서, 이에 머무르면 대승의 눈을 뜨기에는 역부족이다.

법은 본시 생하지도 않고 또한 지금 멸하지도 않는다. 이 두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아야 한다.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한 마음인데, 이것이 불승(佛乘)을 이루는 것이다. 범부는 모두 경계를 쫓아 마음을 내므로, 좋고 싫음이 생긴다. 만일 경계가 없기를 바란다면 그 마음을 잊어야 하고, 마음을 잊으면 경계가 텅 비며, 경계가 비면 곧 마음이 없어진다.

〈원각경〉 '보안보살장'에 이런 말이 나온다. "환(幻)인 몸이 멸하면 환인 마음도 멸하고, 마음이 멸하면 경계도 멸하고, 경계가 멸하면 환의 멸도 멸하고, 환의 멸도 멸하니 환이 아닌 마음은 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말에 나가떨어져, "이 마음이 바로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어서, 또 다른 마음을 가져다 쓸 것이 없다."는 식으로 분별하면, 연각승에 머물러 조그마한 깨달음은 얻을지언정 보살 이상의 큰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잘 살펴야 한다.

만약 마음을 잊지 않고 경계만을 없애려 한다면, 경계는 없어지지 않고 어지러움만 늘어날 뿐이다. 고로 만법은 오직 마음일 뿐이며, 그 마음조차도 얻을 수 없거늘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일체 만법이 다 마음으로 인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음을 떠나서 만들어진 것이란 있을 수 없다. 홀연히 축착합착(築著?著)계합될 때, 얻고 못 얻고 할 것이 본래 없음을 눈 열 것이다. 하지만 깨달았다 하더라도 확실하지 않거나 경계에 집착해서 한 번 더 느껴보려고 든다면, 모두 다 공부에 방해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방해도 일단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방해 받든 말든 상관없는 불퇴전의 입장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모두 내려놓고 시간을 보내야 한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⑥④



스스로 계행을 잘 지키더라도 잘 못 지키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유마경〉

〈주홍글자〉의 경우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으로부터 건너간 청교도들이 건설한 나라이다. 청교도들의 꿈은 이 지상에 낙원을 건설하는 일이었다. 영국에서는 실패한 혁명이지만, 이 황무지에서는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었으니 말이다.

꿈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혁명의 열기에 들뜬 사람들은 역사를 새롭게 하지만 자칫 그 꿈에 속박되는 경우도 많다.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역시 그러했다. 어느덧 그들의 꿈이 갖는 정당성에만 집착하게 된다. 그들은 역사로부터 배웠어야 했다. 꿈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폭력이 얼굴을 내밀고 만다는 것을.

이러한 모순을 직시한 사람이 작가 너새니얼 호손이고, 그런 이야기가 〈주홍글자(The Scarlet Letter)〉이다. 한 여인(헤스터 프린)이 청교도 목사와의 사이에 불륜을 범했고, 아이를 낳게 된다. 그래서 가슴에 간음(Adultery)의 약자 'A'를 가슴에 달고 있다. 그 목걸이는 이제 목걸이가 아니라 형틀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 초기역사의 청교도 공동체에서는 그들 스스로의 "청정함"을 지켜가는 일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율을 지키지 못한 여인을 단죄하고, 저주하고, 낙인(烙印)을 찍어야 했을까? 혹시라도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스스로의 도덕적 청정성을 담보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일까? 참으로 그들 공동체가 청정했다면, 성적인 문제 외에서도 청정함을 보여주어야 했을 것이다.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이 오히려 그를 소외시키고 배제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빠져있는 모순을 지적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헤스터 프린은 그러한 일을 행해간다.

원효 스님의 경우

〈주홍글자〉에서 헤스터 프린이 그러했던 것처럼, 원효 스님 역시 그랬다. 원효는 계를 잃고, 아들 설총을 낳았다. 그렇다고 해서, 원효 스님이 가정을 꾸려서 생활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속복을 갈아입고, 스스로 '소성(小姓)거사'라 칭하고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민중들에게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권진(勸進, 권유)했던 것뿐이었다. 원효스님은 여전히 '개인'으로 살아갔을 것이다.

그런 원효 스님에게, 기성 불교교단은 많은 비판과 비난을 퍼부었을 것이다. 계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효 스님 스스로도 아무런 말이 없다. 그 스스로 '소성거사'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코 '나는 파계승이 아니다. 나의 행위는 무애행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진리 앞에서 겸허한 분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원효 스님 역시, 마치 헤스터 프린이 그랬던 것처럼,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보인 문제점을 모르지는 않았다. 허물이 있다고 비판되는 사람이, 오히려 비판하는 자를 다시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그림 · 박구원

원효 스님 역시 그 일을 행한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허물'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 그러한 대립적 사고를 벗어나야 비로소 진정한 불법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었다. 그런 작업을, 원효스님은 깊이깊이 행해 간다. 그 결과물이 바로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라는 책이다. 이 계율서(戒律書)는 오직 하나, 즉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계율만을 다루고 있다. 그만큼 중요시한 것이다.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계율은, 바로 이 〈유마경〉의 말씀과도 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 〈유마경〉에 대한 주석이나 강의를 시도했던 스님은,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원효 스님과 만해 스님뿐인 것같다. 어느 스님이 〈유마경〉 강의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나는 아직 들어보지 못하였다. 내 과문 탓이었으면 좋겠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봉 행

고승대덕 초청 보살품계 수계의식 및 영산 대법회

(사)한국불교조견종(照見宗) 창종 기념 한마음 전국 노래자랑

▶ 불기2557(2013)년 4월 28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조견종 대본산 선화사 ◀

고승대덕 보살품수 수계의식

7증사 증명 법주 큰스님으로부터 보살 품수를 수계받은 자야말로
진정한 불자로 거듭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불자로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인연이 있어야 한다. 무늬만 불자이고 절에만 가면 무조건 불자라고
생각 하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날 비로소 거듭 새롭게 불자로 태어나는 것이다.

- 부처님의 계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이길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준다.
- 부처님의 계율을 받은 사람은 고독과 외로움을 불성으로 승화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 부처님의 계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시련과 고통이 닥쳐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 특전 - 자신의 수행을 큰스님으로 부터 점검받고 보살 법계를 품수 수계함.
(의식 후 고가의 소원성취 기념품 전원 증정)

※ 당일 혼잡하오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소리 한마음 전국노래자랑

스트레스 우울증 화병 100%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100세 수명장수 심리힐링 인연의 장!!!

☞ 당신도 음성공양으로 전법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상 내역 : 최우수상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우 수 상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인 기 상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참가자 전원 고가의 소원성취 기념품 증정

❀ 찬조출연가수 : 가인, 소정 외 다수 / (사)한국불교조견종 문화예술전속무용단 MC / 한국연예인협회 부회장 안종남

❀ 응시자격 : 음악을 통해 예술적, 예능적 소양과 소질을 개발하고 삶의 진실을 찾아 진리를 배우고 익히며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

❀ 특전 : 소질과 성량이 뛰어난 자는 우선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이수 후 조견종 전법가수로 활동
방송음원 제작 및 행정적 재정적 후원함.

- 신청접수기간 : 2013년 4월 1일부터 28일 당일접수까지
- 신청접수전화 : (예약) 010-3365-9185 / 010-9228-0622
경기 파주시 파주읍 향양 2리 214-4번지 (사)한국불교조견종 대본산 선화사

신청인	성별	나이	주 소	신청곡 및 가수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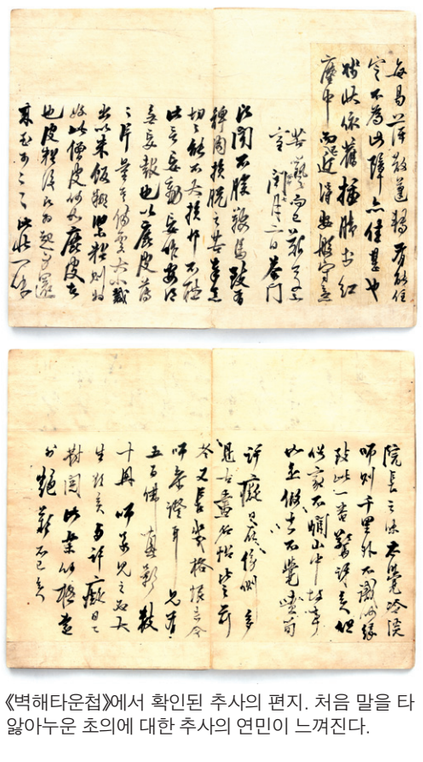
● 주 최 : (사)한국불교조견종 총무원 ● 후 원 :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종교세계신문사

오시는 길 (버스) : 703번 (서울역,구파발) / 33번 (김포공항,일산) / 14번, 12번 (문산버스터미널)
017번 (마을버스 문산버스터미널 앞) : 오전 7시 5분, 10시 5분, 12시 5분. (금촌 주내 - 절도착, 절출발) : 2시 20분, 4시 20분, 6시 20분.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말안장에 다친 초의에게 처방을

꿈에도 그리던 벗, 추사를 찾아 제주로 향했던 초의는 당시 제주목사였던 이원조(李源祚 1792~1872)의 도움으로 잠시 관아에 머문 듯하다. 초의가 말을 탈 수 있었던 것은 제주 목사의 배려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난생처음 말을 탔을 초의였으니 말안장에 볼깃살이 헤지는 상처를 입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사정을 익히 알았던 추사였기에 초의에게 말 타는 요령을 알려주었겠지만 너른 대지를 가르며 달리는 호연한 기상, 아마도 그는 추사의 충고를 잊었던 것은 아닐까. 1843년 7월 2일에 쓴 추사의 편지에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벽해타운첩》에서 확인된 추사의 편지. 처음 말을 타 앓아누운 초의에 대한 추사의 연민이 느껴진다.

말안장에 볼깃살이 벗겨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니 가여움이 절절합니다. 크게 다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내 말을 듣지 않고 경거망동을 하셨으니 어찌 함부로 행동한 것에 대한 업보가 없겠습니까. 사슴 가죽을 아주 얇게 떠서 (이것을) 상처의 크기에 따라 잘라 밥풀을 짓이겨 붙이면 좋아질 것입니다. 이는 중의 살가죽이 어떻게 사슴 가죽과 같겠는가. 사슴 가죽을 붙인 후에는 곧바로 일어나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찌는 더위가 괴로울 뿐입니다. 겨우 적습니다. 그럼. 1843년 윤7월2일 다문

원장의 태도가 너무 냉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대는 천리 밖에서 무슨 인연으로 여기까지 와서 한바탕 놀라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속객이 산중의 옛일에 익숙하질 않아 이와 같이 되어 버린 것이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허 소치는 매일 제 곁에서 많은 고화명첩을 보더니 지난 해 겨울과 비교하면 또 얼마나 격조가 높아졌는지 그대와 함께 참증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오백나한진영첩 수 십 책을 보고 있는데 만약 그대가 보면 분명 크게 욕심낼 겁니다. 허 소치와 함께 날마다 펴보는 이 즐거움을 어찌 다 하겠습니까. 먼 곳에서 부러운 탄식을 그칠 수 없을 겁니다.

即聞不勝鞍馬致有髀肉損脫之苦 奉念切切 能不大損耶 不聽此言 妄動妄作 安得無妄報也 以鹿皮薄薄片 量其傷處大小裁出 以米飯糊緊粘則爲好此僧皮何如鹿皮者也 皮粘後 即爲起身還來至可至可 此狀一味苦熱而已 艱草不宣 癸卯閏七月二日 茶門

院長之味太覺冷淡 師則千里外 不識何緣致此一番驚訝矣 但俗客不嫺山中故事 如是做去 不覺噴笑 許痴日在傍側 多見古畵名帖 比之前冬 又長幾格 恨未令師參證耳 見有五百佛眞影數十册 師若見之 必大生欲矣 與許痴日日對閱此樂何極 遠外艷歎不已

《완당전집》〈여초의〉 18신에 수록된 이 편지는 《벽해타운첩》이 발굴된 후에야 그 연대가 밝혀진 것인데, 이는 초의가 표기 둔 간지(干支) 때문이다. 한편 말안장에 볼깃살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했던 초의는 일어나지도 못했던가보다. 추사가 "사슴 가죽을 아주 얇게 떠서 (이것을) 상처의 크기에 따라 잘라 밥풀을 짓이겨 붙이면 좋아질 것"라는 긴급 처방을 내려준 것.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거망동한 초의, 그의 아픔은 경거망동에 대한 업보라는 추사의 말은 초의에 대한 연민을 그리 표현한 듯하다. 한편 추사와 허 소치의 제주 일상은 "매일 제 곁에서 많은 고화명첩을 보며" 화삼매(畵三昧)에 몰두했으니 소치의 그림이 "지난 해 겨울과 비교하면 또 얼마나 격조가 높아졌는지 그대와 함께 참증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란다. 더구나 오백나한진영첩 수 십 권을 참구했으니 제주시절 불교에 심취한 추사의 일상을 눈으로 보는 듯하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大) (小)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나의 시대적 고민은 불교의 사회적 실천"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우리는 선우 이사장)

1984년 해군 한 함대의 작전 상황실. 곧 있으면 전역할 한 장교가 상황실에 걸린 세계지도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메르카도르 도법으로 제작된 세계지도의 중심에는 태평양과 인도가 있었다. 냉전시대 당시 인도는 제3세계 의장국이었다. 장교는 불현 듯 호기심이 들었다. "어느 체재에도 들어가지 않다니, 인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인도에 가야봐야겠다."

전역한 장교는 인도철학 전공으로 동국대 대학원에 진학했다. 인도에 대한 호기심은 곧 불교학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었고 그는 이를 평생의 업으로 삼았다.

호기심으로 시작해 불교학자가 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열정적이며, 논쟁적이고, 사회에 날선 비판을 가하는 지식인. 바로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우리는 선우 이사장)이다.

사실 불교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중 '조 · 성 · 택' 이라는 이름 석자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2002년 한국에 돌아와 고려대 철학과 교수를 맡은 조 교수는 불교학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펼치며 단숨에 한국 불교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인도불교, 안목을 바꾸다

하지만 처음부터 조 교수가 학문의 길에 뜻을 둔 것은 아니다. 부산으로 유학해 불교 종립 해동중학교에 진학한 조 교수는 처음으로 교육으로서의 불교를 배웠다. 부처님 전생담인 〈자타카〉를 알아갔고 삼귀의와 사홍서원 등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당시 철학 중 동양철학은 공부하지 않겠다고 조 교수는 마음을 먹었다. 직업으로 교수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대학도 고려대 영문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재미가 없었다. 전공 공부보다는 인문 · 사회 서적을 파고들었다.

1984년 7월에 제대한 조 교수는 그해 9월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전공 석사과정으로 입학한다. 거기서 조 교수는 이기영 박사를 만났다. 이기영 박사는 불교 공부를 할 것을 권했고, 조 교수는 이에 응했다. 학문적 도반인 안성두 서울대 교수와 김성철 동국대 교수를 만난 것도 이 무렵이다. 당시 이들은 한국불교를 넘어서는 초기불교를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한계를 느낀 조 교수는 미국 유학을 결심했다.

UC버클리대학교에 진학한 조 교수는 인도 초기 대승불교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 교수는 인도 초기 대승불교를 공부하면서 불교사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고 당시를 술회했다.

"인도 초기 대승불교를 공부하면서 놀란 점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문 경전의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인도의 대승 경전들은 거의 사라졌고,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후대로 가면서 쓰여진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도 초기 대승 경전을 한역(漢譯)한 경전들은 남아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연구하니 불교사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지식인

박사 학위를 마친 조 교수는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 교수에 임용된다. 그곳에서도 그는 2000여 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한 강의평가에서 1위로 뽑힐 정도로 탁월함을 보였다. 하지만 조 교수는 무언가 한 가지가 결여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조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군대에서 휴가를 나갔는데 귀대하지 못한 기분' 이었다.

"미국과 유럽 교수들은 성향 자체가 다릅니다. 유럽 교수들은 지식인으로서 대중의 기대가 있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교수들은 전공분야에 대한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합니다.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불교학을 선택한 이유는 불교를 통해 사회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의 외국인 교수 생활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죠. 모교인 고려대에서 교수직을 제안했을 때 많이 흔들렸습니다."

2002년 한국으로 온 조 교수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학단장,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부원장을 맡으며 인문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자로 부상했다.

다양한 연구 성과… 상상력의 궤적

학자로서의 그의 궤적을 보면 단순히 불교 철학만을 전공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연구의 층위와 폭이 다양하고 넓기 때문이다. 실제 그는 불교 수행의 최종 목표는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초기불교의 연기론은 생태문제에 있어 직접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08년 인문한국 강연에서는 붓다를 찾아서 늘 울고 다니는 상제보살을 통해 대승불교의 기원이 '무불시대 붓다 찾기' 에 있다고 논찬했다. 또한 2011년에는 친일과 항일 이분법 속의 민족불교를 넘어서야 한다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해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도 했다.

이 같은 연구 성과들은 조 교수의 불교학이 단순한 텍스트의 이해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철저한 1차 텍스트의 이해를 토대로 역사, 사회, 문학, 철학 등 인문학 전반을 통섭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조 교수의 이 같은 원동력은 독서에서 나온다. 그는 전공 도서를 제외하고도 매월 평균 2~3권을 가지고 다니며 읽는다. 집중적으로 읽는 인접학문 도서는 따로 있다. 인터뷰 당시 가방에는 시집 한 권과 한병철의 〈피로사회〉가 들어 있었다.

초기불교, 대승, 민족불교 비판 등
전공을 넘나드는 학계의 '팔방미인'
'인문학으로 불교 읽기' 집필 계획

올해 1월 우리는 선우 이사장 취임
20, 30대 희망운동 '청년붓다' 추진

불교는 갈등의 중재자 역할 해야
"불교적인 종교 간 소통 연구할 것"

인접학문 교수와의 교류도 조 교수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민족문화연구원 부원장 시절 '근대' 를 주제로 매주 월요일 80명의 학자들과 세미나를 가졌다. 다양한 학문들이 바라보는 근대의 풍경 속에 불교는 없었고, 그는 근대의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2011년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을 받고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논문이다.

"불교학은 종합적 학문입니다. 불교 안에는 철학, 사상사, 문헌비평, 미술사 등이 총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불교학은 종합적 인문학으로서 사유돼야 합니다. 평소의 독서량을 늘린다면 현대 산업사회가 어떻게 이뤄져 있고, 그로 인한 문제는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를 세상의 거름이 될 수 있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학자이고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의 자세, 불교의 역할

지식인이 가져야 할 제1덕목을 '실천' 으로 꼽는 만큼 조 교수의 날선 비판은 사회와 불교계 전방위로 이뤄져 왔다. 불교계의 황우석 옹호는 불교계의 콤플렉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부터 깨달음 지상주의와 그에 따른 신비화에 대한 비판, 이명박 정부가 용산 참사와 촛불집회에 대한 민의를 헤아리기 보다는 정략에 사로잡혀 있다는 시국 선언 동참 등은 조 교수가 말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모습들이었다. 그가 보는 불국토는 소수자가 배려 받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조 교수가 강조하는 불교의 역할도 별반 다르지 않다. 21세기 대안 문명으로서의 불교, 노사 · 세대 · 남



2006년 불상에 절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이찬수 강남대 교수 복직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성택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



2008년 인문한국 강좌에서 조성택 교수가 '대승불교의 기원이 무불시대의 붓다 찾기' 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성택 교수는 … 1957년 부산에서 태어난 조성택 교수는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했으며, U.C 버클리에서 인도 초기 대승불교의 성립에 관한 연구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학 비교종교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2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계간 〈불교평론〉 주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인문학 단장,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철학회 편집이사와 우리는 선우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2004년 불이상(학술 부문), 2011년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을 수상했다.

북 등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역할…. 결국 '불교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불교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욕망을 인정하고 이를 달성함으로서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욕망과 성장의 피로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또한 압축적 성장을 한 한국사회는 분야별 갈등이 매우 첨예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불교는 대안문명으로, 갈등의 중재자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단순 · 소박한 스님의 삶이며, 사상적으로는 '화쟁'입니다. 특히 개시개비(皆是皆非)의 화쟁사상은 시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젊고 생기있는 불교를 위해

최근 조 교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 중이다. 바로 불교운동가로서의 삶이다. 조 교수는 올해 1월 재가불교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는 선우'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는 '우리는 선우'를 통해 '젊은 불교'를 지향하고자 한다. 그래서 추진하려는 것이 '청년붓다' 운동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하신 때가 35살이었고 당시 제자들도 대부분 20~30대 였습니다. 젊고 발랄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불교는 개혁적 종교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것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는 에너지가 충만한 젊은 종교입니다. 한국불교는 너무 무겁고 엄숙하죠. 이제 젊고 생기있는 불교를 만들자는 게 '청년붓다' 운동의 취지입니다."

조 교수가 말하는 '청년붓다' 운동은 20~30대 포교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불교를 가르치고 이를 통해 계몽하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 불교의 역할론적 성격이 강하다.

"현재 20~30대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명은 기성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들을 위해 '기성세대가, 불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불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좋은 마음과 남을 위하겠다는 생각이 곧 불교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불교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훌륭함'이라는 가치를 복원시키는 것도 '청년붓다' 운동이 가지는 목표 중 하나다. 한국 사회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뛰어남'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덕담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런 덕담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타인보다 뛰어난 사람이 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는 '훌륭함'의 가치를 잊었습니다. 이를 복원시키는 것은 불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종교간 소통과 인문학으로서 불교

조 교수가 가진 '학문을 통한 사회적 실천'의 고민은 이제 인문학으로서의 불교와 종교간 소통으로 넘어가 있다. 올해 말까지 통념적 불교에서 벗어난 새로운 불교상을 제시하기 위한 대중서적의 집필을 준비중이다. 또한 7월 여름방학을 이용해 방미해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미 일정 중에는 세계적인 비교종교학자인 다이아나 L. 엑크 하버드대 교수와의 만남도 잡혀 있다.

"불교학은 인문학적 레벨로 올라가야하고 통섭해야 합니다. 인문학을 통한 불교 읽기를 통해서 다양한 시각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최근 관심사입니다. 또한 종교평화선언이 좌절된 것은 불교적 다원주의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종교적인 나라 미국의 다원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한국사회에 맞는 다원주의를 찾는 것은 학자이자 불자로서의 제 역할입니다."

인터뷰 말미, 그에게 물었다. "불교는 무엇이냐"고. 망설임 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 단순한 믿음마저도 수행으로 승화시킨 불교는 나날이 나아지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날마다 새로워져라.(日新又日新)'는 세상을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주고 있는 조성택 교수가 한국 사회와 불교에 던지는 메시지일 것이다.

글=신중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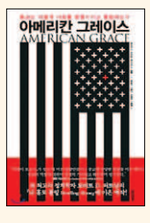
■ 불자와 새학기 대학생에게 조성택 교수가 권한 책들



투게더

리처드 세넷 저/ 김병화 역/ 현암사

이 책은 '협력'이라는 키워드로 기초적인 인간의 공존 양식을 그리고 있다. 르네상스 이후 종교개혁으로부터 산업자본주의를 거쳐 당대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진화를 설명하며, 현대는 경쟁 시대가 아니라 협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주장한다.



아메리칸 그레이스

로버트 D. 퍼트넘, 데이비드 E. 캠벨 저
정태식, 안병진, 정종현 역/ 페이퍼로드

이 책은 미국의 종교와 공공 생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미국이 어떻게 종교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종교가 어떻게 사회를 분열시키고 통합시키는가에 대한 거시적인 통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전법일기

"절 장학금을 꿈에 투자 하겠어요"

어린이들이 쓴 편지

편지가 왔다. 선생님이 직접 가져온 커다란 봉투에는 예쁜 분홍색 종이를 오리고 풀로 붙여 만든 편지봉투도 있고, 올록볼록한 입체 캐릭터 스티커를 붙여 멋을 낸 것도 있다.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가지 색연필로 무지개를 그리고 그 속에 글씨를 써넣은 편지, 인쇄된 밑그림에 색색의 형광펜으로 장식한 예쁜 편지도 수줍게 얼굴을 내민다.

조심스레 가위로 봉투를 잘라 편지를 꺼낸다. 정성이 담뿍 담긴 편지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삐뚤빼뚤 연필로 꾹꾹 눌러서 쓴 편지는 무려 쉰 장이 넘는다.

처음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은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기뻐다고 한다. 5학년 시은이는 "나는 친구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장난꾸러기 회장이다. 그런 내게 장학금이라니! 장학증서를 받으면서 너무 놀랐다. 보성선원에서 잘못 보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이름을 보았는데 내 이름이 또렷이 쓰여 있었다. 말로만 들어보던 장학금이라는 것을 받아본 나는 사실 어리둥절하였다"라는 글로 나를 웃게 만든다.

장학금은 아이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한다. "평소 실천을 잘 안 하고 규칙을 잘못 지키는데 이렇게 큰돈을 받고 나서 자신의 생활태도를 살펴보았다"고 6학년 채연이는 반성의 글을 남긴다.

6학년 유진이는 어른스럽게 부모의 인사를 먼저 전하고는 "저번 장학금으로 학용품과 책을 샀다"며 작년에 받은 장학금의 용도를 밝힌 후 올해의 계획도 적었다.

"엄마는 도와주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고 쓴 것은 규리다. 규리 엄마는 장학금 받은 걸 계기로 2학년인 아이의 마음을 다잡았나 보다.



그림 · 박구원

2학년 규원이는 "선생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잘 듣겠다"고 다짐한다.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조손(祖孫) 가정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를 언급할 수 없는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 짠한 마음으로 편지를 넘긴다.

가난은 아이들의 동심에조차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4학년 수찬이는 "안 그래도 장학금이 필요했는데, 저희집을 살려주신 분"이라고 과장되게 표현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5학년 지은이는 "형편이 어려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고, 부모님을 미워했다"고 고백한다. 가난한 부모는 죄가 없어도 자식의 미움을 받아야 한다. 이런 현실이 슬프다.

얼마 되지 않는 장학금이 아이 인생을 변하게 할까만,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아이들은 이 장학금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6학년 오근이, 5학년 민지, 2학년 보배는 "선생님이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나를 장학생으로 추천하셨다"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생각이 깊은 아이들도 있다. "나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아이들에게도 장학금을 나눠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는 주인공은 5학년 문홍이와 3학년 은비다.

5학년 지은이는 "절에서 장학금을 쥐어주시니 내 꿈에 그 돈을 투자하겠다"는 야무진 포부를 밝히고서 장학금 받은 것을 계기로 "돈으로만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봉사로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됐다"며 봉사하는 삶에 관심을 갖는다.

매년 초파일이면 우리절에서는 인근 초등학교 두 군데에 장학금을 준다. '장학금을 준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액수가 적다. 나는 거창한 명분을 원치 않는다. 이 돈으로 사탕을 사먹어도 좋고, 예쁜 인형을 사도 좋다. 가난한 아이들의 갈증을 잠시나마 풀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마음 같아서야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인연을 맺어주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마음 한 켠이 묵직해진다.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WORLD BUDDHISM LEADER

108인 선정 고승들의 수행
미얀마에서 실시한 큰스님들의 7일간의 수행

미얀마 종교성이 깜짝 놀랄 정도로 대성공을 이끌어 냈습니다.
연일 국영방송과 신문을 장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불러 이르켰고 미얀마 연방승가회 닥터 우꾸마라 종정큰스님의 격려속에 3사 7증 큰스님들과 많은 스님들이 주관하는 의식 중에는 종교성 장관 내외 부장관 내외 차관 내외와 30여 국장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대성황의 야단법석이였습니다. 성원해주신 전국의 큰스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합장 올립니다.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500인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高僧 및 元老 선정(宗師, 大宗師 급만 동참 가능)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법하께서도 법왕청 및 승왕청에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한국 및 세계 고승 500인 한분 한분의 공적과 활동 내역을 기록한
고승 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지구촌 곳곳에 배포하여 간직하게 할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 입니다.
세계 법왕청을 설립하고 법왕 및 승왕을 추대하고자 하는 불교사에 개인의 명예와 독선조차 하심으로 자신을 내려 놓으시고 헌신적 희생정신으로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십시요.
법왕청 설립에 헌신하신 업적이 불교사의 한 페이지에 큰스님의 이름이 장식되었으면 합니다.

■ 신청기간 : 2013년 5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한국불교 범종단 총연합 협의회 회 장
미얀마 연방정부 한국주재 미얀마 명예대사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 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국제불교지도자협회와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의 명칭과 마크를 사용한 명함을 사용하고 사칭하는 스님들이 있다는 제보가 많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협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美 캘리포니아에 부처님 치아사리 나투다

루 마운틴 사원 한 달간 친견법회 봉행

부처님 진신사리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도심 한 가운데서 나투었다.

캘리포니아 지역 매체인 Sgtribune(sgvtribune.com) 지는 "아시아계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가정에 봉안해 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기증 받은 루 마운틴(Lu Mountain) 사원이 4월 3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했다"고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Los Angeles County)의 로즈미드(Rosemead) 지역에 소재한 루 마운틴 사원에서 마련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에는 부처님의 치아사리 1과, 두골사리 2과 등을 비롯해 200여 과가 미국 불자들의 신심을 다잡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진신사리 중 불자들은 물론 지역 언론의 관심을 받은 치아사리와 두골사리는 최근 루 마운틴 사원에 기증됐고, 루 마운틴 사원 측은 이를 널리 알리고자 이번 친견법회를 마련했다.

"평생 한 번 친견하기도 쉽지 않은 부처님 치아사리와 두골사리를 봉안하게 된 것은 루 마운틴 사원의 복"이라고 전재한 용후아(Yonghua) 스님(루 마운틴 사원 주지)은 "대만계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계 스리랑카계 불자들이 진신사리를 기증했다는 것에도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캘리포니아 불교계가 출신 지역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불교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맞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친견 법회 첫 날인 3일에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 보디 라이트(Bodhi Light International)'의 회원 불자를 비롯해 각 아시아계 불자 500여 명이 참배하고, 씨안찌에(XianJie) 스님의 해설에 귀를 기울였다.



루 마운틴 사원의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씨안찌에(XianJie) 스님(사진 맨 앞쪽)이 사원을 찾은 아시아계 불자들에게 부처님 진신사리를 설명하고 있다. 불자들 사이로 루 마운틴 사원의 주지, 용후아(Yonghua, 사진 맨 뒤쪽) 스님이 서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에서 가장 주목 받은 부처님 치아사리. 루 마운틴 사원 측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60대 아시아계 여성불자'가 기증했다.

치아·두골사리 등 지역 불자 기증 로스앤젤레스 불교 구심점

"오색 보석으로 장식된 둥근 진열대 위에 봉안된 부처님 치아사리는 7.6㎝"라며 부처님 치아사리를 비롯해 법당 곳곳에 크리스탈 용기에 봉안된 부처님 사리를 안내하던 씨아찌에 스님은 "사리는 부처님 열반 이후부터 조금씩 자라는 게 특징"이라며 '동양 특유의 사리신앙'을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씨아찌에 스님은 "부처님 진신사리는 법신 그 자체"라고 강조하고, "부처님의 몸과 같은 진신사리를 친견하며 신심을 키운 불자들은 앞으로 캘리포니아 불교공동체 발전은 물론 지역 사회 발전에 한 몫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첫 날에는 치아사리와 두골사리 기증자들도 동참해, 불자들과 지역 언론의 시선을 잡았다.

두골사리를 기증한 티란타 구나세카라(Thilantha Gunasekara · 52 · 스리랑카) 씨는 "법회장을 가득 매운 불자 대부분, 미국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부처님의 사리를 집안의 가보(家寶)로 있기 보다는 많은 불자들이 찾아오는 사원에 봉안하는 게 더 가치있다고 생각해 기증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8년 전 스리랑카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두골사리'를 전해 받았다.

부처님 진신사리 55과를 기증한 탐 후리(Tam Huyhn · 61 · 베트남) 씨는 "사리의 영롱한 빛에 매료되어 고향(베트남)과 인근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구했다"며 "'내게 있을 때는 소장품에 불과하지만, 사원에 봉안되면 법신이 된다' 용후아 스님의 설득이 있어 결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무역업에 종사한 그는 10여 년 째 사리를 모아왔다.

"친견법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처님 치아사리의 기증자는 익명을 요구해 사원 측에서 '60대 여성불자'로만 밝히고 있다"고 전한 Sgtribune(sgvtribune.com) 지는 "'미국의 작은 아시아'라고 불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로즈미드는 1990년대에 중국 · 베트남계 이민자들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현재 아시아계가 로즈미드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첫 진신사리 친견법회가 지역 불교계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루 마운틴 사원 측에 따르면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는 오는 5월까지 계속되며, 이후 탑을 조성해 기증된 치아사리와 두골사리 등을 봉안할 예정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중국에 저자세 보이는 애플(Apple)社

아이튠스 중국, 티베트 독립관련 포함 전자책 삭제

애플 아이튠스 중국 스토어가 일부 iOS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형태의 전자책을 삭제했다.

애플 아이튠스 중국 스토어는 "중국 정부가 금서로 지정한 책들이 대상에 올라 지웠다"고 주장하지만, 외신은 중국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티베트의 정치적 투쟁과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美씨넷(cnet.com)은 4월 4일(현지시각) "중국인 북스토어 앱 개발자 하오 페이키앙이 4월 3일 자신의 앱을 애플이 삭제한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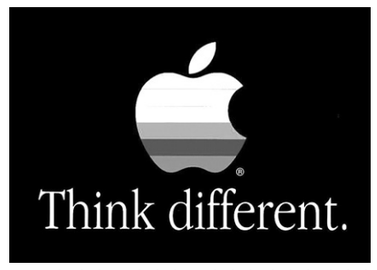
보도에 따르면 하오 페이키앙은 "이 앱은 더 이상 중국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하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버전의 아이튠스 스토어에서는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하오 페이키앙은 파이낸셜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 "애플의 콘텐츠 검수 정책은 적어도 2년간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두 달 동안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갑자기 삭제됐다"고 말했다.

'징디엔슈청'이라고 알려진 이 앱은 10종의 고전을 한데 담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앱은 17세 이상 이용가로 다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겉으로 보기엔 법적 금서로 지정될 만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앱 속에 담긴 10가지 고전 가운데 중국 정부가 금서 작가로 지정한 왕 리시옹의 책이 담겨 있다. 왕 리시옹은 중국을 상대로 티베트 독립을 위해 그간 펼쳐온 노력 등을 주로 저술하며 민주주의 정치 이론가로 알려졌다.

외신은 왕 리시옹의 책 때문에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여 삭제한 것으로 분석하며 "이 앱이 아이튠스에서 사라진 시점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소비자를 상대로 사과 메시지를 전한 직후"라고 전했다.



중국이 가장 금기시하는 달라이 라마의 메시지를 사용한 애플의 1990년대 광고 포스터.

팀 쿡 CEO는 4월 2일 애플 중국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최근 논란이 빚어진 아이폰 보증정책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중국에 저자세를 취하는 애플에 대해 외신은 "현재 애플의 상황이 모순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정부 금서지정 책 삭제 애플, 과거 달라이라마 메시지 광고 외신 "애플 상황 모순적" 비난

애플은 지난 1990년대 한때 달라이 라마의 메시지 "다르게 생각하라(Think Different)"가 담긴 포스터를 광고 캠페인으로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와 관련해 중국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인물 중 하나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짧은 설법과 칵테일 … 포교방법 고심하는 일본불교

일본의 한 젊은 스님의 '실험적인 포교 방법'이 일본 불교계는 물론 해외 언론의 이목을 잡고 있다. 영국 더가디언(Theguardian)에 따르면, 요시노부 후지오카(Yoshinobu Fujioka · 사진) 스님이 도쿄 시내에서 보즈 바(Vowz Bar)를 직영하며,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짧은 설법'을 하고, 자신이 직접 제조한 칵테일 '영혼의 정화(soul-cleansing)', '완벽한 축복(perfect bliss)', '무간지옥(infinite hell)' 등을 권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바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인 더가디언은 "매년 청장년층 불자 감소를 걱정하는 일본 불교계가 후지오카 스님의 포교 방법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티베트 산사태…실종 광부 83명 중 54명 시신 발견

중국 정부 '자연재해'로 규정

중국 티베트(중국명 시짱) 자치구에 3월 29일 산사태로 광산 노동자가 8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4월 4일 추도식이 열렸다. 중국 당국은 사고 현장 부근에 피해자 위령비도 세우기로 했다.

중국신문사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자 추도식이 티베트 라싸시 자마광산 사고 현장 부근에서 열렸다"며 "중국 당국은 광산노동자 8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한지 7일째인 4월 3일까지 66구의 시신을 수습하고 피해자 명단을 확정발표 했다"고 보도했다.

중앙 방재기관과 라싸시 등 당국은 전날 오후까지 4천여 명의 인원과 200여 대의 각종 장비를 동원해 현장 수색작업을 벌였다.

산사태로 흘러내린 흙더미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산사태 재발 조짐이 나타나면서 두 차례 수색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산사태나 지진 등으로 인한 매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의 한계를 고려한 인명 구조 가능 시점으로 알려진 72시간도 이미 지났다. 이에 따라 2명의 여성을 포함한 광산 노동자 83명의 매몰자가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지대 인명구조 경험이 많은 리수지 시짱군구 병원장은 "이번 산사태로 발생한 흙더미 속에는 틈새가 거의 없다"며 "매몰자들이 산소 부족 등으로 사고 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조 요원들이 산사태가 발생한 티베트의 한 광산에서 생존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번 산사태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고의 성격을 '자연재해'로 규정했다. 중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재(人災)'라는 주장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공기업 관리부처인 국가자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중앙기업들이 최고 경영자의 책임 아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나은 기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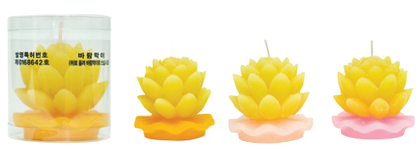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ϕ× 34㎝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ϕ× 34㎝


육각초 7.0ϕ× 34


연화 大 9.5ϕ× 11㎝, 연화 中 9ϕ× 10㎝, 연화 小 7ϕ× 6.5㎝


밀납연화 小 7ϕ× 6.5㎝



강화사자밭약쑥양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약쑥초 90cm×90㎝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ϕ×34㎝
③ 약쑥초 돈타레 5.6ϕ×27㎝
④ 약쑥초 밀대 4.7ϕ×25㎝
⑤ 약쑥초 1호 5.9ϕ×18㎝
⑥ 약쑥초 2호 5.9ϕ×14㎝
⑦ 약쑥초 3호 4.7ϕ×13㎝
⑧ 약쑥초 4호 4.7ϕ×10㎝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ϕ×10㎝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ϕ×13㎝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ϕ×14㎝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ϕ×18㎝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밀납초 90cm×90㎝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
④ 밀납초 밀대 4.7ϕ×25㎝
⑤ 밀납초 1호 5.9ϕ×18㎝
⑥ 밀납초 2호 5.9ϕ×14㎝
⑦ 밀납초 3호 4.7ϕ×13㎝
⑧ 밀납초 4호 4.7ϕ×10㎝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향수림


백목향,목향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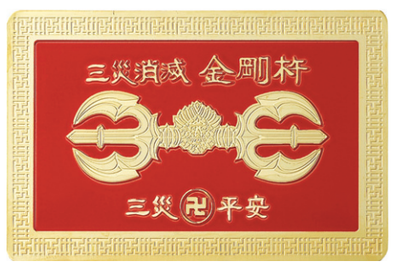

남성용 여성용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3년 #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三災消滅 金剛杵 三災卍平安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수행승 노후 위해 노스님들 붓들다

선원수좌복지회 '간화선 중흥 위한 선서화전'

"선방에서 평생을 수행에 매진한 스님들이 늙거나 아플 때 아무런 보살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승려는 다른 것 생각없이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이들을 뒷받침하는데 미약하나마 힘이되길 바랍니다."

'남(南) 진제, 북(北) 송담' 으로 불릴 만큼 수행이 깊기로 이름났지만 그림과 글씨를 밖으로 공개한 일이 거의 없는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松潭) 스님이 선서화 104점을 선뜻 전달하며 남긴 말이다.

불도의 깨달음은 말이나 글로 전하지

4월 24일~5월 2일 조계사 일대서
역대 종정 및 선승 서화 한자리에
희귀서화 등 총 834점 최대 규모
남농 등 거장 서화 200여 점 선보여
수익금은 수행승 복지에 사용

않는다는 불립문자(不立文字) 전통에 따라 수행에만 매진해왔던 선승(禪僧)들이 후배 수좌들의 복지를 위해 붓을 들었다.

선원수좌복지회(대표이사 의정)는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 조계사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서화전' 을 연다.

출품작으로는 경봉 청담 서옹 성철 월하 혜암 탄허 원담 석주 월산 스님 등 한국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들의 글씨와 그림 800여점이다.

역대 종정인 2대 청담, 5대 서옹, 6·7대 성철, 9대 월하, 10대 혜암, 13대 진제 스님의 선서화를 비롯해 '북전강 남향곡(北田岡 南香谷)' 으로 불리는 전강 스님과 향곡 스님의 선서화도 근래에 드물게 공개된다.

이는 모두 선원 수좌들의 복지에 수익금이 쓰인다는 취지에 공감한 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진 결과다.

선원수좌복지회 대표이사 의정 스님은 "수행에만 정진한 수행승들은 평생을 신세질 일도, 신세져줄 일도 없이 살기에 정작 자신이 아프거나 늙었을 때 돌볼 이들이 없다"며 "선원수좌복지회의 뜻에 공감한 노스님들이 수행승들의 복지를 챙기기 위해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국불화계의 거목 석정 스님의 경우 생전 스님들의 노후복지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림 기증을 약속했으며 스님의 입적 이후 선서화전 개최 소식을 들은 문도들이 십시일반 소장 그림을 모아 총 400점을 복지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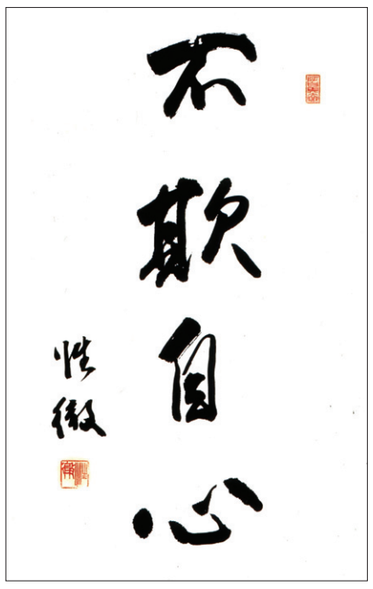
이런 취지에 스님들 외에도 불자로 알려진 이들도 대거 선서화전에 참여한다. 소치 허유, 미산 허형, 의제 허백련, 남농 허건, 동강 정운면 등 11명의 당대 서화 거장들이 글과 그림 200여 점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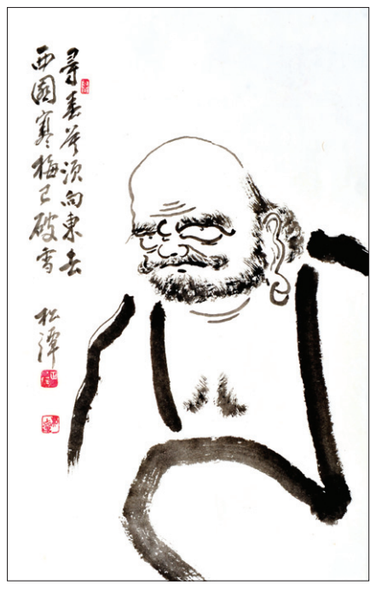
의정 스님은 "스님의 치료비가 100~200만원일때는 모르지만 1000만원 넘어가면 아무리 같은 문중이라도 선뜻 나서는 이가 없는게 불교계 현실"이라며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선서화전이 열리는 기간에는 매일 오전 10시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올바른 참선의 뿌리를 찾아서' 를 주제로 법문을 진행한다.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고우 대원 도문 무여 설정 월탄 현기 혜국 스님 등 9명이 법사로 나선다.

특히 진제 스님의 경우 종단 공식 행사 외 최초로 서울에서 법문해 눈길을 끈다. 법회장소는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와 같이 조계사 앞마당에 3500여명이 참석할 수 있는 대형 법석(法席)으로 마련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성철 스님의 불기자심 / 송담 스님의 달마도

'백발의 거장' 소리연으로 다시 무대에

음악인 박범훈 씨 19일~20일 국립극장서 공연



작곡가 박범훈(前중앙대총장·사진)씨가 '소리연(緣)' 으로 대중들에게 다시 돌아왔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초대 단장, 중앙대 총장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역임한 백발의 거장 박범훈 씨가 국악 무대로 복귀한 것이다.

'박범훈의 소리연(緣)' 공연이 4월 19~20일 양일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오른다. 이번 공연은 명곡들로 구성된 19일 '음악세계' 와 20일 해설이 곁들어진 '불교음악' 으로 각각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둘쨋날인 4월 20일 공연되는 국악교성곡 '용성' 은 1998년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초연한 대작으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자 찬불가를 최초로 작곡한 용성 스님의 일대기를 다뤘다.

교성곡 '용성' 은 용성 스님의 수제자 도문 스님의 원작을 토대로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가 시를 쓰고 박범훈이 곡을 붙인 음악극이다.

이 작품은 스님의 삶을 서곡, 서가, 탄생, 어린 시절, 출가, 예불, 시련, 3·1운동, 나라 어디가고, 대각운동, 깨침이여 밝음이여, 불타성지의 구성으로 조명했다. 국립창극단 김성녀 예술감독, 유희성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채향순 무용단, 국립창극단 및 300여 명이 출연 장엄한 무대를 펼친다.

교성곡 '용성' 에 앞서 공연되는 조계사 혼성합창단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생활속의 불교 음악' 도 흥미롭다. 박범훈 교수의 해설이 곁들여지는 이 코너에서는 산사의 봄, 삼세인연, 니르바나, 거룩한 손, 부처님 오신날 등이 공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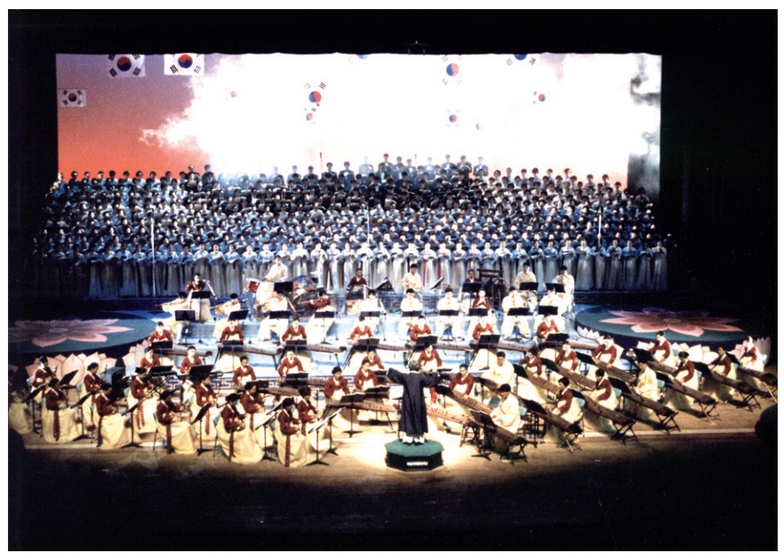
또한 4월 19일 첫날 공연인 '박범훈의 음악세계' 에서는 산조, 무속, 무용, 아시아 음악 중 대표곡을 엄선한다. 이번 공연에서 창작곡인 25현 가야금을 위한 산조협주곡 '경드름' 을 가야금 명인 김일륜의 손끝

용성 스님 일대기 교성곡으로 펼쳐
해설이 있는 생활속 불교음악 주목
무속음악 결정판 '신(神)' 시리즈도

으로 초연한다.

여기에 무속음악의 결정판으로 알려진 박 씨의 '신(神)' 시리즈도 기대할만하다. '신내림', '신모듬', '신맞이' 로 이루어진 이 시리즈는 음악적 완성도와 대중적 인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경기지방의 무속가락과 황해도의 무속연희를 소재로 한 '신맞이' 를 장구 명인 김덕수와 무속 명인 서경욱의 협연으로 선보인다. 그의 딸이자 중국 대표 현악기 얼후 연주자인 박두리나와의 협연도 펼쳐진다. 박두리나는 중국국립중앙음악학원에서 얼후를 수학한 재원으로 지휘자와 협연자로 만나는 부녀의 앙상블이 기대된다.



'박범훈의 소리연(緣)' 공연이 4월 19~20일 양일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1998년 '교성곡 용성' 의 초연 장면.

무용극도 선보인다. 그는 무용극 '도미부인' 을 비롯한 15편의 무용음악을 작곡한 무용음악의 대가이기도 하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춘무(春舞)' 와 '춤을 위한 나나니' 를 국립무용단의 춤사위와 경기민요 명창 김영임의 구성진 소리로 꾸민다.

초연곡 '댄스스포츠를 위한 관현악' 도 주목할 만하다. 평소 댄스스포츠에 쓸 수 있는 우리음악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던 박범훈 씨는 왈츠-탱고-자이브로 구성된 또 하나의 생활 속 국악관현악을 만들어냈다. 음악에 맞춰 펼쳐지는 스포츠댄스 댄서들의 춤사위는 하나의 볼거리이면서 동시에 우리음악의 넓은 품을 새삼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이번 공연에는 지휘·작곡 박범훈, 지휘 김회경, 연출 손진책(국립극단 예술감독), 안무에 윤성주(국립무용단 예술감독)·채향순(중앙대학교 교수)이 참여한다. 출연진으로는 김성녀, 김덕수사물놀이패, 김영임, 김일륜, 서경욱, 유희성, 박두리나, 도신스님, 최수정, 전영랑, 민은경, 국립무용단, 국립창극단, 채향순중앙무용단, 중앙대 성악과 남성합창단, 조계사합창단, 불광사합창단, 관문사합창단, 약사사합창단, 신흥사 어린이합창단 등이 함께한다.

관람료는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02)2280-4114~6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최초 불교영화 리메이크 된다

후원 기다리는 박영철 감독의 '내마음의 고향'

최초의 한국불교 영화 '마음의 고향' 을 박영철 감독이 리메이크한다. 함세덕의 희곡 '동승' 을 원작으로 한 '마음의 고향' 은 1949년 개봉됐지만 6.25 이후 필름이 유실됐다가 최근 세상에 다시 알려졌다. 그리고 2013년 박 감독에 의해 '내 마음의 고향' 으로 재탄생했다.

'내마음의 고향' 은 어려서 절에 버려진 동자승 도성의 이야기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도성의 갈등과 번뇌를 다루는 휴먼감성 드라마다.

박 감독은 한국 영상자료원에서 나온 필름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 영화를 리메이크하고자 결심했다고 한다. 현재 삼각산 내원사(주지 정수 스님)에서 촬영을 마치고 후반작업만 남은 상태다. 박감독은 영화를 찍으며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한다.

"부전 스님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출연을 못한다고 해 제작진 중 한 명의 머리를 깎아 단역으로 출연시키는 일이 벌어졌죠. 또 촬영 초반에 주인공 동자승이 머리가

5월 베니스 영화 출품 발원
세계에 불교문화 알리고자

살짝 자란 것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촬영에 들어갔다가 동자승의 느낌이 나지 않아 3~4회차 분의 필름을 버리고 다시 촬영하기도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박 감독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제작비의 부족이다.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 출품을 하고 싶지만 불교 영화이며 독립영화가 제작비를 지원받기는 하늘에 별따기라고 박감독은 말한다.

"한국은 1700년 불교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화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5월까지 베니스 영화에 출품을 하고 싶지만 후반 작업 비용이 빠듯합니다"

박 감독은 이에 불자들의 후원을 기다린다. 그는 "후원자에게는 특별시사회 초대 엔딩크레딧에 이름을 올려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후원: 우리은행 1002-046-517843 (예금주 박영철)

정혜숙 기자



박영철 감독이 리메이크한 한국 최초의 불교 영화 '내 마음의 고향'

불교성지순례 전문여행사 (주) 마하연 투어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황산. 보타산. 낙가산)	성지순례	7일 –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성지순례	4일 – 9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	성지순례	4일 –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석가장)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낙산)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직항)	6일 – 139만원
● 스리랑카	정통성지순례(직항)	7일 – 199만원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고/시리암(직항)	5일 – 99만원
양곤/바간/헤호	5일 – 159만원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169만원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황금파고다/철야기도 가능)	7일 – 요금문의

(주) 마하연 투어 ☎ 02)365-7747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친숙한 불교 음악이 곧 포교

노래로 인문학 말하는 연등회 음악 기획자 김현성 씨



연등회 음악 기획자 김현성 씨는 지금까지 봉축위 앨범 '연등회의 노래' 7장을 기획했다. 또한 대불청과 템플스테이에서 개최하는 통통콘서트도 기획중에 있다.

김현성 씨는 가수 겸 작곡가 그리고 시인이다.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비롯해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안치환의 '인생은 나에게 술한잔 사주지 않았다' 등을 작곡한 김현성 씨. 또한 그는 매년 봉축위에서 발매하는 음반 '연등회의 노래' 7장을 기획하고 작사·작곡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법정 스님의 글에 곡을 붙인 '무소유의 노래' 음반을 냈고 한용운 스님의 글과 시에 곡을 붙이며 불교 음악의 대중화를 꾀해 온 것이다.

문화 놀이터 통통콘서트 펼쳐
불교계 대중문화콘텐츠 활성 발원

이런 그가 대한불교청년회와 템플스테이문화사업단이 4월 25/5월 30일 여는 '쓰담쓰담 통통콘서트'를 기획했다. "불교도 생활 문화 운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포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불교를 편하게 인식할 수 있는 문화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콘서트는 어떤 청년들이라도 찾아와 즐기고 불교에 대한 훈훈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하고자 합니다"

그는 인문학과 음악을 결합한 공연인 '길위의 인문학', '인문학 콘서트', '교보문고와 함께하는 노래의 인문학 콘서트' 등을 진행중에 있다. 책을 좋아하는 그는 법정 스님의 책 대부분을 읽었다고 한다.

"스님의 글은 문체가 간결하면서도 서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겸손 청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노랫말이 되겠다 싶어 스님에게 허락을 얻어 곡을 붙였죠. 하지만 음반 작업 중에 스님이 입적을 하셨어요. 결국 맑고향기롭게와 함께 모든 사안을 의논해 '무소유의 노래' 음반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2013년 봉축위 음반 '연등회의 노래'에도 '사랑하는 까닭' '꿈과 근심' 등 한용운 스님 시에 곡을 붙였다. "한용운 스님 작품 역시 음반 하나를 낼 수 있을 만큼 많은 곡들을 만들어 놓았지만 아직 기회가 없어 음반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대중들이 음악을 통해 불교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기획하는 '쓰담쓰담 통통콘서트' 역시 많은 젊은이들의 놀이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사찰로 소풍을 갔어요. 자연스럽게 불교 문화를 접했죠. 하지만 지금 절은 대중들에게 너무 멀어진 느낌에요. 이런 문화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불교를 편하게 접하고 불교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면 포교도 저절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KBS1 라디오 '생각의 비밀' 제작

전현수 박사 자문 받아 진행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42.6명, 연간 15,000여명이 자살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 등 자살 고위험 군이 4백여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자살의 시대 마음 치유 열풍이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KBS1 라디오가 5월 12일 가정의 달 특집방송으로 '생각의 비밀'(담당 PD 최영)을 제작 방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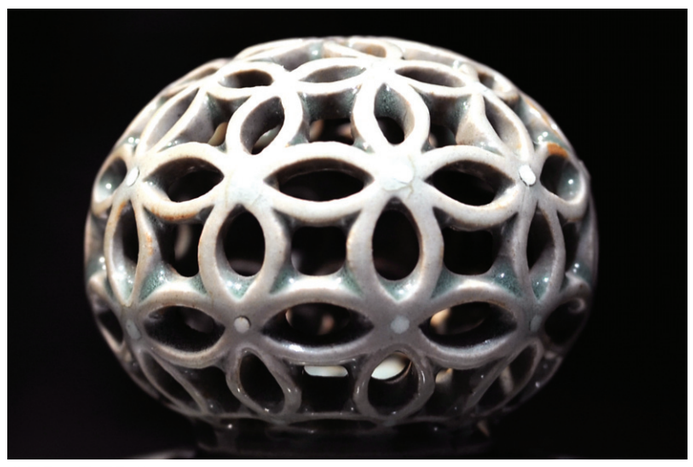
이는 불교수행자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전현수 박사의 자문을 얻어 생각과 마음의 관련성을 풀어가는 프로그램이다. 최영 PD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정체를 살펴볼 것이다. 생각과 관련된 의문점들, 오해와 진실들을 밝히고 분석해볼 것"이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고려청자 칠보문 투각향로→고려청자 무량보주 투각향로 ㊦

향로에는 '여래화생' 의미 담겨



① 무량보주 투각



②무량보주 투각 윗부분



③붕긋붕긋한 연꽃잎—영기꽃

고려청자는 누구나 다 아다시피 세계에서 빼어난 독자적 조형세계를 성취하여 고려청자를 사랑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정작 고려청자의 뛰어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적다. 그 고려청자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작품이 있으니 바로 이른 바 '고려청자 칠보투각 향로'다. 그 만든 솜씨가 정교하고 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조형의 절묘함이 극을 달하여 중요한 전시 때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걸작품이다. 그런데 100년 동안 '고려청자 칠보문투각향로(高麗靑瓷 七寶透刻香爐)'로 알려져 있어서 모든 도자기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게 부르며 심지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쓰여 져 있다.

이미 앞서 칠보문의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아무 의미 없는 폐기해야할 용어임에도 왜 그 걸작품을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 그렇다면 향로의 조형으로 칠보를 투각한다는 말조차 성립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지난 회에서 칠보문이 보주들이 수없이 겹치고 겹친 무량한 보주를 평면적으로 나타낸 무량보주문(無量寶珠文)임을 충분히 설명했다. 그런데 고려 도공들은 그것을 절묘하게 입체적으로 둥글게 만들어 그것도 커다랗게 투각하여 그 사이사이 틈에서 향기가 피어나도록 고안을 했다.

그런데 무량보주를 입체적으로 만들 때, 이 향로에서처럼 둥근 줄기모양의 보

투각 향로 영기화생 조형
생명 극대화한 무량보주 의미

주를 겹겹이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투각을 하여 표현한다. 이 향로의 무량보주를 세어보면 모두 40개다.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배열의 방법을 알 수 있고 무량한 수의 보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으므로 물이나 무량한 보주가 가득 차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 상면에는 구멍이 나 있다. 그러므로 그 구멍으로부터 물이나 보주도 무량하게 나올 수 있다. 그것은 그 안에 무한한 생명력이 가득 차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니 그런 투각 무량보주에서 향기가 나온다는 것은 단지 향을 피우는 것만이 아니라 여래를 향기화생(香氣化生)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그리고 무량보주 밑에 있는 연꽃잎을 자세히 보면 잎이 붕긋붕긋하게 변형하여 영화시키고 있다. 내가 말하는 연꽃모양 영기꽃이다. 이 꽃을 연꽃이라 말할 수 있는가? 연꽃잎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 붕긋붕긋한 구름이나 붕긋붕긋한 모란은 구름도 아니고 모란도 아니라는 것을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붕긋붕긋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을 영화(靈化)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현실의 연꽃에서는 여래나 보주가 생기지 않는다. 연꽃을 영화시켜 변형시켜야만 비로소 여래가 화생하고 무량보주가 화생하는 것이다.

즉 이 작품은 영기꽃의 씨방에서 무량보주가 영기화생하는 조형이다. 말하자면 '무량보주의 영기화생'이다. 그만큼 보주의 존재와 상징이 중요한 것이다. 이 보주 대신에 여래가 앉아서 영기화생하는 광경을 보여 줄 수 있고, 보주 대신에 용이 영기화생하는 광경을 보여 줄 수도 있다. 이 작품에서 무량보주투각 부분 자리에 여래가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영락없이 여래의 영기화생일 터인데, 그만큼 여래 자체가 생명을 극대화한 무량보주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뜻이다.

여래를 향기화생시키기 위하여 창조한 매우 독창적이며 아름다우며 엄청난 의미와 상징을 품고 있는 작품을, 성립할 수도 없는 아무 의미 없는, 틀린 용어도 아닌 용어로 부르고 있으니, 이것은 위대한 작품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향로는 단지 향공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래를 화생시키기 위하여 향을 피우는 것인데,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 있기에 이러한 절묘하고 독창적인 〈고려청자 무량보주 투각향로〉가 탄생한 것이다. 우리는 틀린 용어를 바로 잡음으로써 잃었던 작품을 되찾을 뿐 아니라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다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
역사에서 찾아낸 인생의 기술(Art of Living)

사랑, 가족, 일, 시간, 돈부터
공감, 신념, 죽음, 여행, 감각, 자연, 창조성까지
인생의 12가지 주제에 관한 통찰을 주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낯선 역사에서 발견한
좀 더 괜찮은 삶의 12가지 방식

원더박스
The Wonderbox

로먼 크르즈나릭 지음 | 강혜정 옮김
528쪽 | 20,000원



로먼 크르즈나릭(Roman Krznaric)
문화사상가이자, 일상생활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지혜와 영감을 제공하는 공간인 인생학교의 초대 교수진 중에 한 명이다. 로먼은 옥스팜, 국제연합을 포함한 여러 조직에 공감과 대화를 이용하여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조언해왔다. 《옵저버》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인생 기술 철학자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었으며, 『일 – 일에서 충만함을 찾는 법』 등을 썼다. 공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로먼의 블로그(www.outrospection.org)는 세계 각국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원더박스는 불광출판사의 인문 교양 브랜드입니다.

원더박스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염불…아미타불의 극락세계로 가는 길



안락집
도작 지음
보운 옮김
혜안 펴냄
2만원

〈안락집〉은 중국 정토교학의 대표적 경전 중의 하나로, 불법을 수행하는 대중들이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염불수행 방법을 강조한 저작이다. 한국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번역본이 없어서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국내 최초로 번역된 이 책은 중앙승가대학교를 비롯해 여러 승가대학에서 정토종 연구의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런 까닭으로 내용의 정확한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본의 필요성을 절감한 역자 보운 스님(신륵사 거사림회 지도법사)이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했다.

수많은 수행법 중에서 염불은 승가가 재가자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요, 부처님의 법을 빠르게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염불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불교의 교학이 어렵다는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수행의 깊이를 증장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수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이고 접근이 쉬운 염불 수행법을 일반대중에게 보급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국에서는 정토종이 널리 보급되어 왔고, 긴 역사를 통하여 동아시아 불교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동화사 아미타후불탱

정토종의 이른바 소의경전인 〈안락집〉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빈번하게 왕조가 교체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민생의 파탄을 일으킨 중국의 남북조시대의 시대적 상황에서 시작된다. 혼돈의 남북조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을 이루어 사회적 안정을 찾는 수나라는 다시 고구려와의 3차에 걸친 전쟁과 대운과 건설 등으로 인한 국력 소모로 617년에 멸망하고, 이어서 618년에 당이 건국된다. 저자인 도작 스님이 소년기 때인 574년 북주 황제 무제는 불교와 도교를 탄압하기 시작하여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불상과 경전을 파괴하고, 수많은 승려들을 환속시켰다.

도작 스님은 정치의 혼란 속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국내 최초로 번역된 〈안락집〉

염불수행 강조한 정토교학 대표 경전

기근, 그리고 폐불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당시가 말법시대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하게 되었고, 자신이 살아온 시대를 〈대방등대집경〉의 제4의 오백년에 해당한다고 믿었다. 그는 이러한 말법시대에 상응하는 가르침은 정토문이 가장 적합한 교리이며, 이것으로 대중을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가 〈안락집〉을 저술한 것은 이러한 정치적 격동과 불교 내부의 새로운 문화적 변혁을 받아들여 정토교학의 체계적인 이론 정립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토문(淨土門)'이란 아미타불의 힘에 의해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깨달음을 얻는 법을 말하는데, 무한한 시간과 공간성을 중심으로 대륙적 기질의 중국문화가 발전시킨 아주 중요하고 혁신적인 불교 수행방법의 하나이다.

〈안락집〉은 〈대정신수대장경〉 제47에 실려 있다. 서분(序分), 정종분(正宗分), 유통분(流通分)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에서는 찬술 목적을 밝히고, 정종분 12대문 중 각 일문(一門)마다 전체 내용을 설명하는 '개요',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개별 해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유통분에서는 찬집과 유통의 공덕이 널리 중생에게 베풀어져 극락에 왕생하며 함께 불도를 이루길 발원하며 맺고 있다.

정종분은 전제척으로 중심 내용이 12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대문에서 제3대문까지는 상권, 제4대문에서 마지막 12대문까지는 하권으로 되어 있다. 개요에서는 12대문의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개별 해석에서는 구체적으로 경, 율, 론을 인용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대중은 누구나 현실생활의 벽에 막히어 몸과 마음이 힘들고, 이로 인해 생긴 번뇌로 괴롭다. 이렇듯 힘든 삶 속에서 듣는 진리의 가르침인 염불소리는 대중의 마음에 안식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바로 그런 까닭에 부처님의 진리를 음성으로 옮기는 독경소리야말로 우리들에게 염불을 찾게 하는 커다란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독경과 염불의 이론을 정립한 것이 정토교학이며, 그 논리의 중심에 〈안락집〉이 있는 것이다.

역자는 "〈안락집〉의 찬술은 중국 정토교학의 혁신적 발전을 이루게 했고, 철학적으로 난해하여 접근하기 힘들었던 일반 대중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행법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당시 지식층들의 전유물이었던 불교가 대중을 향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도 되었다."고 〈안락집〉의 가치와 의미를 말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당신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님에게 보내는 스님의 편지

영흥 스님 지음 | 연월 펴냄 | 1만6천원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당신의 삶은 어떠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끼니를 챙길 겨를도 없이 출근을 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모두 공장에서 빵을 찍어내듯, 쳇바퀴 굴러가듯,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바쁜 삶 5분만 내려놓고 산승이 보내는 편지 한 편 읽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산승이 보내는 따뜻한 글이다.

어머님, 오늘은 당신이 그립습니다.

예전엔 당신보다 부처님이 먼저였습니다.

당신보다
부처님을 더욱 우러러 받들며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부처님보다
당신을 더욱 우러러 받들며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란 이름 앞에서는
항상 설레는 아기가 됩니다.

어머님,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어느 모습으로도
여여하게 지금은 빙그레 웃으시겠네요.

부처가 곧 당신의 아들이라고요.

어머님,
이제 저도 사바든 극락이든
스스로 항상 해탈낙입니다.

이제는 어머님도 마음 놓으시고
흥대로 항상 행복을 누리소서.

늘 오늘에 영흥, 향 사르고 큰 절 3배 올립니다.

불제자로 살던 스님은 어느 날, 어머님이 생각났다. 출가자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아들이었던 것이다. 아들은 어제까지는 어머니보다 부처님이 먼저였지만 오늘부터는 어머니가 먼저라고, 부처님보다 어머니를 더욱 우러러 받들며 존경하고, 사랑하겠다고 고백한다.

저자 영흥 스님은 출가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삶을 통해 쌓은 단상들을 세상을 향해 던진다. 60여 편의 글은 스님만의 독특한 은유와 비유가 빚어낸 선시들로 자신을 돌아볼 틈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위로가 될 따뜻한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나라는 국민 20명 중 1명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8년 동안 1위를 지키고 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겪고 있는 정신적 빈곤을 걱정한 스님의 힐링 법문이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7 ~ 4/2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2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5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6	절대 혼자 살지 마라 (스님의 쓴 소리)	혜철	마젠타
7	그대는 그대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가	선묵혜자	아침단청
8	풋과일이 떫은맛을 내는 것은 천린한 아름다움이다	성담	셀프컬쳐리서치
9	진광불휘	유철주	담앤북스
10	대원만 수행 요결	직메 최기왕뽀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이야기의 힘…사색으로 이끌다

이야기꽃 2

박용성 지음 | 살림터 펴냄1만3천원



한 젊은이가 수사학을 배우기 위해 소크라테스를 찾아갔다. 수사학이란 말을 정연하게 다듬어 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학문인데, 아테네의 젊은이들에게는 필수 학문이었다. 그 젊은이는 소크라테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젊은이에게 두 배의 수업료를 요구했다. "선생님, 왜 저에게만 많은 수업료를 요구하십니까?"

"왜냐하면, 나는 자네에게 두 가지 학문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지. 그 하나는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자제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말을 다듬어 하느냐 하는 것이지.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더욱 어렵지. 자네는 그 첫 번째 것을 더 공부해야 하네."

인간과 삶을 둘러싼 숱한 이야기들이 있다. 그 이야기들은 존재와 현실과 이상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과 성찰을, 비판과 대안을 제기해왔으며,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교훈을 주었다. 전작 〈이야기꽃〉을 통해 '이야기의 힘'을 보여준 저자는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재미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는 그 이야기 속의 삶을 더불어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들려주는 것이라고도 합니다."며 책 〈이야기꽃 2〉를 펴냈다.

책에 담긴 이야기들은 재미있게 읽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민담과 설화, 성서와 불경, 탈무드와 이솝우화, 그리스 로마 신화 등에서 가려 뽑은 것으로, 친숙하면서도 깊은 사색으로 이끌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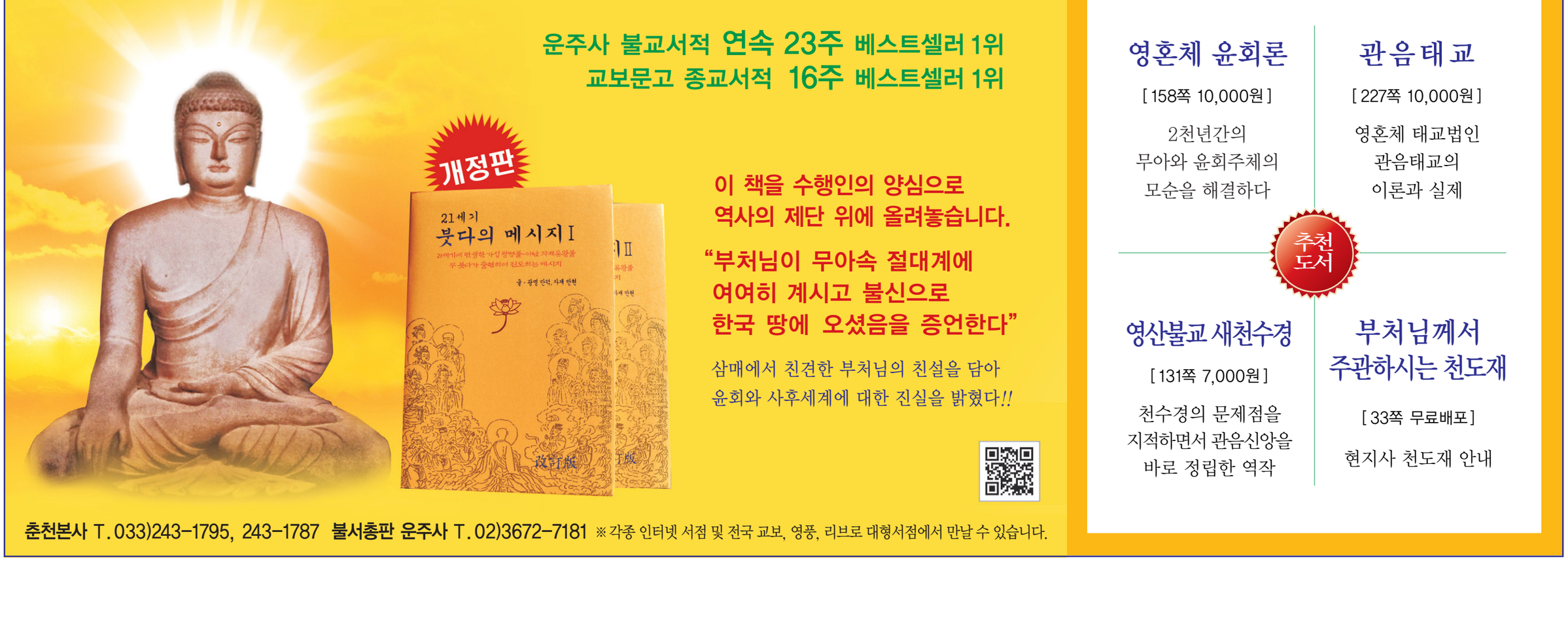
"고대 이집트의 왕릉에서 밀알이 한 줌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땅에 심고 물을 주었더니, 놀랍게도 싹이 텄습니다. 5천 년 만에. 이렇듯 생명은 침묵으로 지켜주고 그 삭을 틔웁니다. 하지만 메마른 말에 생명이 실리면 그 말소리의 가벼움에 생명조차 허공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말을 아끼는 일이 생명을 아끼는 일입니다."

120편의 이야기들은 방학을 뺀 10달로 구성되었는데, 달마다 열두 편씩 나누어 수개하면서, 각 글마다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지은이의 생각('생각하기')을 덧붙이고 있다. 짤막하면서도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 속에서 지은이는 독자에게 진지하고 깊은 생각과 바른 실천을 통해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고 강조한다.

3월은 교육을 생각하는 달,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4월은 친구를 생각하는 달,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5월은 부모를 생각하는 달, 부모 마음과 내리사랑을 생각하는 이야기들이다. 6월은 사회를 생각하는 달, 우리 사회의 슬픈 모습을 반성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다. 7월은 욕망을 생각하는 달,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9월은 자아를 생각하는 달, 스스로 자신을 구해야만 하는 인간의 자아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10월은 지혜를 생각하는 달, 지혜롭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11월은 과학을 생각하는 달, 과학의 발전, 과학적 인식에 관해 귀 기울이는 이야기들이다. 12월은 죽음을 생각하는 달, 우리네 삶의 자리와 죽음의 자리를 생각해보는 이야기들이다.

2월은 시작을 생각하는 달,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존재인 우리들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박재완 기자



“내 마음 밖에 죽고 사는 문 따로 있지 않아”



그대, 보지 못했는가
서암 스님 구술
이청 엮음
정토출판 펴냄
1만6천원

“여보게, 어떤 한 사람이 논두렁 밑에 조용히 앉아서 그 마음을 스스로 청정히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중이요, 그곳이 바로 절이지, 그리고 그것이 불교라네.”

젊은 시절, 불교계의 현실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법륜 스님은 1980년대 미국 LA의 작은 사찰에서 노스님 한 분을 만난다. 법륜 스님은 노스님의 이야기에 불교 운동이라는 이름에 매몰돼 있던 자신의 삶을 각성하고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다. 이 노스님이 바로 제8대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서암 스님이다.

전 조계종 종정, 한국 최고의 수도선원인 봉암사 조실 등 서암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지만 그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마디는 ‘자유와 원칙’이다. 일본 유학시절 중증 폐결핵 진단을 받고 귀국한 서암 스님은 처음 출가한 문경 김용사서 용맹정진 했다. 그러던중 스님은 ‘생명, 그것은 곧 마음이니, 내 마음 밖에 죽고 사는 문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의 육신을 보며 깨닫는다. 이후 스님께서는 평생 하나의 원칙을 지니고 살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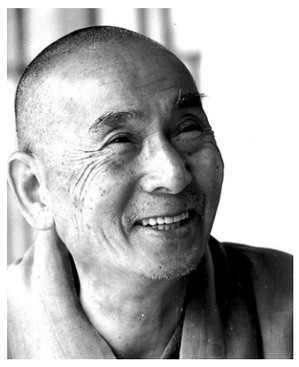
그 것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하더라도 불법에 맞게 수행하는 자세로 하면 산속에서 정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산속에 앉아 홀로 정진하더라도 뭇 중생의 고통을 잊지 않으면 자비 실천에서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으로 세상과 종단 그리고 여러 불자들이 원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사심 없이 직무를 수행했다. 그러다가 주어진 직무를 제대로 해나갈 환경이 못 될 때는 아무 미련도 없이 그 ‘자리’를 내던지고 수행자의 본분으로 돌아왔다. 해방 후 경북 종무원장 시절부터 조계종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 종정에 이르기까지 스님은 이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직책을 맡고 또 미련 없이 내려놓고 사문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불교의 근본원칙 하나를 갖고 스님은 문중, 역할, 종단에 구속되지 않은 자유인 그 자체로 평생을 살다가셨다.

생활 선(禪), 내 마음을 찾는 법

평생 선 수행을 바탕으로 법문하고 공부한 스님은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생활선의 법문’으로 알려져 있다. 선에 있어서도 생활 속 실천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선이란 것은 어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손 움직이고 발 움직이고 울고 웃고 이웃 간에 대화하는 그 속에서 24시간 내 모습을 온전히 찾아가는 것, 그것이 생활선”이라는 것이 스님의 가르침이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 항상 바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정작 현재의 나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본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불교는 마음의 정체를 밝히며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자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알려준다. 그리고 그 자기 마음자리를 깨닫는 방법을 선(禪)이라고 했다. 그래서 출가승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선이다. 그리고 선은 불교 전매특허가 아니라고 말한다. 혼돈과 고통으로 얼룩진 정신세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자기 본래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참선이고 생활선이다.



열반 10주기 맞은 서암 스님 회고록
평소 일상생활 속의 선 강조해

종단분규, 종정 탈퇴와 탈종 그 오해와 진실

서암 스님은 해방이후 왜색화된 한국불교를 정화한다는 목적으로 불러들였던 폭력이 오늘날까지 불교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대의와 명분은 옳았어도 그 방식이 문제라면 불교적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꼭 물리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단식이든 집회든 다중의 힘을 과시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폭력이며 폭력적인 해결법은 세속의 방식이고 불교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 스님의 뜻이었다.

1994년 종단개혁 당시, 대중의 힘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부정하고 막으려 했다. 대중들은 내편 · 네편으로 나눠 대중의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서암 스님은 우리 편이 아니다’는 오해와 더불어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갔다. 비불교적인 방법에 대해 불교적인 원칙을 제시하며 서암 스님은 종정을 사퇴하고 종단밖으로 나갔다.

일련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못 평가되고 왜곡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암 큰스님 열반 10주기를 맞는 지금, 서암 스님의 종정사퇴와 탈종은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수행자로써 최대의 명예로움으로 다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 노장,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갔다 해라

열반에 들기 전 시봉하던 제자들이 스님께 한 말씀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자 스님께서 한마디 했다.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 게송도 아니고 법문도 아닌, 평범하기 그지없는 말. 그러나 부처님을 비롯하여 이 세상의 불교 전체를 아우르고 질타한, 가장 불교적인 한마디였다.

무언가 드높고 복잡 미묘한 경지를 이르면 가치롭게 여기는 풍토에서 스님의 담백한 한 말씀은 이런 세태를 꼬집어주는 것만 같다. 서암 큰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큰스님의 수행과 깨달음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하는 이유는 삶이 풍요로워지면서도 정신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청량수와 같은 시원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검소한 삶과 깨달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주일 기자**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기 위한 ‘인생 처방전’

있는 그대로
미스노 슌묘 지음 | 라이프 맵 펴냄 | 1만3천원



성적과 성과에 대한 고민, 경쟁서 뒤쳐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실감, 앞날에 대한 걱정,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찾지 못해서 생기는 방황 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욕심,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열등감,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에서 오는 무기력감,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이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거기에 휩쓸려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은 힘들고 지치고 상처 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한다.

이 책 저자인 마스노 슌묘 스님은 겐코지의 주지 스님으로, ‘선’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정원디자이너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원디자이너로는 최초로 일본 예술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예술선장 문부대신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독일연방공화국 공로훈장인 공로십자훈장,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공로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또한 2006년에는 일본판 「뉴스위크」는 스님을 ‘세계가 존경하는 100명의 일본인’에 선정하기도 하였다.

스님은 이 책에서 집착과 망상, 번뇌를 벗어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으로 선의 가르침을 제시한다.

선(禪)은 그 무엇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며, 얽매이지 않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다시 말해 ‘본래의 자신,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만나는 것’이다.

지금 눈앞의 일에 전력을 다해 매진하여 ‘그 순간’을 살아내면 살아있는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그저 모든 일을 대할 때 사고관이나 관점을 조금만 바꾸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스님은 그것을 돕기 위해 선어(禪語)에 담겨있는 삶의 지혜를 마음, 사람, 시간, 변화 그리고 인생이라는 5가지 주제로 나누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고 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변화 없이 담담히 흐르는 일상 속에 숨어 있다. 인간은 평범한 일상을 통해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지금 힘이 드는가? 그것은 한순간일 뿐이다. 그런 것들은 어쩌면 우연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얽매이면 자신을 지키려는 나머지 더한 고통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는 큰 파도에 몸을 맡길 줄도 알아야 한다.

禪, 본래 자신과 만나는 것
지금 ‘이순간’ 전력 다해 살자
5주제로 나눠 ‘인생’ 쉽게 설명

힘들고 지치고 상처 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걱정과 고민, 스트레스로 가득한 일상을 반복하는 이들에게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를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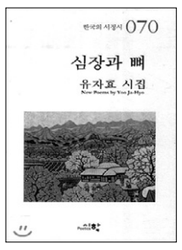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미스노 슌묘는?

1953년 가나가와 현 출생으로, 겐코지의 주지 스님이자 정원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다. 또한 다마미술대학 환경디자인과 교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특별교수로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선(禪) 사상과 일본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선의 정원’ 창작 활동을 통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예술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예술선장 문부대신 신인상’을 정원 디자이너로서는 최초로 수상했으며, 독일연방공화국 공로훈장인 공로십자훈장,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공로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2006년에는 〈뉴스위크〉 일본판 ‘세계가 존경하는 100명의 일본인’에도 선정된 바 있다. 저서로는 〈걸레 한 장으로 삶을 닦는 스님의 청소법〉이 있다.

60대 시인 ‘삶의 편린’ 시어로

심장과 뼈
유자효 지음 | 시와시학 펴냄 | 8천원



중저음의 목소리가 매력적인 로맨티스트 방송인 유자효 시인(67)이 새 시집을 출간했다. 열 네번째 시집이자 5권의 산문집을 합해 총 열 아홉번째 책이다. 책 이름은 좀 생물학적이다. 〈심장과 뼈〉다.

시집 서문에서 “젊을 시절에는 나이 들면 좀 초연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이 시집에 실린 시편들은 60대 중반 내 삶의 편린들에 대한 기억”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인은 자신의 심장 수술에 대한 단상을 시어로 가득 퍼 올렸다.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껏 함께 해 준 몸에 대한 감사와 자신을 염려해 준 고마운 이들도 언급했다.

“잊혀진 줄 알았는데 / 외로운 줄 알았는데 / 사랑받고 있었구나 /보호받고 있었구나…”

시인은 인도서 부처님이 발견한 사성제와 연기법을 되새겨 보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열어 준 드넓은 길을 바라본다. 스승을 빛나게 하는 진리의 길이다. 그 길은 ‘하나이나 여럿이고 여럿이나 끝내 하나의 길’(一即多 多即一)인 화엄의 세계다.

시집 마지막에는 예순여섯의 시인으로 돌아와 다시 자신 앞에 놓인 강을 관조한다.

“아버지 세상 뜬 나이 다가서는 이 가을 / 점은 점차 줄어들고 근심은 쌓이는데 / 어떻게 건너셨을까 / 홀로 이 외로운 강”

시인은 삶의 가느다란 끈을 주시하고 있다. 가늘지만 끊어지지 않을 그 끈은 시인의 미래에 대한 설계도다. 그런 시선에 시인은 ‘묵시적 희망’을 담아내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제주지역 27개 사찰 안내서

제주사찰에서 나를 찾다
이병철, 한기완 지음 | 제주불교신문 펴냄 | 2만5천원



제주불교신문 기자들이 펴낸 제주사찰안내 1집 〈제주사찰에서 나를 찾다〉가 발간됐다. 지난 2009년 꼬라책자 발간 후, 제주 불교신문이 제주 불교문화를 정리해 제주 불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또 다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 책 발간을 위해 제주불교신문 기자들은 도내 사찰을 발로 누비며 사찰 역사와 문화재 전각 등을 두루 조사하고, 각 사찰 스님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 했다. 또한 신행 및 봉사 단체의 활동 등 사찰의 다양한 모습을 고루 실었다.

사실 제주도 불교성지순례길이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각광 받고 있는데 반해 도내 사찰들은 순례객들에게 만족스런 안내를 펼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책 발간을 계기로 제주불교계의 성지순례 인프라 구축에 한몫을 단단히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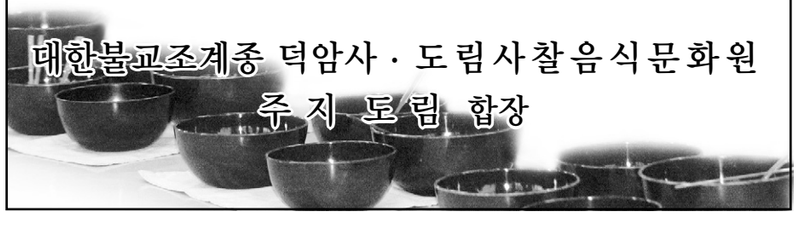
특히 이번 책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몰려오는 순례객과 관광객을 위한 각 사찰의 리플릿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취약하게 여겨졌던 사찰 정보를 크게 보강하고 앞으로는 도내사찰 홍보에도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책에는 관음정사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약천사 극락사 보덕사 대원정사 등 27개의 사찰들의 역사와 문화, 주지 스님 인너뷰 등이 소개돼 있다.

제주 불교신문은 이번 책자 발간에 뒤이어 올 하반기에도 제주사찰안내 2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모집중

「마음으로 행복한 도량」
덕암사 · 도림사찰음식
대한불교조계종 덕암사
도림사찰음식문화원

도림스님
◎ 사찰음식 전시회 및 점심 대중 공양 ◎
대한불교조계종 덕암사 · 도림사찰
음식문화원은 현대인의 몸에 유익하고 바른 먹거리를
홍보하며, 자연적인 사찰음식 문화를 보급하고자
사찰음식 전시회및 점심 대중 공양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2013 . 4 . 28(일요일) 12:00 ~ 15:00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덕암사
도림사찰음식 문화원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200번지 묘적사 입구)
• 문 의 : 덕 암 사 TEL : 031-576-1336
H.P : 010-2120-2385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설법 · 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 합 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연수안내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지도교수
[우불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불 김철회 박사 직접 지도
• 회장 김철회 박사
• 원장 처 명(선광)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 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⑦ 민족불교의 성지-선학원의 설립

“조선인끼리 운영하는 禪房 만들자”

선학원은 1921년 5월 15일 서울 간동포교당(諫洞布教堂) 보살계 계단(戒壇)에서 설립의 서막을 열었고, 그해 8월 10일 기공(起工)을 거쳐 4개월 뒤인 11월 30일 준공되었다. 서울시 안국동 40번지. 당시 기둥을 세우고 기와를 얹었던 그 자리에 지금도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설립의 직접적인 취지는 “사찰령과는 관계없는, 순전히 조선 사람끼리만 운영하는 선방(禪房)을 하나 따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지만, 1895년 승려의 도성출입 금지가 풀린 이후 거의 20여 년의 시기 동안 한국불교계에 불어 닥친 질곡의 산물이었다.

적어도 이 시기는 스님들의 도성출입이 다시 허용되었고, 한일병합으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 직후 조동종 맹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반대한 임제종운동이 일어났다. 곧이어 조선총독부가 공포(公布)한 사찰령은 한국불교를 황국(皇國)의 충실한 신민(臣民)으로 만들었다.

결국 선학원의 설립은 이 시기동안 진행되었던 일본의 한국불교 지배와 일본화, 한국불교의 친일화에 대항하여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민족불교의 정체성을 천명했던 임제종운동의 계승이었고, 한국불교 지배를 위한 사찰령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면서 출발한 것이었다.

선학원의 설립과 그 이념을 놓고 설립의 주체를 조계종이라 운운하고, 혹자는 그 시절의 선각자들이 위법망구(爲法亡軀)의 정신으로 동분서주하며 내세웠던 민족불교의 정체성이 지금과는 동떨어진 과거의 일이라고 단정해버린다. 이른바 ‘법인법’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놓고 내린 해석일 것이다. 이쯤 되면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그 시절 선각자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이 전략과 전술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이다.

일제강점기 불조정맥(佛祖正脈)을 면면히 이어 온 한국불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겪고 있었던 눈 밝은 사람이라면 승속(僧俗)을 막론하고 그 독자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였다. 선학원의 설립이 특정 종단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명칭부터 사찰령의 구속을 받지 않기 위해 고민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천박한 역사의식의 부재(不在)와 한국근현대 불교를 객관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가 아닌 사소한 이익에 기초한 인식의 결과인 것이다.

위협과 강제에 대한 저항은 본능인 것이다. 그 저항은 내방 네 방 구분하지 않고 내 집에 난 불을 끄기 위해 물통을 드는 것과 같다. 조계종의 스님이어서 선학원을 설립했고, 아니어서 외면해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포기가 빠르면 그만큼 행복을 앞당길 수 있고, 적절한 타협은 굳이 비바람을 맞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꼴통소리를 듣더라도 소중히 지킬 것은 간직하고 살아야 하고, 목숨과도 바꿀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스스로 주홍글씨를 매달고 살면 되는 일이다. 받아들일 그릇이 아니면 흘러 넘치기 마련이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기록할런지…

한편 그 시절 선학원의 설립조사들이 지키고자 했던 민족불교의 정체성이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과거와 현재가 어디 별개인가? 세련된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 그 시절의 정신은 골방에 처넣어두어도 된다는 말인가. 하기야 너나할 것 없이 다들 세계화와 다양화를 부르짖고 있으니 민족불교니 한국불교의 정체성이니 하는 용어들이 식상할 수밖에 없다. 한동안 국사해체(國史解體)를 부르짖었던 역사학계가 영토분쟁이나 동북공정(東北工程) 앞에서 침묵하고 있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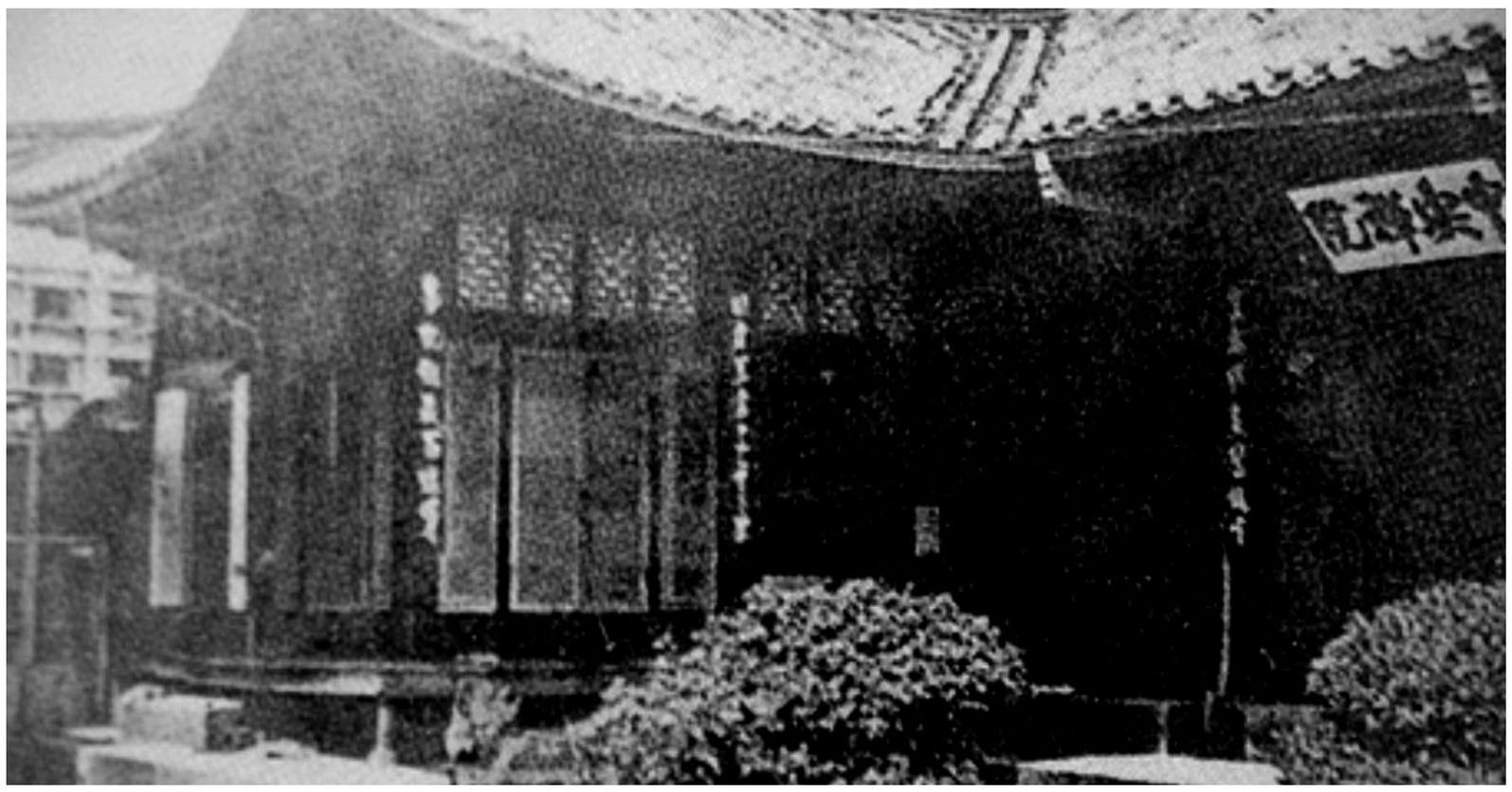
1921년 간동포교당서 서막
고승부터 궁중나인까지 갹출
현재까지 안국동 40번지 자리

‘사찰령 · 왜색화 반대’ 기치 올려
민족불교 정체성 확립 천명해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 21세기에도 민족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구시대의 유물이라면 왜 그 시절의 선각자들이 앞장섰던 운동이라든가 추모 사업을 그치지 않는가. 왜 각종 세미나와 행사에서 그들의 위업(偉業)을 잊지 말고 본받아 면면히 계승하자고 하는가. 설령 한 문중의 선양사업이라 해도 그 기초는 한국불교가 지닌 정체성과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맑고 서늘한 정신 아닌가.

부모가 없고 성장의 과정이 없다면 현재가 있을까. 명심하라. 법고창신(法古創新)과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기초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민족불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근본도 모르고 허둥대는 모습을 어둠 속에서 허깨비가 지켜보고 있다.

학자가 집안 어른을 두고 쓴 글을 평가절하했다고 발끈한 모습이나 조계종의 스님들이 선학원을 설립했다고 하여 선학원과 한국 불교가 지닌 그 위상과 가치마저도 헐값으로 처분하려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불교가 지닌 현주소다. 이것은 법인법과는 또 다른 우리 불교계가 안고 있는 원초적인 문제다. 언제부터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나부끼는 깃발이 되었을까.



1921년 설립 당시 선학원 중앙선원(中央禪院) 전경. 안국동 40번지에 위치한 중앙선원은 현재 일부 현대식 건물로 변모해 그 자리에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선학원 설립 조사들



만해 용운(萬海 龍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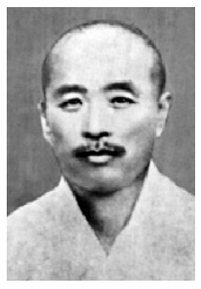
만공 월면(滿空 月面)



용성 진종(龍城 震鐘)



성월 일전(惺月 一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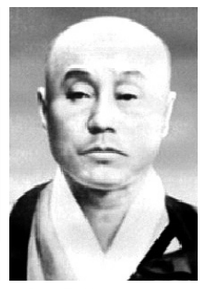
남전 한규(南泉 翰奎)



도봉 본연(道峯 本然)



석두 보택(石頭 寶澤)



초부 적음(草夫 寂音)

현재 선학원 2층 법당 왼편에는 7분의 설립조사와 1분의 중흥조가 모셔져 있다. 만해 용운(萬海龍雲, 1879~1944), 만공 월면(滿空月面1871~1946), 성월 일전(惺月一全, 1866~1943), 도봉 본연(道峯本然, 1873~1949), 남전 한규(南泉翰奎, 1868~1936), 석두 보택(石頭寶澤, 1882~1954), 용성 진종(龍城震鍾, 1864~1940), 초부 적음(草父寂音, 1900~1961)이다.

이 가운데 만해 · 용성 · 만공스님은 선학원의 설립이념을 마련한 인물들이다. 만해 · 용성스님은 성월스님과 함께 1910년 10월 6일 굴욕적으로 체결된 조동종맹약에 반대하여 임제종(臨濟宗)을 세운 주도인물들이었다. “조선의 선종은 태고(太古)이래로 임제종의 법맥을 이어왔으므로 임제종이 정당하다.”고 하여 한 · 일불교 합병 반대의 명분을 분명히 하였다. 이들은 1912년 6월 조선총독부가 임제종 포교원 간판을 내린 후 선학원의 설립을 통해 좌절된 민족불교의 회복과 그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지금에 이르러 참선을 한다는 자 10인을 놓고 볼진대 진정한 선인(禪人)은 불과 1인이며, 입과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2인, 나머지 7인은 모두 밥 먹기 위해 앉아있는 자이거나 아니면 멋도 모르고 졸고 있는 자가 대부분이다.

만해스님이 1910년 저술하여 1913년 간행한 〈조선불교유신론(朝鮮佛教維新論)〉에서 지적한 당시 불교계의 한 단면이다. 경허(鏡虛)스님 이후 선풍(禪風)이 중흥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합방 이후 소용돌이에 휩싸인 불교계의 동향과 함께 한국 선(禪)은 매우 부진했다. 선학원의 설립조사들이 사찰령에 예속되지 않은 기관을 설립하고자 한 것은 수좌(首座)들의 수행과 그 결집으로 선풍진작과 대중화를 이룩하는 것이었고, 그 결실은 궁극적으로 민족불교의 회복과 한국불교의 정체성 구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선학원 설립의 취지와 이념아래 만공스님은 소위 일본 중처럼 변질되지 않고 ‘우리만의 선방(禪房)’ 마련을 천명했고, 성월스님은 1912년 서울 인사동의 조선임제종중앙포교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헐어 약간의 목재와 기와를 보탰다. 여기에 남전 · 도봉 · 석두 스님이 막대한 정재(淨財)를 출연하였다. 당시 영의정 심순택(沈舜澤)의 부인 구지월화(具智月華)를 비롯하여 왕실의 상궁나인들까지도 기꺼이 안주머니를 털었다.

이렇게 해서 1921년 10월 4일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렸다. 스스로가 대세(大勢)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을 거스른 것이다. 이들이 절만을 위했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당시 불교계에서 눈총 받고,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설립당시 이들의 단심(丹心)은 해방이전까지 일관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일제강점기 동안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일본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정화운동을 주도했다. 어찌 보면 선학원의 역사는 설립부터 오늘날까지 투쟁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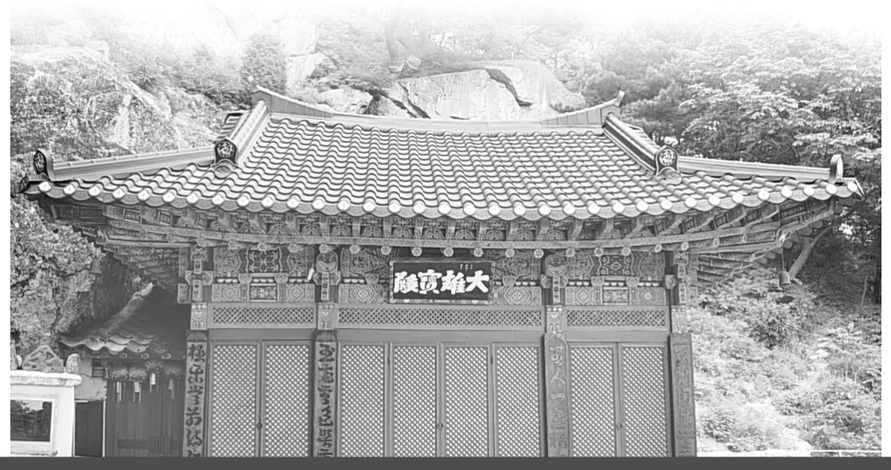
문득 김민기가 작곡한 노래 한 소절이 떠오른다.

좋은 옷 입고프냐 맛난 것 먹고프냐 아서라 말아라 군인 아들 너로다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고 나쁜 것, 예쁘고 미운 것을 따지지 말라
좋은 것, 예쁜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긴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쑥뜸방, 돌뜸방 기술지원
50년전통 011-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지역장 및 지점장 모집

– 미국 FDA승인 발명특허
– 천연 한방 발효기능 식품
– 명현 호전반응 있음
– 모든 질환 체질 유무 상관없음
* 샘플 요청시 3인분과 완치사례 우송 (소포 자부담)
(주)소마생명공학불교총괄본부
02)980-2177
011-772-2177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인 종교법인 등록 법인 아닌 법인 등록

서 류 대 행
010-9476-9001
성산개발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모든 영가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목신고통, 불안초조, 주의력 결핍, 약효가 없는분, 병명이 바뀌는 분,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 병원 치료가 어려운 분
43년 이상 된 염불 수행자
010-5912-2377

법납 35년 세납 65세인 비구입니다 불사와 기도정진 함께 하면서 수행하실 스님과 보살님을 모십니다

(충북 제천 위치와 경관이 빼어난 곳에 약 8천평의 땅과 서울에 약 100평의 포교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1억이상 투자 가능하신 분)
010-2127-4755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 예견
고민해결
전화상담 가능
대구은행 :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임)
법인불교단체 양도
법인종단 양도
불교법인 양도
011-412-8040 법광

황토 누워서 허리뜸, 훈증침대

비만,허리뜸,관절통증,사고후유증, 아토피,비염,여성질환,혈액순환, 마음은 청춘 몸은 노령,건강,행복, 장수,인간의 수명은 화 사 냉 청소. 저는 약사여래 가피력 도승원력. 암자 포교원 운영할 비구승 인연바람
011-573-443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산청 지리산 전통사찰 대원사)
055)972-806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214-0509

공양주 보살님

(50~60세)
모십니다
(북한산성 입구)
02)387-3216

부전 스님 모십니다

010-7223-7893

스님을 찾습니다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병산리 소재 보광정사를
운영하시던 스님입니다
법명 : 자견 (自見)–다리 장애인
연락주시면 사례합니다
010-2953-8770

원력과 신통력

•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구 직

공무원 34년 정년퇴직,
사찰근무경력 3년
자동차 운전면허 1종 소지
신심으로 일하겠습니다
011-716-5885

석조 비로자불 (고려시대불상) 개인 소장 불상 꼭 소장하실 분만 연락주세요

010-3591-7761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경북 영주)
010-9169-6669

비구니 주지스님 및 비구니 초보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모십니다

(경남 거제)
010-7169-9878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경북 봉화 청정기도 수행도량 산중계곡물 상구보리. 하화중생 여생을 함께할 비구니 스님 2분을 모십니다 보시금도 드립니다

010-6370-6769
010-6227-6510

조그마한 절입니다 절 운영하실 스님이나 기도스님 모십니다

(포항 흥해읍)
010-3194-7969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호주, 이스라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요일 저녁반, 화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불사용(佛事用) 달마도 보급안내


규격 : 40 cm × 60 cm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 친필 달마도를
정성껏 저렴하게 그려 드립니다.
보급처 051)202-8770. 010-2953-8770
부 산 청 암 달 마 원
*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합니다.

영기선원 cafe.naver.com/youngkihak



氣 회로
공부의 모든것
053)623-2202. 010-5159-5778
TV다수출연 (대구 남구 대명동)
네이버 블러그 : 한마음 세성제

사찰 운영에 고심이 많으신 스님들께 한 소식 올립니다

❁ 절에 신도가 줄었다.
❁ 한번 온 사람이 다시 오지 않는다.
❁ 절 살림이 어렵다.
❁ 부처님 호상이 前전 같지 않다.
❁ 천도재를 지내고 성불보기 힘들다.
❁ 법당에 기운이 썰렁하다.
❁ 법당에 도둑이 들거나 잔손이 탄다.
❁ 주지스님이 건강이 나빠진다.
❁ 스님이 마음이 떠서 밖으로만 돈다.
❁ 공양주가 붙어있지 않는다.
❁ 사찰을 매매하고 떠나고 싶다.
이런 문제가 있으신 스님들께서는 좋은 처방비법이 있으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41)943-6882 / 010-4233-7099
전 화 白超律曆學堂

한국불교 전통 의식대학 제1기 신입생 모집

강 의 내 용
– 안채비 : 각종 불교의식, 49재 천도의식, 점안의식, 신중작법, 평염불, 상주권공재, 시왕각배재, 영산재 염불, 짓소리, 긴소리.
– 겉채비 : 바라춤, 천수바라, 도량게작법, 사다라니바라춤 등
– 사물다루는 법

모 집 대 상
–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 포교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
– 염불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 재가불자

2학년 4학기 과정
◐ 개 강 일 : 불기 2557년 4월 6일(토) 오후 2시
◐ 교육기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제출서류 : 입회원서 1통 (본 교육원에 비치)
반명함판 사진 2통
◐ 교 육 비 : 매월 ₩ 100,000
◐ 문 의 :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전 화 : 051)442-1818 교무국장 011-837-5701
◐ 교육강사 : 부산지방 무형 문화재 제9호
이수자 혜 철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좋은인연 대출안내



33년의 역사와 자산825억원의 형산새마을금고는 변함없이 전국의 많은 사찰과 좋은인연을 맺고 있으며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어 좋은 인연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대출이자 ☞ 1억 대출시 최고 58만원
❷ 대출기간 ☞ 5년 (만기시 연기 가능)
❸ 근저당설정비 ☞ 면제
❹ 대출지역 ☞ 전국 (제주도포함)
❺ 단체명의, 종단 소속사찰 모두가능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극락선원 학인모집

• 과정 : 불교총전강의 (한치앞을 내다 볼 수 있는 지름길)
종단과 승속과 관계없이 불교총전강의에 관심있는 분은 참여바랍니다.
• 모집인원 : 선착순 10명 • 기 간 : 6개월
• 월회비, 교재비포함 : 3만원
• 개강일시 : 2013년 4월 20일 ~ 4월 21일 (양일간)
• 시 간 : 오후 2시~ 5시까지
문의사항은 극락선원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011-9588-0998 / 010-5308-0876

자성주(靈珠) 수익사업 공고

선망 조상님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을 혼합하지 않고
섭씨 2,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아름답고 품위있게
고인의 유골을 自性珠(구슬사리)로 생성하는 기계입니다.
납골사리 1기당 150만원. 지사 및 사업동반자 환영
1899-1042. 010-3679-1080
(주)보은의 사랑

비구니 스님 50세 이하 모십니다

(초심자 무관) 삼년 후 주지 임명
여행자 출가를 결심한 45세이하
삼년후 소임부여
(강원 원주)
011-369-3859

불 자 정 보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나간 것을 좇아가지 말라. 오지 않는 것을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잘 관찰해 보면 순간 순간 변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를 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 중부경전 -

삼 보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서울
- 법당 : 40
- 요사 : 30
- 대지 : 100평
- 산신각,건평 150
- 가액 : 15억

- 위치 : 경산
- 법당 : 30
- 요사 : 50*2동
- 대지 : 300
- 종각,가액 5억

- 위치 : 의정부
- 법당 : 28평
- 요사 : 28.방4개
- 옛날구옥2채
- 1.3백/70권리금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해안
- 법당 : 13(목조단청)
- 산신각 : 5(목조단청)
- 요사 : 30평
- 부지 : 440평
- 가액 : 1억8천

토 굴
- 위치 :대전
- 법당및요사:35평
- 부지:700평
- 가액 : 2억 5천

사 찰 터
- 위치 :충북 단양 (구인사 부근)
- 부지: 18,000평
- 가액: 평당 2만원 특급 명당터 차량진입가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약 2.700
- 법당 약 40평, 요사채 60평 주지실30평
- 산신, 노천불, 대형버스운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양도가액: 12억

토 굴 안 내
- 총부지 : 970평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가액: 1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보령시 남포 저수지 앞
- 법당, 산신각, 요사2채
- 개금, 탱화 불사 새로 하였고 손볼곳 없는 완벽한 도량
- 즉시 입주가
- 가액: 5억

041)934-8497
010-4222-6825

사 찰 안 내

- 위치: 영덕군 영해면
- 평수 : 73평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가액: 9천만원

010-2510-0955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제천
- 시내 중심가에서 포교하기 좋은 사찰
- 법당 48.7㎡, 요사채 59.5㎡대지 251㎡
- 목조로 완전히 리모델링하였음
- 스님이 연로하셔서 부득이하게 양도
- 가액: 1억 7천만원

010-3426-9393
010-7347-1010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큰 대로변 상가 3층
- 평수 30평, 등 200개, 인등 200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벽

010-2126-252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청학 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스님, 법사, 보살님 적합함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2층 : 법당과 스님방

010-3732-5237
051)412-04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로변
- 2층 75평
- 전세 500만원 월 60만원
- 공양간, 찜질방
- 3층 75평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법당, 산신, 관음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071-3718

사찰터안내

- 위치: 경남 합천
- 미륵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아늑하고 풍광이 수려한 보궁터
- 평수 1600평
- 가액: 1억 2천만원

010-8828-11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송현동
- 평수 30평, 3층. 대도로변
- 보증금 1천만원 / 월 55만원
- 시설: 아미타불, 지장불, 관음불, 후불탱화, 산신탱화, 인등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6205-663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천 소재. 남김천 대로변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건물 : 독채 32평, 개인 등기 필
- 대지 : 도지료 연 35만원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좋은 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 생활 편리함
- 가액 : 6천 3백만원 시설비 2천 4백 5십만원 절충가능

010-7295-1259

포 교 원 안 내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큰시장옆
- 4층건물의 4층 약 55평, 법당 30평
- 삼존불, 신중, 칠성, 용신
- 법당 옆 큰방1칸, 작은방 1칸
- 정원 약 10평 법당 앞
- 총가액: 4000만원, 2000만원 달세 30만원

051)527-5688
011-9501-5188

불교용품 전문점

- 위치: 서울 급 양도함
- 점포 30평
- 창고 20평
- 가격은 상담 후 결정 현재 성업중
-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4055-1214

수행하기 좋은 암자 안내

- 위치: 경북 영양군 속보면 택전1리 160번지
- 대지 250평(종교부지),조립식건물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창고2, 산신각 • 일체 시설 완비
- 가액: 8500만원

010-4040-3588
054)682-8780

암 자 안 내

- 경산시 와촌면 팔공산 뒷 갓바위 입구
- 대지 92평, 건평 32평 경량철골 판넬 인법당
- 완전 올수리 리모델링
- 청동 아미타불, 관세음, 지장보살, 삼존불 상단후불탱, 신중탱, 산신탱, 소불60불
- 가액: 1억 3천 5백만원
- 주차장 텃밭, 별도 월 5만원씩
- 꼭 하실분만 전화주십시오

017-808-2543

포 교 원 안 내

- 양산시 북부동 동양산 농협 옆
- 평수: 90평, 방5개, 법당 35평
- 삼존불, 산신용궁, 영가단, 후불탱화, 소불 206불
- 전세 4천 5백만원 / 월 50만원
- 시설비, 비품 5500만원

010-8384-7754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수성 지하철 입구
- 2층 약 30평(완벽한 시설)
- 위치, 환경좋음 (포교,상담,법회)
- 몸만 오시면 됨, 불사관계 양도
- 특히 비구니스님 최적
- 시설비+보증금 2,000만원, 월50만원 (상권 최고지)

010-9690-827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 대지 97평
- 건물 20평
- 대출 1천 1백만원
- 가액: 3천만원

010-4601-1255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우암동
- 대지 : 56평
- 건물 : 2층(33평) , 부처님 도량 1층 : 35평(요사채)
- 영도 고갈산을 마주한 기도도량
- 몸만 들어오셔도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3억 5천만원

010-7723-7884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각남면 화리
- 임야(산) 8250평
- 옛 화전터
- 가액 : 8천만원

011-9583-3107

토 굴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 한옥 대지 75평 독채
- 방5개, 넓은 마당, 욕실 거실 완비
- 법당, 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700만원

010-4056-5677

현재 전원주택 노인 요양원 적지
땅을 알고 터를 잡으세요

- 위치: 경남 사천시 사남면
- 주택: 스틸하우스 (29평)
- 대지: 554평, 정남향(명당터)
- 가액: 1억 9천 5백만원

011-9517-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산외면
- 대지 약 200평
- 법당 약 30평
- 요사채 약 30평
- 좌불, 약사여래불 15자
- 입불, 관세음보살 15자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 가액: 7500만원

010-2590-309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경북 과학대학 근방
- 부지 2500평, 건물 70평
- 방6개, 폭포수 가까이 있음
- 경관 화려함
- 고사리 약 800평
- 가액: 3억 7천만원 (융자 1억 6천 포함)

011-556-5507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 평수 50평, 2층건물중 2층
- 가액: 2천 5백만원
- 삼존불, 관음불, 소불, 각단탱화
- 방1개, 화장실3개, 옥상지하사용가능
- 최고시설, 비품완비, 즉시법회가능

010-2842-653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시 양산시장옆 2층
- 40평 시설최고 방2개
- 보증금1천만원.시설비 2천5백
- 삼존불.신중.지장.칠성.산신.탱화
- 비품일체 몸만오시면 법회함

010-8774-20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 평수: 대지 150평, 대웅전 포함 건물 6동
- 낙동강 산자락이 보이며 아파트단지가 있는 전망 좋은 위치
- 양산 제 2 신도시 건설중
- 가액: 1억6천만원

010-7749-7090
055)383-70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응암 3동 대림시장 맞은편
- 버스 정류장 앞, 4층건물 3층, 2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독성탱
- 에어컨 2대 포함 집기 일체,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8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010-3209-0408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내이동
- 시외버스터미널 앞
- 평수 50평, 방3, 부엌1, 화장실2
-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8불, 관음보살소불 108불
- 시설비 3천만원 • 법회가능

010-2914-3534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보은군 산외면
- 대지 약 200평, 법당 약 30평
- 요사채 약 30평
- 좌불, 약사여래불 15자
- 입불, 관세음보살 15자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 가액: 7500만원

010-5419-76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남구 용호동
- 시장통 사거리 ,위치 좋음 1층
- 법당, 삼존불, 산신, 신중, 후불탱화 다 맞춤
- 방1, 다락2개,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약 20평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1200만원(답사 후 절충)

010-2590-3095

사찰터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 대지 175평
- 법당 17평, 아미타도량, 삼존불, 산신, 용왕
- 요사채 20평
- 가액: 9천 7백만원 (시설비 포함)

010-8503-57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 IC 10분거리
- 구체적인 것은 전화상담
- 가액: 1억 5천만원(임대가능) (대출 5천5백만원)
- 실양도가 9천 5백만원

010-4910-6358
010-4572-1766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3평, 방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톤 일급수 CC카메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가액: 3억 5천만원(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 장난전화사절 ※

010-9338-0118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종교용지 : 150평
- 법당 : 40평
- 요사 : 40평
- 양도 : 15억5천

- 위치 : 전남토굴
- 부지 : 22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가액 : 5천만원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1700평(대웅사) 병산리, 산 168-2번지 4,130평 (총 5,830평)
- 건물, 대웅전1동, 요사채(1, 2층) 1동, 기도방 1동, 승방1동
- 입주조건 : 양도 또는 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 (조건 및 금액 결정)

010-4225-0012
02)403-333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예천군 상리소재
- 옆에 물 좋은 개울이 있고
- 연못에는 연꽃이 있는 청정지역 총 1,000평 (대지포함)
- 매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있음
- 가격: 3억 (꼭 필요한분에게 가격조절가능)

011-861-6252

수행 정토 터(부지)

- 위치: 경북 영주 시내에서 15분 거리
- 산에 위치하나 지목이 밭으로 관리지역임(200m 위치)
- 산 정상까지 묘, 송전철탑 등이 전혀 없음
- 영구포란형(靈龜抱卵形)으로 백두대간이 보이며 전망 경치가 좋음
- 도로(주차장포함), 전기, 부지 정리 완료
- 11년생 금강송 9백그루(3억 상당) 무상 양도
- 총 5,300평(평당 7만원) (필요하신 분만 금 , 토 ,일 중 방문 요)

016 - 573 - 2032

사찰터(급) 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신녕면 왕산1리
- 한곳에 붙어있는 6필지 3천평
- 가옥60평, 컨테이너 창고, 화장실 각1동씩
- 주변 경관은 보기힘든 좌천룡 우백호가 뚜렷이살아있고 학자가 나온다는 감투봉을 마주보는터,청화대 뒤 배경과 같은 터로 써 특별한 인연이 아니고써는 구하기 힘든 곳으로 사찰불사나, 기도처로는 최적지 인 소쿠리터 임
- 가액 : 5억

010-6253-3107

포교원 안 내

- 위치: 부산 남구 용호동
- 법당 30평, 주방, 침실 20평
- 삼보전, 지장전, 칠성전, 신중전 5존불 모셔져 있음(소불 44분)
- 인테리어 새로 단장(3월 10일 부처님 점안)
- 본 포교원을 운영하실 참된 스님을 찾습니다
- 전세 500만원 / 월세 60만원 시설비 방문 후 절충

010-3036-7678

포교원 또는 명상센터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 평수 : 40평, 4층 건물에 2층
- 법당, 방3개, 부엌, 화장실, 도시가스 완비
- 보증금 2,000만원, 월1 20만원
- 시설비 3,000만원(출국관계로 급양도, 조절가능)
- 조용하고 깨끗하며, 모든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714-3922

포교원(급)안내

- 대구 북구 대현동
- 4층건물중 4층(총65평)
- 법당(25평) 방2, 화장실 거실,공양간(옥상사용가)
- 삼존불, 영단, 탱화 (산신, 용왕, 신중)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3003-7299

지리산 토굴안내

- 구례 지리산 온천 부근 토굴
- 산속 475평 산수유나무사이에 20평 현대식 건물
- 화엄사TG에서 10분거리, 구례읍 15분, 남원 15분
- 마을에서 500미터거리, 아주조용
- 스님 두세분이서 수행하시면 좋음
- 토지 앞 마르지 않는 샘 2곳
- 양도가액 : 1억 9천만원

010-7242-0993

사 찰 안 내

- 현재 사찰 운용중 (다용도 (사용) 가능)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덕정리 (약수터내)
- 대지 197평 • 건물 2동
  1. 건평 98평 2층건물 (방11칸)
  2. 70평 1동 - 법당 약 30평 (공양 15평) 식당 15평
- 시설 : 아미타불, 관음, 약사, 지장 , 소불 후불탱화, 지장, 신중 삼선각(칠성, 나반, 산신)
- 양도가액: 2억 8천만원

010-3170-0183

마음은 어떻게 오작동하는가

카루나 케이턴 (심리치료사 · 미국)

〈5 · 끝〉 마음공부 하는 '평생 학생'

"욕망은 '빈곤한 정신' … 자신의 보폭 조절하자"

마음 다스리고 내면 집중하기

마음 오작동을 바로잡기 위한 쉽고 효과적인 마음 훈련을 위해서는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에서 자신의 결점에 대해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 본다. 골프에서 가장 흔한데, 골프 경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한 번은 마음이 흔들린다. 좋은 선수일수록 그 정도가 덜하다. 실력이 좋아 좋은 점수를 기록할 거라고 기대한 선수들이 가장 심하게 마음이 흔들린다.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이 큰 것이다. 이는 마음훈련에도 정확히 그대로 적용된다. '아장아장 걸음마'에 만족하면서 자신에게 너그러워야 한다.

대개 어지러운 마음은 '바깥 어딘가'에서 생기는 게 아니다. 우리가 충동과 생각,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만 일어난 일이 어지러운 마음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인 불편한 정서를 다스릴 줄 알면, 삶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던지는 온갖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 훨씬 더 쉽게, 정신적 평온을 해치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다. 물론 숙련되기까지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살펴는 보되 평가는 하지 말자. 그저 주의를 기울여 약한 부분을 찾아내는 일부터 하면 된다. 약점이 파악되면 더 집중할 곳도 자연히 드러난다. 놀랍게도, 무언가에 관심을 두고 몰두할 때는 어떤 것도 나의 집중을 흐트러뜨릴 수 없고, 좋은 기분에 생채기를 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훈련을 하면 더 오래 집중한 채로 있을 수 있고, 원할 때 집중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도 익힐 수 있다.

이제 자신의 하루 업무를 생각해보라. 쌓여 있는 일을 모조리 끝내버리고픈 마음이 간절할 대 어떻게 하나? 사무실 문을 닫아걸고, 회의를 취소하고, 전화기를 꺼놓고, 이메일과 인터넷을 꺼버리고, 타이머를 맞추어 놓는가? 일이 끝날 때까지 그 일에만 집중하는 업무 삼매경의 시간이 필요한가?

실제로 직장에서의 주의 산만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소로 꼽힌다. '방해 과학(interruption science)'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겼을 정도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사실은 여러 활동 사이를 이리저리 건너다니고 있다고 한다. 컴퓨터 앞에서 일할 때를 예로 들어보자. 업무 중 띄워놓은 컴퓨터 창들을 이리저리 클릭할 때, 창 하나에 평균 20초를 소비한다고 한다. 원래 업무에 들이는 시간은 그중 40%, 나머지 60%는 주의 산만 속에서 헤매는 시간이다. 우리는 대개 이메일 여러 개를 열어두고, 윈도우 창도 여럿 띄워둔다. 그러다가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딩동' 하고 들리면 무슨 메일인가 확인하고, 재빨리 페이스북을 클릭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쌍무지개가 떴다고 포스팅한 누군가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유튜브에 들어간 김에 그날의 최고 인기 영상까지 확인한다. 이쯤 하고 나면 훌쩍 10분 정도가 흘러가 있다. 그러고는 몇 분 후 휴대전화가 진동을 한다. 계속 이런 식이다.

현대문화는 산만하도록 설계됐다. 그게 자본주의와 광고의 기본 원리이며, 현대적 삶의 보편 '철학'처럼 보이기도 한다. 쾌락과 즐거움이 제일 중요하고 '새롭고, 더 좋고, 더 많은' 것보다 즐거운 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욕망은 욕망만을 영원하게 할 뿐이다. 우리가 만족할 거리를 찾는 한, 광고인들은 새로운 욕망을 만들려는 태세를 갖출 테고, 우리는 늘 그 욕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흑백텔레비전만으로 행복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제는 고화질 평면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지상파 채널에다 수십 수백 개 케이블 채널을 맘껏 보고 싶어 한다. 솔직히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린다는 이유로(그 덕에 더 많은 곳에 정신을 뺏긴다는 이유로) 10년, 20년 50년 전보다 지금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에서부터 집중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사소한 것을 좇는 마음 4가지

티베트 불교 문헌인 〈람림(Lam Rim)〉을 보면, 인간이 여덟 가지 사소한 것을 좇으며 삶을 보낸다고 말한다. 이 여덟 가지를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묶어 '네 가지 사소한 좇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풍요를 좇고 결핍을 피한다: 여기서 마음을 어지럽히는 주된 요인은 '더 가지려는' 욕망이다. 이 욕망은 많은 이들의 삶에 크게 자리 잡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요인이자, 대부분의 기업에는 목표 자체이기도 한다.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부작용을 동반한다. 일상에서 대부분이 수입이 늘었으면 하고 바라며 산다. '최고 수준'의 부자가 되는 것까지는 원치 않더라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많이 갖길 원하도록 사방에서 들쑤신다. 결국 오늘날 수많은 사람에게 '부자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됐다.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교육을 많이 받아서 좋은 직장을 얻은 다음 부자가 되는 것, 즉 '출세' 하는 것을 지상목표로 삼으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음악, 텔레비전, 영화 등 온갖 매체를 통해 아주 어릴 때부터 들으며 자란다. 충분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배운다. 온 세상이 넘치게 많은 걸 추구하라고 필요한 것보다 많이 쟁여놓으라고, '탐욕은 좋은 것'이라고 부추긴다.

'탐욕'을 뒤집으면 '빈곤한 정신'이 된다. 가난한 두려움에 압도당한 상태로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욕망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런 '빈곤 의식'은 재력이나 수입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은 인색하고 쩨쩨하고 옹졸한 태도로 드러난다. 또는 충분히 가지지 못할까 겁내고 근심하며, 나누고 쓰는 데 지나치게 조바심을 내고, 가진 것을 쌓아놓고 지키려 안달하기도 한다. 마음을 내려놓지도, 가진 것을 누리지도, 남들과 너그러움을 나누지도 못할 만큼, 마음속 빈곤의 영토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디지털 TV시청 한다고
흑백 TV 볼때보다 더 행복한가

'불편한 정서 다스리기' 훈련 필요
'우리' 모두의 안녕에 집중하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건 결핍을 두려워하는 감정이지, 진짜 가난이 아니다.

풍요와 결핍이 어째서 마음의 상태인지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찾아가 보는 것이다. 그들이라고 다른 나라에서 넘쳐나는 물질적 풍요를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았다. 누군가와 만날 때, 또는 친구와 점심을 먹을 때라도 한번 주의를 기울여보라. 혹시 상대가 줄 수 있는게 있나 찾고 있는지는 않는가. 사는 게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형편에 만족하고 기꺼이 가진 걸 나누는가.

②순간의 쾌락을 좇고 불편함을 피한다: 즐거움이나 쾌락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다. 따라서 불편한 정서의 기운이 감지되면 얼른 경고의 붉은 깃발로 인식해 마음훈련을 하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자신과 자신의 습관을 살펴보고, 자신이 어떻게 행복을 찾는지 주의를 기울여보자. '집착'의 정도를 알아보려면 그 즐거움을 거부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가늠해보면 된다. 이렇게 자문해보자. "나는 즐거움을 통제하고, 따라서 내 삶 또한 통제하길 바라는가? 아니면 즐거움에 나를 맡기고, 나를 이끌도록 내버려 두고 싶은가?" 스스로 삶을 통제하길 바란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자신을 지배하는 쾌락의 욕망에 용감히 맞서, 쾌락을 좇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족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마음 하늘의 구름이, 숨어 있다가 들킨 사람처럼 황망히 흩어지고 어느새 사라질 것이다.

③칭찬과 찬사를 좇고 비판과 비난을 피한다: 이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나'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비추어준다. 칭찬을 듣고 싶고 비판받길 꺼리는 것은 스스로 볼이냐 스트라이크냐 판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 판정은 오로지 마음에만 존재하는 관념이다. 판정을 하는 '나'도, 판정 그 자체도 진짜 현실이 아니라 단지 마음에서 붙이는 이름표일 뿐이다. 그런데도 매일같이 늘 이런 식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찬사를 좇고 비판을 피할 때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자꾸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익숙해져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휘둘리는 마음을 다스려 행복을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④좋은 평판과 명성을 좇고 악평과 불명예를 피한다: 칭찬을 좇고 비난을 피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나'에 대한 의식,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어떤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말보다는 스스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좌우된다.

건강한 자기 이미지를 갖는 것,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자존감을 지니고 자신이 이룬 일을 인정 받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건강한 자기 이미지는 삶에 건강하게 접근할 때 따라오는 부산물이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는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내 모습을 끊임없이 더 좋게 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하는 태도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길 원하든, 그건 진짜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지닌 어떤 정체성도 변할 수 있고, 변하는 상황의 산물이다. 따라서 그 무엇도 진짜로 지속될 수는 없다. 우리는 좋은 평판을 들으면 즐겁게 받아들이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삶의 다른 부분으로 퍼지지도 않는다는 걸 알면 된다.

그러므로 더 나아지려 애쓸 때 '우리'의 안녕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다. 다른 사람의 안녕을 나의 안녕과 함께 생각하면 '남의 시선을 아예 신경쓰지 않아서' 저지를 수 있는 잘못된 길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무지, 괴로움의 근본 원인

'무지'야 말로 우리가 겪는 온갖 문제의 근원이다. 마음의 본성에 대한 무지, 자아 또는 정체성의 관념에 대한 무지가 진짜 문제다. 이것을 깨닫지 못해, 맞닥뜨리는 상황에 반감이나 집착이라는 정서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거꾸로 말해서, 현실이 진짜 존재하는 방식, 자신과 만물의 상대적인 본성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런 정서적 장애를 바로잡거나 해결할 수 있다. 자신에게 불편한 정서를 발견할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첫째는, '내려놓고 싶지 않은 무언가에 매달리거나 집착하고 있는가?' 오랜 경험에서 생긴 각별한 의미 같은 것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행동하며 사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경험이라면 더욱 그렇다.

두 번째는 '무언가를 피하거나 벗어나려는 중인가?'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인 셈이다. 그런데 이게 자신의 불편한 정서라는 걸 알지 못하면, 화와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퍼붓되된다. 헛된 짓이다.

세 번째는 '무지는 어떻게 현실을 왜곡하는가?' "우리는 있지 않는 것을 보고, 정작 있는 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격언을 떠올려보자. 내 앞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은 내가 생각하거나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내 눈앞에서, 모든 감각에서, 심지어 생각에서 일어나는 경험에다 온갖 종류의 가정과 예상, 왜곡을 겹쳐버린다.

마음훈련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중 하나는 자기 비난에 사로잡히거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따라서 자신의 보폭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야 한다.

탓할 거리를 찾아 비난하는 성향을 극복하려면,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마음을 갈고닦아야 한다. 배우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오만과 우월감을 바로잡고, 삶에 겸손한 자세로 다가간다는 뜻이다.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심리상담사이자 스승이 되고 싶다면, 제멋대로이며 건강하지 못한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면, 자신의 마음을 공부하는 '평생학생'이 돼야 한다. 사실 내 마음이야말로 영원히 흥미로운 공부 대상이다. 고정된 '나'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배우는 사람'이 되야 한다. 그로써 문제를 행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북돋움'에서 펴낸 〈마음은 어떻게 오작동하는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불자정보 935호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양방향 대로변 • 1층건물
- 법당, 방3, 주방1
-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용신
- 정원 10평
- 전세 15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도심 속의 산중같은 포교원

010-4733-3398

암자(급)안내
- 위치: 충북 보은군 마로면
- 대지 410평
- 인법당, 심야전기보일러
- 텃밭 주차장, 진입로 포장완료
- 주변 축사없음, 마을 교회 없음
- 수세식 화장실
- 가액: 1억 3천 5백만원

043)543-7928

전원주택 수련원적지
- 위치 : 경북 상주시 낙동면
- 대지 5천평
- 특징: 300미터 고지로서
- 청정계곡을 접해있음
- 2차선 등산로 접해있음
- 가액: 5억 (가격절충가능)

010-3135-7287

사찰안내
- 위치: 포항시 해수욕장 방생지
- 대지 약 700평
- 총건물 120평(목재건물)
- 1층 요사채 60평, 2층 법당 60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가격절충)

054)261-1104

종교부지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종교부지, 사찰부지 2천평
- 시유지 230평
- 건물 35평
- 평당 15만원

010-6479-1425

아담한암자안내
- 위치: 울산 야음동
- 건평 130평
- 한옥3채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2345-5558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 총 413평, 대지 300평
- 대웅전, 목조기와 25평, 요사채 25평
- 컨테이너 1동
- 대출 7천만원 안고 1억 9천 5백만원
- 계곡물 흐르고 조그마한 연못있음
- 식수는 지하수

010-8794-1257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웅전, 칠성, 산신, 용왕각
- 요사채 2동
- 아파트 단지 도심 사찰
- 먼 바다 보이는 좋은 전망
- 대지 390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0-5346-4138

농촌지역주택
- 경북 영양읍 계곡 접한
- 건물 총 6동 대지 302평
- 다용도 8500만 주소공개
- 전화 상담 환영

개인010-8899-8899

절터안내
- 위치 : 부산시내요지(명당)
- 대지 527평
- 요양병원 가능
- 시세 60% 가격
- 가액: 14억 5천만원

010-8676-2278

암자안내
- 위치: 영천시 금호읍에서10분거리
- 연못 옆 암자
- 법당, 거실, 방3, 주방, 화장실
- 106평
- 가액: 8,500 ~ 9,000만원

010-3071-8199
011-812-1363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한방문헌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60겁 동안 몸을 아끼지 않고 보시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15)

부처님의 성불

부처님이 아난에게 부처님의 전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과거 세상에 바라(波羅)왕이 다스리는 우바라월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에는 음탕한 여인이 있었는데 얼굴빛이 곱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우연히 남의 집에 갔다가 아이를 낳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어미가 갓 난 제 아들을 잡아먹으려 하는 것이었다. 음탕한 여인이 그에게 연유를 묻자, 애기 엄마가 대답했다.

"내가 너무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음녀는 아이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자면 애기 엄마의 허기를 해결해야 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당신에게 밥을 구해다 주겠소."

애기 엄마가 대답했다.

"당신이 문을 나가기도 전에 나는 굶주려 죽을 것입니다. 당신을 기다리지 못할 것입니다."음녀는 생각했다.

'만약 아이를 빼앗아 데리고 가면 애기 엄마는 굶어 죽을 것이고, 만약 내버려두면 아이가 죽을 것이다. 둘 다 구할 방법이 없을까.'

음녀는 자신의 두 젖을 베어 그에게 주며 먹게 했다. 애기 엄마가 음녀의 육신을 받아먹었고, 애기 엄마와 아기 모두 살게 되었다.

음녀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 남자가 음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는 음녀를 보자마자 놀라며 말했다.

"누가 그대의 가슴을 베었는가?"

연유를 알게 된 남자는 비참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는 음욕심이 들지 않게 되었다.

"여인이여, 그대를 만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었는데 그대로 인해 음욕심을 잃게 되었으니 불쌍한 나에게도 무언가 지성을 보여 주어야 하지 않겠소?"

음녀는 말했다.

"실로 정성이 지극하다면 가슴이 원래대로 돌아오리라."

그러자 그 자리에서 바로 가슴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석제환인이 이 음녀가 보시하는 공덕을 보고 바라문이 되어 그 여자의 집에 갔다. 음녀는 금으로 만든 발우에다 밥을 담아 바라문에게 주었다. 바라문이 발우를 물리며 받으려 하지 않자 여인이 물었다.

"도인께서는 무엇 때문에 공양을 받지를 않으십니까?"

바라문이 대답했다.

"밥은 필요 없습니다. 그대는 가슴을 보시했다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바라문이 다시 물었다.

"그때 그대는 가슴을 보시한 것이 후회되지 않았습니까?"

음녀가 말했다.

"만약 제가 지극한 마음으로 가슴을 보시한 것이고 다른 마음이 없었다면, 저를 남자의 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음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의 몸이 남자로 바뀌었다. 이때에 바라왕이 죽게 되었다. 왕을 모시던 신하들이 음녀가 몸을 바꾸어 남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생각했다.

"그 사람을 왕을 삼읍시다."

신하들은 그를 왕으로 삼았다. 그는 왕으로 옹립된 뒤에도 보시하기를 좋아하여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내주었다.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니 백성들은 왕을 진심으로 섬기며 기뻐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비록 보시를 한다고는 하나 아직 몸을 보시하지는 못했다. 몸을 보시해야 진정으로 힘든 보시를 했다고 할 것이다.'



삽화 · 강병호

왕은 즉시 온몸에 연유와 향을 바르고 산으로 들어가 바위 위에 누웠다. 그러자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몰려와 왕의 몸을 쪼아 먹었다. 생명이 다한 왕은 다시 바라문의 집에 태어났다. 어느 날, 성인이 된 그는 저잣거리에 나갔다가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보게 됐다. 그는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을 괴로움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까.'

그는 즉시 부모에게 달려가 사문이 되고 싶다고 말했으나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기에 닷새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했다. 아이의 부모는 할 수 없이 출가를 허락했다. 아들은 산으로 떠났는데, 어느 숲에 이르러 두 도인을 만났다. 이들은 5신통을 얻어서 땅바닥에 앉은 채 도만을 생각하며 백성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고행했다. 사문의 아들도 나무 아래 앉아 참선과 고행을 통해 5신통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곧 바라문의 아들의 도가 두 도인을 넘어서게 되었다. 어느 날, 도인들과 바라문의 아들이 숲에서 먹을 것을 찾다가 새끼를 밴 범을 만났다. 바라문의 아들이 두 도인에게 물었다.

"이 범이 이제 오래지 않아서 해산을 할 텐데, 굶주린 지 여러 날이어서 제 새끼를 잡아먹을까 두렵습니다. 누가 자신의 몸을 범에게 먹이겠습니까?"

한 도인이 말했다.

"제가 제 몸을 주겠습니다."

범이 막 해산을 했다. 모두 범 앞에 서자 범이 입을 벌리며 두 도인을 잡아먹으려 했다. 도인들은 두려워서 허공으로 날아올랐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말했다.

"당신의 지극한 정성이란 것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몸을 범에게 먹이겠다고 하더니 왜 날아 도망갑니까?"

바라문의 아들은 이내 칼을 가져다 자신의 팔을 찔러 피를 내고, 그 피를 범의 입에 넣어 마시게 했다. 그리고 스스로 범 앞에 몸을 던져 범에게 잡아먹혔다. 그때의 음녀와 왕이 된 사람과 바라문의 아들로서 주린 범에게 몸을 던졌던 이가 모두 바로 지금의 나다. 그리고 그때의 두 도인은 지금의 가섭과 미륵, 두 보살이다. 나는 부지런히 정진하며 60겁 동안을 몸으로 보시했으므로, 9겁을 뛰어넘어 미륵이 나기 전에 성불하게 된 것이다." (〈전세삼전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⑮



세상사, 마음에 달려있다

세상의 선입견

엘리베이터를 탔다. 왜 4층만 영어의 F로 표기했을까? 우리 절 2월 방생법회를 떠날 때도 언제나 4호차 대신 5호차로 표시한다. 여기에 이유를 묻지 않아도 나는 그 뜻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게 못마땅하다. 왜 하필이면 꼭 죽을 '사(死)'자로만 해석 하는지. 우리 한글로는 그 4를 사랑으로 표현하면 될 텐데 말이다. 그래서 한글로 숫자를 바꿔 생각 해 보았다. 1은 일하는 마음으로, 2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3은 세 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4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5는 오래오래 기억하는 일로, 6은 육바라밀의 마음으로, 7은 7×7의 49의 의미를 느끼며 8은 언제나 팔팔한 건강을, 9는 도를 구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면 안 될까? 숫자에도 마음이 있다면 죽을 '사'로 바라볼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만약 4억이란 돈이 생긴다면 그래도 그 '4'자를 부정할까. 나는 4의 글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4는 숫자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숫자이거늘 어찌 빼 놓을 수가 있을까.

요일도 풀이해 본다면 일요일엔 일찍 일어나는 생활습관을, 월요일엔 월급 받을 생각으로 일하며, 화요일엔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 수요일엔 수행의 의미를 생각하며, 목요일엔 목욕을 한 후의 깨끗한 기분을 느끼며, 금요일은 금지된 일에 자중할 줄 아는 길을 찾고, 토요일엔 토끼처럼 맘껏 뛰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나름의 글을 만들어 보았다.

'4'자를 죽을 '사' 아닌 사랑 '사'로 모든 인연들에게 보답해야

사람도 천차만별의 삶이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그래서 네가 싫다'는 것 보다 그런 인생이 있으니 이런 인생도 있는 세상살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벗어나 남을 바로 보는 시선이 되지 않을까. 요즘 봄빛이 완연하니 산에나 들에나 앞 다퉈 나타나는 자연의 묘미를 한껏 누리며 볼 수 있다. 그 여린 잎들이 제각기 경쟁이라도 하듯 얼굴을 내밀고 서로 봐 달라는 듯 나오고 있다. 어떻게 말로써 표현이 될까. 너무도 소중한 생명으로만 설명 될 뿐이다.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고 신비로움을 볼 때면 고목에 가까운 내 나이의 새싹은 어떤 모습일까 싶다.

며칠 전 카카오톡에 올라온 사진 속에 새 한 마리가 매화꽃잎 속에 입 맞추듯 찍힌 사진을 보고 향기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꽃술을 따 먹는 것 같아 사람이 아닌 새들도 봄을 즐기고 행복해 함을 보았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도 모두 모두 행복한 봄을 만져보길, 그리고 느껴보길 기도 한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나를 살게 하는 모든 음식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장한다. 하루 세끼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며 산다. 그 음식을 생각하면 그 음식이 있기까지 많은 인연들의 수고가 있었음에 늘 고개가 숙여진다. 나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무수한 인연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그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작은 것 하나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음이다. 과일을 먹을 때는 땅과 햇빛과 물 그리고 농부 등 과일을 키운 모든 인연들의 공덕을 생각하면 무심히 먹을 수 없다. 고구마를 먹으면서 땅의 고마움을, 사과를 먹으면서는 햇빛의 고마움을, 자두를 먹을 때는 농부의 고마움을 생각한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미안하고 감사할 뿐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해를 바라보며 게으르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고, 밤이 되면 달의 고요함 속에 깃든 고마움을 생각한다. 작은 풀벌레 소리도 함께 살아가는 공업 중생임을 생각하며 생명의 소중함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모두가 은인임을 알지만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때마다 그 또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스승이라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기로 했다.

봄이 오는 지금 아름다운 숲을 마음껏 거닐 수 있음은 크나큰 복이 아닐 수 없다. 이 많은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진다.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빗물이 들이칠 때도 있다. 창문을 열고 닫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닫는 일과 다를 것이 없다. 옳은 일에는 마음을 열고, 옳지 못한 일 앞에서는 마음을 잘 단속하여 바른 삶을 살아가야겠다. 작은 생각이라도 실천해야 할 일은 실천하여 나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인연들에게 보답해야겠다.

마음

마음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에 젖어 보니 마음은 물과 같은 것이었다. 물은 비로부터 만들어진, 모양도 없는 것이련만 그 물이 계곡을 타고 흐를 땐 소리도 아름답다. 그러나 홍수를 이룰 땐 악마와도 같아서 모든 것을 집어 삼키고 휩쓸어 가버린다. 물이란 아주 순하기도 하고 목마를 때 갈증을 풀어주는 감로이기도 하다.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다시 녹으면 물이 된다. 끓이면 뜨거운 물이 되고 다시 식으면 찬 물이 된다. 마치 우리 마음이란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와 같지 않는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엔 따뜻하고 편안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얼음과 같아서 쌀쌀하기 그지없고, 미워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끓는 물과 같이 화를 내고 참지 못한다. 이렇게 만남에 따라 변하는 사람의 마음은 물의 변화와 같다. 이런 저런 시비가 없는 깊고 넓은 바다 물처럼 마음도 늘 넉넉하고 깊어야 시비가 끊어질텐데….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지극히 고요하고 깨끗한 감로가 되어 누구에게나 갈증을 풀어갈 물이 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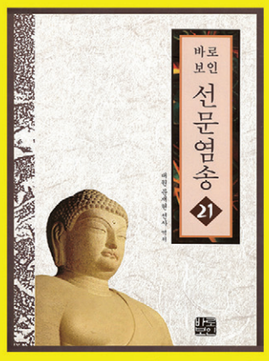
부산 연꽃모임회장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

"얼굴"만 보면 압니다!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불교TV출연 정담스님>

전국 시·군·면 100회 강연!
〈현 불교TV 출연 중〉

◉ 이곳저곳 가서 점을 봐도 신통치 않아 답답하신 분
◉ 이름이 나빠서 성공 못하신 분

◉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구상주이신 분
◉ 건강이 나쁘신 분
◉ 조상천도재로 고민하시는 분
◉ 결혼문제로 고민이신 분
◉ 가정사 어려운점, 말못하는 사연
◉ 취업이 잘되지 않으시는 분
◉ 승진, 이직을 원하시는 분
◉ 학업문제가 고민이신 분
◉ 삼재에 들어있는 분
◉ 이사, 부동산(매매) 잘 안풀리시는 분

이제 기도의 기적이 일어난다!



· 대한불교 조계종 백양사 출가
· 서울 중앙 승가대학원 졸업
· 현 대한불교 종단 총무원장
· 주요저서 : 기도의 비밀, 불교척척박사, 바늘끝에도 남이 있다

찾아 오시는 길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백련사 전화 031)673-1087
DAUM 카페 카페검색 | 치우천왕 힐링캠프

초절전형 슈퍼에너텍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10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5,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대행 스님

모든 것을 여러분 주인공에 둘 아니게 맡겨놓으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불교에 귀의한 지가 한 25년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잘 되지를 않아요, 아예. 잘 안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슨 작정을 하나 했습니다. 계획을 하나 세웠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돌장승이 애기 낳는 법을 알아야 불법을 안다.' 이런 구절이 있어서 거기에 무척 공감이 가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예정을 해 가지고요. 그런데 스님, 여기에 지도 말씀이나 편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그런데 돌장승이 어린애 낳는 걸 봐야만 되고 어린애를 낳아야만 된다고 하셨는데…,

질문자: 낳는 도리를 알아야 된다.

큰스님: 도리를 알아야 된다, 이랬죠? 그럼 지금 여직껏 말씀드린 것이 헛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돌장승 아니라 꽃나무도 애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예? 이 고목나무도 애기를 낳을 수가 있고, 돌장승뿐이 아니라 일체 만물이 다 애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육체가 탄생을 했지 정신이 탄생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는, 육체가 탄생을 해야 정신이 탄생할 수 있다. 내가 탄생을 해 봐야 장승이 어린애 낳는 도리를 알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계획을 세웠다 이 소립니까?

선생님께서 애기를 낳아 보세요, 그러면 돌장승이 애기를 낳는 도리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정말입니다. 돌장승이, 애기를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여덟 개도 낳고 마흔 개도 낳고 이래요. 그래 가지고 마흔 개가 다 그냥 하나도 됐다가, 하나가 없기도 했다가 이러거든요.

그러니 그 도리를 완전히 터득하시려면 계획이 없이 하세요. 계획이 없이 그대로, 지금 그대로…. 네? '돌장승이 애기 낳는 것도 너만이 알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가, 자꾸 돌 쪼듯이, '깨닫게 하는 것도 너고, 이끌어 주는 것도 너고,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너고, 장사가 잘되게 하는 것도 너고 못되게 하는 것도 너니까, 잘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할 수 있죠. 물을 먹어 본 사람이 물맛을 알듯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큰스님: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해야죠. 칼을 뽑았으면 하늘을 꿰어야죠. 허허허…. 애쓰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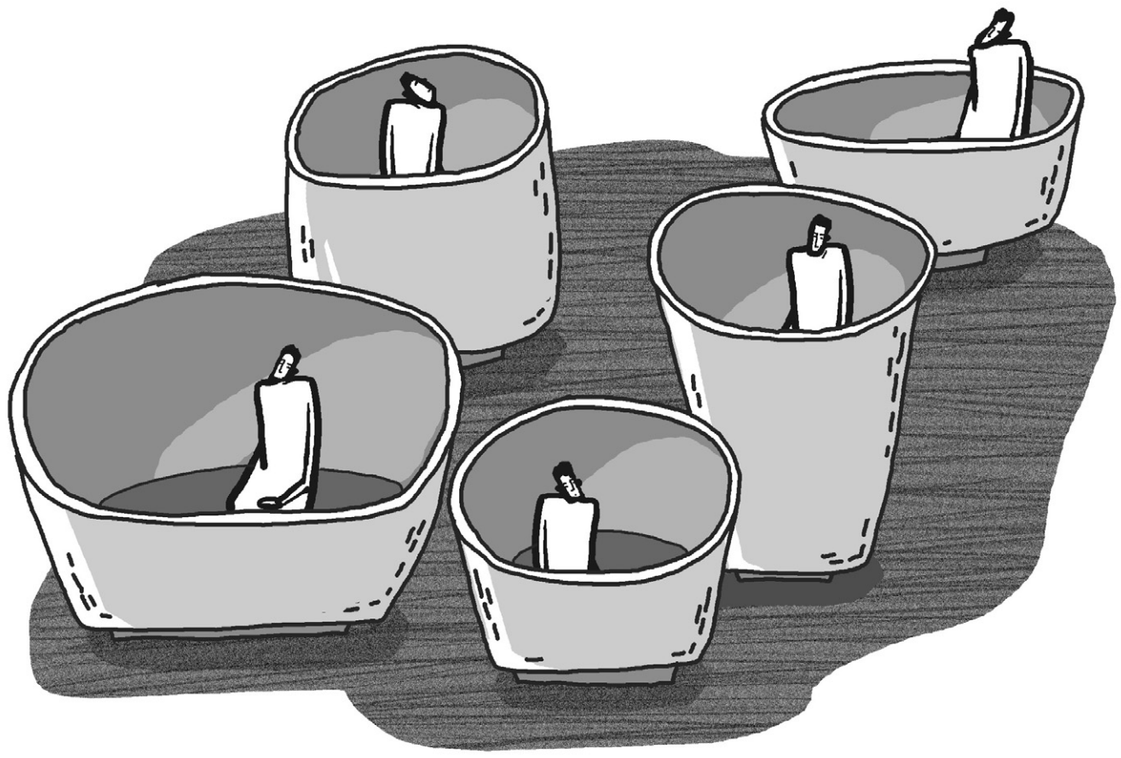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3(남): 저는 불자로서 생활하면서 부딪치는 숙제라고 그럴까, 그런 어려움에 관해서 한 말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착한 행을 하면 복이 온다 해서 항상 착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이나 나의 성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일이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인연법에 따라서, 이것이 인연이니 하고 나 스스로 나의 본성을 죽이고 저항 없이 그냥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말씀하시는 것이 똑똑히 들리진 않았지만 어슴푸레하게 듣긴 들었습니다. 하여튼 방향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맷돌축 있죠? 축을 갖다가 제대로 꽂지 않았으면 물건을 넣고 갈아도 제대로 갈려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딴 방향으로 나갑니다. 마구 그냥 쏟아집니다. 그와 같습니다. 똑바로 끼워야죠.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아래 위가 똑바로 심봉이 끼워져야 제대로 일하며, 전자와 전자줄이 한데 제대로 이어져야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로, 그대로 끼워져 있는 거니까 그대로, 저 나무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있듯이, 그대로 돼 있으니 그대로 철저하게 믿어라 이겁니다. 왜 자기 뿌리를 안 믿어요? 그렇다면 형상을 믿을 겁니까? 그래, 형상도 내 몸과 저 형상이 둘이 아니다,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과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과 둘이 아니요, 또는 부처님의 생명이 내 생명과 둘이 아니니 그저 둥글게, 모나게 하지 말고 둥글게, 일정례(一頂禮)를 하더라도 둥글려서 일심(一心)으로써 진실하게 일배를 올려도 올려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딴 데로 나가는 거는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마음내기 이전의, 내 마음의 선장을 올바로 투시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욕심대로 나가는 생각이 80%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건 3%밖에 안 되니까, 비중이 더 큰 데로 돌아가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크게 먹으려면 진짜 여기서 (염주를 들어 보이시고), 이 줄에서, 뿌리에서 그 싹을, 전체를 살리고 있으니까 '너밖에 할 수 없다.' 고 다 맡기고 심부름꾼으로만 사세요. 시자, 관리인. 사실 따지고 보면 관리인입니다, 심부름꾼이고. 따지고 보면 속의 생명들의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또 이 사람 전체 몸뚱이의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여러 생명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둘이 아니죠.

그러니 마음 쓰기에 달려 있으므로 이 몸뚱이 속의 모든 의식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아주 고정적으로 입력이 돼 있는 의식들이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바로 화(化)해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 주게 해야, 업보성 인과성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이 모두가 무너져서 내 마음 하나로 돌아가게끔 돼야 딴 데로 흩어지질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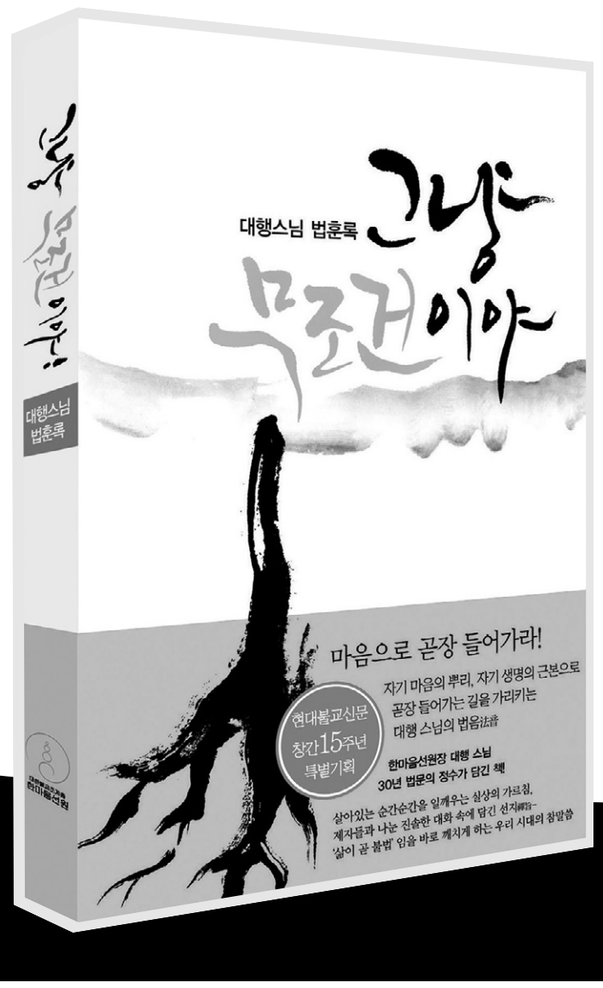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이 되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다 같이 이름해서 부처죠. 나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날까지…, 그래서 내가 그랬죠? 분수를 알아서, 내가 얼마만한 그릇이란 거를 알고 해라 이겁니다. 내가 내 그릇에 이만한 걸 담아도 손색이 없을까 하는 걸 미리 알아차려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분수도 모르고 요만한 그릇에다가 (컵을 가리키시며) 드럼통으로 하나를 갖다가 집어 넣는다면 이게 담겨집니까? 그러니까 첫째 분수를 알고,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이, 진짜로 믿는다면…, 나는 내가 하려고 한 것에서 벗어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처음에 여기 왔던 해에 김장할 다라이가 없어서 '다라이가 없으니 어떡하나. 김치를 해서 오는 사람들을 모두 줘야 할 텐데.' 하니까, 그 이튿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라이가 열 개가 들어왔어요. 왜냐? 그게 이심전심이죠. 이 모두가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내 마음내기 이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난처하게 생각 마시고요, '왜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번연히 알고도 이렇게 딴 데로 가나.' 이러지 마시고 죽든지 살든지 진짜로 믿으세요. 아니, 더 잘 살려고 아무리 해 봐도, 그렇다면 차라리 아예, (염주를 가리키시며) '이젠 너 알아서 해!' 하고, '나는 부지런히 뛰어줄게. 너 알아서 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는 게 더 상책이 아닐까요? 더 살기가 편안하고요. 이거는 내가 한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산다, 내 거다,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뿌리가 있어 나무가 있듯 자기 근본을 철저하게 믿어야

☞ 29면에서 계속

내가 망했다 이런다면 어휴, 그거 사람이 한 생 사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푹 쉬고 저 세 살 먹은 애, 다섯 살 먹은 애가, 학교에 다니는 애들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믿고 그냥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보세요. 그리고 책이 없어도 '아, 아버지가 사 줄 테지.' 하고 말이에요. 공책이 없다면 '공책이 없어, 아버지!' 그러면 사 주듯이, 이렇게 편리하게 사세요. 그러면 딴 방향으로 안 갈 겁니다.

질문자3(남):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부처님이 되어야 상대도 부처님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분별심이 없어지지 않고 잠재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대인관계에서 큰 손해를 보고, 급기야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것이 시발점이 돼서 종교를 믿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 (염주의 매듭 부분을 가리키시며) 와 가지고 여기를 한번 뛰어넘어서…, 이게 말하자면 생사에 관한 건입니다. 물질세계에서 이리로 와서 여기를 다시 뛰어넘으면 이제 피안의 세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간다 이런 소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살아서 열반이라고 하는 경계입니다. 죽어서 열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모든 거를 놔서 죽은 세상까지 돌아야, 살아 있는 세상과 죽어 있는 세상이 동시에 같이 있는데 거기를 찰나찰나 이렇게 한 바퀴 돌 줄 알아야, 모가 나지 않게 돌아갈 줄 알아야, 50%와 50%를 합쳐서 100%를 같이 굴릴 줄 알아야 이게 됩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셨죠, 처음에 물으실 때? 허허허….

질문자3(남): 어떻게 상대를 둘로….

큰스님: 내 듣고도 또 말하면서 잊어버렸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와야 그 둘이 아닌 도리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자식이 됐다가 부모가 돼요. 부모가 됐다가 또 한 번 옷을 벗고 한 번 돌아요. 돌아서 다시 탄생을 해 보니까 딴 부모한테 또 태어났어요, 인연에 따라서. 그러니까 또 딴 부모의 자식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딴 모습으로다가,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서 짐승의 자식이 돼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돌고 돌다 보니까 내 자식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부모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형제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공동묘지에 가 보니까 남녀노소도 없고 그대로 늙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깨쳐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줄과 염주알이 둘이 아니다. 뿌리와 싹이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뿌리의 세계를 알아야 뿌리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나오면서 자꾸 화(化)해서 모습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 인연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50%만 아는 게 아니라 100% 돌아가면서 알아야 '아, 모두가 둘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진실하게 알지 내가 직접적인 행을 해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먹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둘이 아닌 줄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죽었다 깨어나고, 깨어났다가 죽고 이러는 도리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도리를 알게 됩니다. 내 과거에 살던 나와 현실에 살던 자기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해야 진짜로 그런 도리를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너 나가 없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네 부모 내 부모 아님이 없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마음을 낼 수가 있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너 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둘이 아니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습이 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둘이 아니다, 영혼이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영혼이 둘이 아니라면 진짜로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습은 따로따로 각각 있을지언정 한 줄에 꿰였다 이겁니다, 한 줄에. 이 염주알은 따로따로 있으나 한 줄에 꿰여 있으니까 너 나가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도 또한 발견을 해야 아시겠죠, 확실하게.

그러나 발견을 못했어도 '진짜로 뿌리의 세계는 그렇게 둘이 아니구나. 영과 영이 만 개가 한데 합쳐도 영은 영이고 바로 둘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을 증오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하신다면 자식의 업보도, 남편의 업보도, 아내의 업보도, 부모의 업보도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실천을 아주 잘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면서도 실제로 체험하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자기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와 비교를 해서 얘기해 드렸으니까요. 한 찰나에 없어지는 것은 그거와 같다 이겁니다. 입력이 돼서 나오는 데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진다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 드렸으니까요.

내가 대답을 서투르게 해 드리더라도 여러분은 좀 지혜롭게, 너그럽고 둥글게, 이렇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난 배우지 못해서 그런지 그 용어를 방편으로 빨리빨리 대치를 해서 얘길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하하하….

질문자4(남): 제가 지금 나이가 쉰둘이거든요. 사실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자기 자신의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애기 낳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나의 생활로 생각되는데, 저의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는 저의 부모로 생각되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걸 현재로 생각할 것 같으면 저희 자식이 미래라고 생각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다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 보니까 자식들의 즐거움이 저의 즐거움보다 더 좋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하는 것도 자식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 말씀 좀 부탁하겠습니다.

큰스님: 아버지이니까요. 하하하…. 이 세상의 어떤 회사든 중역으로 돼 있는 사람은 중역이기 때문에 직원을 다스려야 한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댁도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기 전하고 아버지가 돼 가지고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더러운 것도 볼 수 있고, 망나니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너그러움이 있는 거지 만약에 장가들기 전이라면 딴 자식들이 그럭하는 거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나 아버지가 돼서 자식들을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니라. 그러니 곤충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이 다,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을 하는 그 부처의 마음은 모두 갖춰 가지고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마음은 찰나찰나 나투면서 아니 되시는 게 없기 때문에 청수에다가 비유를 하고 또 바다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이란 그저 내 자식, 내 재산, 내 것만 아는 개별적인 그릇으로서만의 얘기고, 부처님께서는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모든 생명들이 다 내가 될 수가 있고, 나로서 행할 수가 있고, 나로 나투면서 이끌어 주시는, 즉 말하자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뭐 갖은 이름의 일체 보살이 다 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일체 각계 각층 중생들이 다 될 수가 있으니까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여서 그런 거니까, 그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시라는 점에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로 행으로, 또는 돈을 잘 주거나 옷을 잘 입히거나 잘 먹이거나 이러는 것이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을 하는 것은 정신력을 길러 주는 것이고, 그 보배를 찾게 하는 것은 전 세계, 전 우주를 맡겨 주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사랑이 없고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대로 사랑하면서, 그대로 부드럽게 행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거기다가 다 맡기면, 서로 남편이다 부인이다 하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망하게 하는 모든 나쁜 습성을 고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또 자식도 몸을 잡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잘해 줘서 되는 것도 아니다. 단 하나, 그 모든 업식을 녹여 주면 스스로 밝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당신 주인공에 둘 아니게 맡겨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만이 부드럽게 행하게 하고, 아주 정말 보배스러운 인간으로서 자유인이 되게끔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고, 모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고, 자비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싱싱하게 키워 주고 보배를 찾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건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연방 해 보세요.

나가서 뭐 어떻게 하고 다니더라도 절대로 욕하거나 때리지 마세요. 또 부부지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속에 들어 있는 업보가 그러는 거니까, 바로 의식들이 그러는 거니까 '주인공! 그 뿌리는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인공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뿌리만이 싹을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 그렇게 해 주면서 겉으로는 부드럽게, 진짜 진실로써 그렇게 해 주고 한다면 정말 이 고(苦)의 테두리에서 몰락 벗어날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착한 자식이 되고 화목을 가져오고, 질서를 문란치 않게 할 수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질문자4(남):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큰스님: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리는데,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이 다 허공에서 사는 것 같지만, 자유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벗어나질 못해서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덩어리 자체도 자유스럽게 구르지를 못하고 매여서 삽니다. 우리도 매여서 살고 있고요.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습들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야 어찌 벗어날 길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벗어난다면 내 육체 이 모습을 만 가지로도 화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도 되고 저걸로도 되고 만법의 행을 그대로…, 보살이 될 때도 있고, 중생이 될 때도 있고, 짐승이 될 때도 있고, 곤충이 될 때도 있고, 꽃나무가 될 때도 있고, 어떠한 큰 목신이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거라는 거는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라고 했고 여래라고 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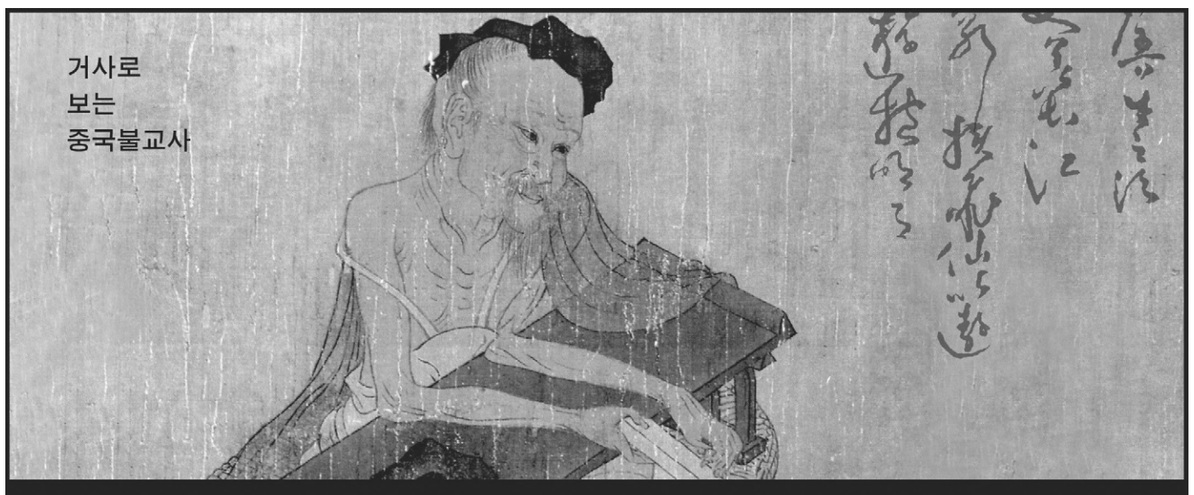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아신다면 무엇이든 다 될 수 있는 체험도 하시고…, 깨달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염주를 들어 보이시며) 이 원 안에서 벗어나서, 내 몸 안에서 벗어나서…, 이 원 안에서 벗어난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서로 도반으로 한마음 도리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도 즐겁습니다. 왜, 금은 금방에 모이고 넝마는 넝마전에 모이고, 무쇠는 무쇠전에 모이고 사람들도 끼리끼리 모이고 이러죠?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차원인지. 금차원이에요. 하하하…. 하여튼 감사합니다.

사회자: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자상한 가르침을 주시는 큰스님께 저희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큰스님: (부처님을 보시며) 저, 깨달으시면요, 저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서 삼천대천세계를 활용하신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허허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또.

죽든지 살든지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더 잘살려고 아무리 해봐도…,
차라리 아예 '이젠 너 알아서 해!' 하고,
'나는 부지런히 뛰어줄게, 너 알아서 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는 게 더 상책이 아닐까요? 더 살기가 편안하고요.

※위 법문은1994년 4월 3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불교의 거사들



거사, 중국불교를 일으키다

거사들의 생애와 활동, 사상을 통해 중국불교를 읽는다!
중국에 불교가 뿌리내리고 역사 속에서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재가 거사들의 뛰어난 활약이 있었다.
이 책은 중국불교의 대표적인 거사들이 당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불교를 위해 헌신하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개괄하였다.

김진무 지음/신국판/37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주문 (02) 3672-7181 ●인터넷서점: 붓다북 www.buddhabook.co.kr

티벳불교의 보리도차제법, 대원만 예비수행의 지침서!

大圓滿前行引導文

대원만 수행 요결

-꾼상라매샐룽

A Guide to the Preliminaties of the Great Perfection





밀교와 현교를 관통하여 성불의 길로 이끌어주는 수승한 정법!

어떻게 번민을 잠재우고 평안을 얻을 것인가?
번뇌의 불을 끄고 진정한 행복과 자재함을 가져다줄 최고의 가르침!
다양한 경전과 논서를 넘나들며, 알기 쉬운 해설로 진실한 발심과 성불의 길로 이끌어주는 안내자!

직메 최기왕뽀 저 • 수다지 캔뽀 한역 • 지엄 역/신국판양장/574쪽/값 28,000원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전화 (02) 926-8361 ●주문 (02) 3672-7181

불자 세상보기

논문표절 근절 위한 도덕·제도 대책 시급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교수불자연합회 초대회장

최근 우리사회는 수많은 사회 지도층의 논문표절 논란을 겪고 있다.

탤런트 김혜수, 스타강사 김미경, MC 김미화 등 방송인과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급 후보자 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까지 전방위적으로 학위논문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가히 표절공화국이라 칭할 만하다.

왜 논문 표절사건이 잇달아 터지는 것인가? 그동안 한국사회는 경쟁심화로 학력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졌다. 너도 나도 학위 하나쯤은 있어야 인정받는 세상인 것이다.

예로부터 박사는 한 분야의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 다른 이들을 지도할 만한 이를 일컫는 말이었다. 근래에 들어서는 자신의 인격과 교양 수준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 일반화 됐다. 그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은 현재 시스템 상 학위논문을 통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논문의 수도 범람한다. 예전과 달리 논문 수가 늘어나며 학계에 이슈를 낳는 특정 논문을 제외하고 사람들은 각 학위 논문을 눈여겨 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논문 표절의 유혹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논문 표절 발생은 학위논문 지도교수나 심사위원들의 소홀함과 해당 대학교, 교육과학기술부의 논문 검증시스템 미비 등 외부요인이 있지만 논문을 쓰는 당사자가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자기인격을 낮춘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기본질서가 붕괴현상이 신성해야 할 상아탑에 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의 길은 긴 인생과 같다. 스스로의 실력을 끊임없이 닦아 내면에서 지혜가 우러나 다른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학문이다. 겉치레 학위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겠다는 생각을 애시당초 버려야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논문표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삼계유심(三界唯心) 만법유식(萬法唯識)이라 하셨다. 일체현상이 '앎'이며, 이는 모두 마음의 표현이라 하신 것이다. 우리가 청정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또한 청정하게 바뀌어 가는 것이다.

먼저 사회 전반적으로 비리, 부정, 불신을 제거해 정의사회를 구현하자는 열의가 모여야 한다. 사회지도층부터 정의구현에 힘을 모으고, 스스로 청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논문표절을 비롯해 대학사회 만연한 부정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후배 교수들의 심기일전이 필요하다.

후배 교수들이 학문의 길을 걷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매사에 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논문표절의 외부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전국차원에서 논문표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 다양한 IT기술이 발달해 있다. 당국에서 조금만 신경 쓴다면 논문검증 시스템 마련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논문 표절이 드러날 경우 학위취소는 물론 공기업, 교육기관의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해야함은 물론이다. 이는 학자로서의 양심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자로서의 양식이 부족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더 한 경우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학위논문의 지도교수나 심사위원들이 학위신청자와 부정거래를 하거나 논문심사를 소홀히 하는 것 또한 막는 제도가 필요하다.

표절 논문을 통과시켰을 경우 교수의 경우 정직 해임 뿐만 아니라 민형사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각 대학 당국이 단과대학, 학부, 학과에서 표절논문을 통과시켰을 경우에는 학과나 학부에 대학원 과정을 폐쇄까지 단계적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대학장, 학부장, 학과장 등에게 행정책임을 묻는 책임제도 마련도 진행돼야 한다.

작금의 논문표절 사태는 그만큼 우리사회에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들이 예전보다 투명하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를 맑게 할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모두가 마음을 모을 때다.

발언대

연등회 자원봉사에 거는 기대

5월 11~12일 열리는 2013 연등회를 위해 국내 최초로 '2013 연등회 국제 자원봉사단'이 창단됐다. 한국불교와 연등회의 국제화를 위해 한 마음이 된 청년들과 대불청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자발적 체험 연등회 세계화 초석



전준호 중앙회장
대한불교청년회

세계 각국의 청년들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한국불교 문화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선택입니다. 단순히 축제 참가자가 아닌 축제를 준비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손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연등회만의 자랑은 다른 축제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자발성과 역동성에 있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참가자들은 손수 장엄등과 행렬등을 만들고, 율동을 배우며, 팀웍을 맞춰 축제에 참여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교육 과정은 10여 개 국가 70여 명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청년들이 연등회를 중심으로 불교를 배우고 체험하면서 서로 우의를 다지는 한편, 교류를 통한 문화 이해를 하게 되며, 서포터즈로서 역할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연등회에 참여해서는 내·외국인을 도와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경험이자 도전이 될 겁니다. 중간에 포기 하지 마시고, 처음 마음 그대로 함께해서 세계인의 축제 연등회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불청은 전 세계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체험활동이 연등회가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연등회, 카메라에 직접 담을 것



매튜 로셀로 가르시아
프리랜서·프랑스

현재 한국의 경제와 IT산업 현황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

이곳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목표를 세웠다. 바로 한국, 한국인, 특히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대해 가능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다.

불교는 유교, 개신교(불교와 유교만큼은 아니지만)와 함께 한국사회의 문화적 근간을 마련했다.

나는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사찰을 탐방하고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이제는 '2013 연등회 국제 자원봉사'를 통해 한국 불교의 전통과 신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싶다.

한국인들은 정이 많은 것 같다. 다른 외국인들보다 금새 친해질 수 있다는 점이 좋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한국문화와 한국인, 그리고 한국불교 등 한국의 총체적인 것들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특히 템플스테이와 수행 체험이 기대된다.

여행을 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인 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연등회를 내 카메라에 직접 담아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다.

한국문화와 한국인 정말 좋아요



비탈리아 라드제비시비에
학생·리투아니아

한국문화와 한국인을 정말 좋아한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롭고 낯선 것을 경험하고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알고 싶어서 한국에 공부하러 왔다.

폴크니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 보다 더 큰 꿈과 목표를 가져라. 현시대 혹은 과거의 사람들을 능가하려고 하기보다 현재의 자기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나는 매일 이 격언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이 격언이 나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단순한 관광객으로서 연등회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연등회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또한 명상과 템플스테이, 스님들의 생활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된다. 축제 당일에 방문객들을 돕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것 같다.

또한 행사전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조별로 주어진 과제와 미션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우면서도 기대도 된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을 통해 재밌고 의욕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社說

오현 스님의 아름다운 만해마을 기부

문학인들의 창작 공간이요 쉼터인 인제 만해마을이 동국대에 기부됐다. 이에 만해마을은 동국대 서울캠퍼스 부속시설로 편입돼 '동국대 인제 만해마을 캠퍼스'로 이름이 바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이사장 오현 스님과 동국대 김희옥 총장은 4월 3일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서울사무소에서 '만해마을 무상증여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동국대에 기증된 만해마을은 2003년 준공됐다. 매년 만해축전 8월경에 열리는 만해축전 기간중 학술대회, 만해백일장, 시인학교, 서예대전 등을 개최해 온 명실공히 우리 불교계 더 나아가서는 한국 문학과 문화계의 대표적 공간으로 거듭났다.

이곳 만해마을의 조성에는 신흥사 조실 오현 스님의 공이 컸다.

오현 스님은 그동안 만해마을을 건립해 만해 스님의 민족정신과 불교사상, 문학정신 등의 계승을 위해 노력해왔다. '백담사 만해마을'이는 이름 때문에 처음에는 만해축전을 단순 백담사의 사찰행사로 보는 시각도 많았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수상자들의 외연이 국내외 저명인사들로 넓혀지는 등 이제는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 문화행사로 입지를 굳혔다.

오현 스님은 기증식에서 "행사·축전 등을 위해 (지자체 등에) 돈 달라는 것은 승복입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집(만해마을)을 짓기는 했는데 어디에 갖다 버릴까 고민하다 동국대 기증을 결심했다. 인제군민의 군내 대학 유치 염원도 이룰 수 있겠다 싶었다"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오현 스님은 이뿐만이 아니다. 인제 백담사 셔틀버스 운영권을 지역민에게 넘겨 주고, 만해축전 때는 동네 이장을 단상에 앉게 하는 등 그동안 지역사회를 크게 배려해 왔다. 오현 스님의 아름다운 만해마을의 기부 회향을 보면서 히형기님의 '낙화' 한 대목이 떠오른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종교간 정부 예산 특혜 시비 종식되길

2010년부터 근자까지 일부 개신교가 주장한 불교계의 정부 예산 특혜는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 3일 창립한 종책연구모임 화엄광장과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정부 종교지원예산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종교는 개신교에 가까웠다. 실제 개신교는 2010년 1183억 원, 2011년 1362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줄기는 했으나 1148억 원이 지원됐다.

반면 불교는 2010년과 2011년 800~900억 원대의 정부 예산이 지원됐던 것이 2012년 1270억 원으로 상승됐다. 지난해 예산만 놓고 볼 때 불교와 개신교는 120억 원의 예산차이를 보이나 3년 간의 추이를 산정하면 개신교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은 셈이다.

그럼에도 일부 개신교 단체들은 불교가 전통문화 보존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받는 예산이 모두 특혜인 듯 호도했다. 심지어는 템플스테이 예산을 모두 환수하라며 지장보살상을 사탄이라고 운운하는 등의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정확한 근거가 없이 이웃종교를 비방하는 데 열을 올려왔다.

이번 연구 조사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주요 3대 종교의 정부 예산 추이를 분석해 이 같은 시비를 종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연구를 통해 나타났지만 불교는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지원이 많았고, 사학과 복지재단이 많은 개신교는 이에 대한 많은 예산을 받았다.

상대 종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종교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경쟁을 통한 이윤 추구가 아닌 공공선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허구적 주장을 통해 이웃종교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사태가 없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생활속에 만나는 부처님 말씀

지혜와 깨달음을 담은 법구경
그 귀한 가르침을 법과에 담았습니다.
과자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귀한 가르침.
부처님 오신 기쁜날, 신도들과 함께
그 참된 뜻을 기리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해보세요.



법과란?

BUDDHA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는 과하지 않으면서 은은한 법과전용 포장지에 포장되어 나가며
법과안에는 법구경의 지혜로움이 적혀있는 슬립지가 있습니다.


쿠키



포장지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법과의 효과

BUDDHA

이미 많은 사칠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 슬립지

BUDDHA



[앞면예시]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내용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뒷면예시]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 법구경이
각각 다른디자인으로 랜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